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전병곤 · 홍우택 · 신종호 · 김병석 · 서상민 · 양갑용 · 윤경우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전병곤·홍우택·신종호·김병석·서상민·양갑용·윤경우

##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61 (팩스)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인 쇄 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ISBN 978-89-8479-773-4 93340  
가 격 ₩9,000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b>요약</b>	ix
<b>I. 서론</b>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6
3. 연구방법	8
<b>II. 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사회네트워크 분석</b>	11
1. 중국공산당 정치엘리트 관련 선행연구 검토	15
가. 정치집단·파벌을 통한 중국의 권력엘리트 연구	15
나. 실증적 조사방법을 통한 정치엘리트 연구	22
다. 기존 중국 정치엘리트 연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25
2. 중국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분석방법론	27
가.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분석의 7가지 가설	27
나.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분석 대상	34
3.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분석	39
가.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와 그 특징	39
나. 당·정·군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출신 지역별 분석	58
다. 당·정·군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세대별 분석	63
<b>III. 중국 중앙정부 및 군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분석</b>	71
1.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기법	75
가. 데이터 코딩 방법 및 분석 대상	75
나. 관계데이터 및 인접행렬	76
다. 통계 자료 분석 및 특징	78
2.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분석	92
가. 네트워크 구조 및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92
나. 중앙정부의 사회네트워크 구조 지표와 교류 특성	99

다. 농업부, 외교부, 상무부 상호작용 효과 분석	101
3. 중국 군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분석	109
가. 중국 군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109
나.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111
<b>IV. 결론: 종합평가와 시사점</b>	115
1. 종합평가	117
가. 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사회네트워크 평가	117
나. 한중 인사 교류와 사회네트워크 평가	120
2. 정책적 시사점	123
<b>부록</b>	129
[부록 1]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	131
1.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론	132
가. 사회네트워크 분석 특징	134
2. 사회네트워크의 분류	136
가. 전체 네트워크와 예고중심 네트워크	136
나. 원모드 네트워크와 투모드 네트워크	137
3. 사회네트워크와 그래프이론	140
4. 구조 지표와 수리적 특성	144
가. 사회네트워크 구조특성과 지표	146
나. 중심성과 집중도	147
[부록 2]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주요 인물의 대 한국 교류 현황	161
[부록 3] 중앙정부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권력엘리트 명단	167
<b>참고문헌</b>	173
<b>최근 발간자료 안내</b>	179

## 표 목차

〈표 II-1〉 중국 493명 권력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 조사에 따른 분석 지표	29
〈표 II-2〉 중국 권력엘리트의 연령별 분포	37
〈표 II-3〉 호적지별 중국 권력엘리트의 분포	39
〈표 II-4〉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밀도	42
〈표 II-5〉 중국 권력엘리트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 상위 20인	53
〈표 II-6〉 중국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상의 역할지수 상위 10인	56
〈표 III-1〉 한중교류 관련 기존 연구	74
〈표 III-2〉 웹정보 수집 및 분석 절차	75
〈표 III-3〉 관계데이터 추출 예시	77
〈표 III-4〉 중앙정부 25개 부처와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본 구조	79
〈표 III-5〉 교류 여부 및 빈도(한국 검색엔진 조사 결과)	80
〈표 III-6〉 교류 여부 및 빈도(중국 검색엔진 조사 결과)	82
〈표 III-7〉 성별로 본 교류 네트워크 특성	83
〈표 III-8〉 연령별로 본 교류 네트워크 특성	84
〈표 III-9〉 한중 검색엔진의 조사 결과 비교	85
〈표 III-10〉 교류 빈도의 부처별 분류(한국 검색엔진 조사 결과)	86
〈표 III-11〉 교류 빈도의 부처별 분류(중국 검색엔진 조사 결과)	87
〈표 III-12〉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의 연도별 교류 현황	89
〈표 III-13〉 교류 목적별로 분류한 연도별 교류 현황	91
〈표 III-14〉 중앙정부 각 부처별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인물 분석	94
〈표 III-15〉 직급에 따른 중심성 분석	96
〈표 III-16〉 농업부 한창푸 부장의 교류내용 및 목적	97
〈표 III-17〉 외교부 왕이 부장의 교류내용 및 목적	98
〈표 III-18〉公安부 귀성쿤 부장의 교류내용 및 목적	99
〈표 III-19〉 농업부 교류 현황과 네트워크 구조	102
〈표 III-20〉 외교부 교류 현황과 네트워크 구조	103
〈표 III-21〉 상무부 교류 현황과 네트워크 구조	105



〈표 III-22〉 중국 군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현황	110
〈표 III-23〉 한국 정권별 국방·안보·외교 분야 교류 현황	112
〈표 부록-1〉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란	133
〈표 부록-2〉 사회네트워크 분석 대상과 관계	135
〈표 부록-3〉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점과 라인을 표현하는 단어	142
〈표 부록-4〉 사회네트워크 상호작용과 구조적 기준	145
〈표 부록-5〉 사회네트워크의 구조 특성과 지표(혹은 변수)	147
〈표 부록-6〉 중심성과 집중도 비교	148
〈표 부록-7〉 연결정도 중심성 상위 20명·네트워크 역할 지수 상위 10명의 대 한국 교류 현황	161
〈표 부록-8〉 차세대 주요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현황	163

## 그림 목차

〈그림 II-1〉 중국 당·정·군 493명 권력엘리트의 전체 네트워크 구조	44
〈그림 II-2〉 연결정도가 강한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44
〈그림 II-3〉 연결정도가 강한 115인 권력엘리트의 입체 네트워크	45
〈그림 II-4〉 지식청년 경험 지표를 제외한 중국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47
〈그림 II-5〉 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커뮤니티 분석	50
〈그림 II-6〉 매개 중심성 동심원 그래프	55
〈그림 II-7〉 연령대별 각 권력엘리트들의 역할 위치도	57
〈그림 II-8〉 산동성 출신 권력엘리트 분포	59
〈그림 II-9〉 하북성 출신 권력엘리트 분포	61
〈그림 II-10〉 강소성 출신 권력엘리트 분포	63
〈그림 II-11〉 40대 권력엘리트 분포	65
〈그림 II-12〉 공청단 출신 권력엘리트 분포	66
〈그림 II-13〉 북미-유럽 유학경력자 권력엘리트 분포	67
〈그림 II-14〉 50대 권력엘리트 분포	68
〈그림 II-15〉 60대 권력엘리트 분포	69
〈그림 III-1〉 외교부, 농업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구조	93
〈그림 III-2〉 중앙정부 부처별 연결정도 중심성	100
〈그림 III-3〉 중앙정부 부처별 표준 중심성 및 연결정도 집중도	101
〈그림 III-4〉 농업부, 상무부, 외교부의 상호 교류 네트워크 구조	108
〈그림 III-5〉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2005~2007년	113
〈그림 III-6〉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2008~2012년	113
〈그림 III-7〉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2013~2014년	114
〈그림 부록-1〉 투모드 네트워크 예	138
〈그림 부록-2〉 투모드 행렬의 변환	139
〈그림 부록-3〉 그래프의 형태	143
〈그림 부록-4〉 리무브 효과	159
〈그림 부록-5〉 중심의 이동	160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중국 내 친한 성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만일 중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친한 성향을 띤다면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모든 인물들을 친한 성향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쩌면 몇몇 주요 인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주요 인물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권력엘리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언론을 통해 권력의 상단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칭하는 사기행각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러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신문에 나오는 사기행각은 없는 영향력을 있다고 속인 사기인 것이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친구 혹은 지인을 통해서 제삼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유사한 경우는 같은 조직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처리를 보다 빨리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담당자의 고교동창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부탁을 하기도 한다.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 구상도 이와 같은 비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국의 권력엘리트들 사이에도 마당발인 인물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엘리트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이 있을 것이다. 중국 권력엘리트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점을 찾는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당·정·군 지도부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 분

---

석을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중국 권력엘리트 내에서 가장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소위 마당발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만일 중국 권력엘리트 내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면, 이러한 인물이 한국 측 인사와 교류는 있었는지, 또 교류 네트워크는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만일 교류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대중국외교는 한결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중국외교의 전략방향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두 번째 분석목표를 지난 10년(2005~2014년)간 구축된 한중교류 네트워크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 삼았다. 즉, 중국의 중앙정부 부처와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인사들이 한국의 주요 인사와 축적해온 다양한 교류협력관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매개 인사(들)는 누구인지, 그리고 제대로 맥을 짚은 중국 인사와의 교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사회네트워크 분석,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한중교류 네트워크

## **Chinese Power Elite and Analysis of Network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Jun, Byoungkon et al.*

This study has aimed to analyze the leadership with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officials in detail. And with this as the basis, the study was further aimed to analyze the figures that has a considerable voice in decision-making within the Chinese leadership. And when core figures within the Chinese leadership existed, it explored whether they had contact with South Korean figures and created a connection network thereafter. If the network had already been created, South Korea's diplomacy with China would have been manageable, but if no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have to change its strategic direction on diplomacy toward China. To fulfill such necessit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the South Korea-China exchange network as the second goal of analysis.

**Keywords:** Social Network Analysis, Network of Chinese Power Elite, Network of Korea-China Relations



# I. 서론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래 지금까지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기는 없었다.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한국과 중국은 외교·경제·친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각종 외교 현안에서 협력과 신뢰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유일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해석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외교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우호적인 주변국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 및 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중국 내 친한 성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만일 중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친한 성향을 띤다면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모든 인물들을 친한 성향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찌면 몇몇 주요 인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주요 인물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국의 권력엘리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중국의 주요 인물(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중국 권력엘리트에 관한 연구는 권력엘리트 집단의 특성과 정책결정과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혹은 특정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내부의 갈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요약하면 파벌 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타협과 협

력이라는 ‘파벌정치’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권력엘리트 그룹의 성격을 설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파벌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술관료(Technocrat)’들의 등장이 중국 정치의 ‘파벌투쟁’적 성격을 약화시켰는지 여부,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정치제도화가 과연 중국 권력정치의 불확정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등장한 연구주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중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종종 권력의 상단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칭하는 사기행각에 관한 기사를 언론에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러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신문에 나오는 사기행각은 없는 영향력을 있다고 속인 사기인 것이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친구 혹은 지인을 통해서 다른 삼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유사한 경우는 또 있다. 같은 조직 내에서도 일처리를 보다 빨리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담당자의 고교동창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부탁하기도 한다.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 구상도 이와 같은 비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국의 권력엘리트들 사이에도 마당발인 인물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엘리트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이 있을 것이다. 중국 권력엘리트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당·정·군 지도부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 분석을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중국 권력엘리트 내에서 가장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소위 마당발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만일 중국 권력엘리트 내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면, 이러한 인물

이 한국 측 인사와 교류는 있었는지, 또 교류 네트워크는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만일 교류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대중국외교는 한결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중국외교의 전략방향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두 번째 분석목표를 지난 10년(2005~2014년)간 구축된 한중교류 네트워크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 삼았다. 즉, 중국의 중앙정부 부처와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인사들이 한국의 주요 인사와 축적해온 다양한 교류협력관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매개 인사(들)는 누구인지, 그리고 제대로 맥을 짚은 중국 인사와의 교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실 한국과 중국은 주요 인사 간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의 의견, 정보,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교류로 인해 교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한중 주요 인물 사이에는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한중 간 상호작용 패턴을 탐색하였다. 즉, 한중 간 다양한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환경과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의 연결 구조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목적을 두 가지로 잡은 이유는 중국 지도부와 주변부 사이에 벌어지는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 한중교류 역시 동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중교류 및 인맥 네트워크 또한 새롭게 진화하고 변화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룰 주제는 중국 내부의 정책변화로 야기되는 중국 내 사회네트워크 구조변화를 통해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변화를 분석하고, 새롭게 진화된 한중 네트워크의 변화를 통해

I
II
III
IV

한중 정책협력에 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3개년 계획으로 기획된 연구의 2차년도 연구다. 3개년 연구의 전체적인 기획 의도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책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서는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현황 및 인사파일을 수집하고 대체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번 2차년도에서도 시진핑 지도부의 인사파일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완료하는 것과 더불어, 중국 권력엘리트 내부의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중국 국무원 산하 25개 부·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권력엘리트의 한국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차기 3차년도에 진행할 연구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관련 주요 사안을 선별하여 정책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연도에 진행되는 연구는 독립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 연도의 연구 결과와 자료가 다음 연도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수집한 인사파일 자료집 내용에는 중국의 당·정·군 및 지방정부 지도부 인사들의 개인별 연령, 출생지, 학력, 그리고 경력 등을 담았다. 조사한 중국 지도부 인사는 총 1,178명(중복 포함)으로 중국 권력엘리트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한중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정책협력방안을 구상할 때 대상 인물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자료의 성격이 민감한 까닭에 별도의 책으로

출판하였다.

인사파일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외에 2차년도의 주요 연구 범위와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중국 권력엘리트 내부의 네트워크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당·정·군 권력엘리트 493명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소속부서 경력을 분석 자료로 삼아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조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국무원 산하 25개 부·위원회)와 군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 권력엘리트의 한국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조사하였다. 즉, 중국 권력엘리트의 한국과의 외교, 경제, 친교 등 다양한 교류에서 나타나는 구조와 패턴을 살펴보고, 교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다. 제Ⅳ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정리하였다. 분석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이 의미하는 바와 수리적 도출방법을 정리하여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으로 조사할 네트워크 구조는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와 한중 인사교류 네트워크 두 가지다.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각각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지만,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상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 먼저 중국 권력엘리트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는 호적지, 전공분야, 지식청년(知識靑年) 경험, 공청단(共靑團) 가입유무, 근무지역, 그리고 나이 등과 같은 인적 데이터 혹은 인구 통계적 데이터이다. 조사 대상은 당·정·군 권력엘리트가 장악하고 있는 600여 개의 직책 중 493명에 국한하였다. 493명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과 후보위원 376명을 비롯해 중앙정부 부처 부장 및 부부장과 각 성의 성장과 당서기 218명,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0명이다. 이들 중에는 여러 직책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관계로 실제 조사 인원은 493명이다.

이에 반해 한중 인사교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한중 간 교류에 등장하였던 인물을 중심으로 교류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 한중 인사교류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는 인적 데이터가 아니라, 중국의 중앙정부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요 권력엘리트들이 한국의 어떤 인사와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담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 국무원 산하 25개 부·위원회의 부장 및 부부장급 인사,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과 위원 10명이 포함된다. 데이터는 국내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중국의 바이두(百度)에 담겨 있는 정보를 내용 분석방법으로 수집하였는데, 중국 인사를 중심으로 최근 10년(2005~2014년)간 한국 인사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교류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가 사용한 분석방법은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근래에 들어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개별적인 속성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통계적 분석방법이었다면, 네트워크 분석은 개별행위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적 속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특정 집단의 네트워크 형태 및 특징을 도출하고 설명하는 분석방법이다. 행위자와 행위자의 관계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에서 관계는 방향성(Direction), 강도(Strength),

그리고 내용(Content)으로 설명을 한다.<sup>1</sup> 여기에서 방향성은 행위자 사이에 주고받는 것을, 강도는 두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 그리고 내용은 행위자 사이가 실제로 어떤 관계인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으로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패턴과 규칙을 분석한다.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 나타나는 관계성의 형태나 사회적 연결의 패턴을 분석하여 사회구조와 행위를 연구하는 방법이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중국 내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와, 그들과 한국 내 주요 인사와의 교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즉, 새로운 중국의 권력엘리트 분석방법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중국의 권력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정치집단이나 파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권력정치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와 ‘기술관료’와 같이 정치엘리트의 성격이나 구성의 변화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집단·파벌’이나 ‘정치엘리트’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지 않고 기존의 연구 성과에 기대어 이 개념들을 적용하여, 이들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중국 권력엘리트 분석하기 위해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한중교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기초로 정치, 사회, 문화, 국방, 경제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 축적되어 있는 한중교류와 연관된 정보를 추출하여 교류의 특성과 상호작용

---

<sup>1</sup> Stanley Wasserman and Katherine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and applications* (New York and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37~38.

용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내용 분석방법이란 텍스트나 문장을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특정한 사안의 성격이나 특성을 잡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텍스트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탐색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통계 방법 및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범주 혹은 텍스트, 워드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 II. 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일반적으로 중국 권력엘리트의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권력엘리트 집단의 특성과 정책결정과정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권력엘리트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정치적 사건에 관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정치를 들여다 보면 권력엘리트 간의 갈등은 노선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정책대립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는 권력투쟁의 명분으로 노선이나 정책을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노선과 정책대립이 권력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중국의 정치과정은 일종의 ‘암흑상자(黑箱子)’로 비유할 수 있다. 권력투쟁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암흑상자’를 열어보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특히 ‘파벌(派閥)’은 중국 권력엘리트 연구의 주요 관심사였다. 중국의 정치에서 파벌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하 문혁) 시기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권력엘리트들 간에 갈등을 겪으며 파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원적 권력관계(Power Relation)의 정체성과 비역동성을 비판하면서 파벌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권력 세력 간의 갈등 및 협력이 일어나면서 파벌은 중국 정치의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파벌은 중국의 현실정치를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의 권력엘리트 연구는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새로운 권력엘리트 계층, 즉 ‘기술관료’를 만들어 내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기존 파벌에 초점을 맞춘 권력엘리트 연구가 ‘기술관료’ 연구로 대체된 것은 아니다. 파벌 간에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타협과 협력에 초점을 맞춘 ‘파벌정치’ 연구에 새롭게 등장한 권력엘리트 그룹

I
II
III
IV

인 ‘기술관료’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권력엘리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기술관료’는 ‘구 혁명 간부’와 구별되는 정책지향성과 정책목표 그리고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중국 정치의 전개과정을 전망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기술관료’를 중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함시킨다고 해서 분석의 결과가 풍부해지거나 정확해 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파벌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술관료’들의 등장이 중국 정치의 성격을 변화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술관료’의 등장으로 인해 중국의 정치제도화가 중국 정치의 불확정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는지에 대한 논의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권력정치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혁명간부’, ‘기술관료’, 그리고 ‘정치기술관료’로 권력엘리트층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중국 권력정치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권력엘리트의 충원 방식과 권력승계의 제도화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보즈위에(Bo Zhiyue)같은 학자는 ‘권력 균형화(Power Balancing)’ 모델<sup>2</sup>을 이용해 중국 정치에서 권력은 분할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권력을 균형화하는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권력정치의 근본적 성격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어쩌면 중국 권력정치의 현실은 동질적인 특정 권력 그룹 혹은 파벌 수준을 넘어 권력이 공유되고 연계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즉, 특정 파벌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아니라, 파벌 간의 연합 혹은 대립이 중국 정치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권력엘리트 간 ‘네트워크’

---

<sup>2</sup> Zhiyue Bo, *China's Elite Politics: Political Transition and Power Balancing* (Singapore: World Scientific Press, 2007), pp. 5~6.

라는 분석틀을 이용해 중국 정치의 권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관계론(Relationalism)’적 접근을 통해 세력과 세력 간의 관계, 그리고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권력엘리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절에서는 그동안 국내외에 학계에서 연구된 중국 정치엘리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즉, 정치집단이나 파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권력정치과정을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기술관료’와 같이 권력엘리트의 성격이나 구성의 변화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정치집단·파벌’이나 ‘정치엘리트’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지 않고 기존 연구 성과에 기대어 이 개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권력엘리트 간 네트워크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기 때문에 권력정치과정에 대한 연구 성과와 성격 및 구성변화와 관련된 양적 연구 성과도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들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중국의 권력엘리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 1. 중국공산당 정치엘리트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가. 정치집단·파벌을 통한 중국의 권력엘리트 연구

중국 정치의 특성상 제도화된 갈등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국가체제 하의 중국에서 다당제나 정치적 이익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치에서 권력 갈등을 제도화된 조직체 간의 갈등으로 분석하려 한다면 제도적-비제도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sup>3</sup> 실제로 아무런 공식적인 직책이나 지위가 없이 막후에서

I
II
III
IV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덩샤오핑(鄧小平)이나 장쩌민(江澤民)과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다. 결국 중국 정치에서 권력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도적이며 공식적인 조직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비공식적이며 사적인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벌은 이러한 중국 정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유용한 개념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sup>4</sup>

초기 중국의 파벌연구는 권력엘리트 간 갈등이나 파벌정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권력투쟁과정에서의 제도화된 ‘게임의 규칙’이 없이 권력승계를 둘러싼 극단적인 갈등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파벌정치는 대약진운동으로 일컬어지는 마오쩌둥(毛澤東)식 대중동원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정책이 실패하자, 그 결과를 둘러싸고 마오쩌둥의 추종세력과 당 지도층 간에 의견대립이 점차 표면화되어 마오쩌둥 사후 권력승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본격

---

<sup>3</sup>- Jurgen Domes, “Intra-Party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st Rule in China,” *Presented for the 4th Sino-American Conference on Mainland China (Taipei: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cember 12-15, 1974)*, pp. 2~5.

<sup>4</sup>- Nathan Andrew, “A Factionalism Model for CCP Politics,” *China Quarterly*, No. 53 (January 1973), pp. 33~66; Tang Tsou, “Prolegomenon to the Study of Informal Groups in CCP Politics,” *China Quarterly*, No. 65 (March 1976), pp. 98~119; Tang Tsou, “Chinese Politics at the Top: Factionalism or Informal Politics? Balance-of-Power or a Game of Win All?” *China Journal*, No. 34 (July 1995), pp. 95~156; Lucian Pye, *The Dynamic of Chinese Politics* (Cambridge, Massachusetts: Oelgeschlager, Gun & Hain, 1981), pp. 105~107; Lowell Dittmer, “Chinese Informal Politics,” *China Journal*, No. 34 (July 1995), pp. 1~34; Cheng Li, “University Networks and the Rise of Qinghua Graduates in China’s Leadership,”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32 (July 1994), pp. 231~264; Murray Tanner, “Family Politics, Elite Recruitment, and Succession in Post-Mao China,”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30 (July 1993), pp. 89~119; Jing Hua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 28~29.

화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초기의 파벌은 문혁 당시 름바오(林彪)의 기반인 ‘군부세력’과 장칭(江青)의 ‘대중조직’,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마오쩌둥의 고향인 호남성 출신과 름바오의 고향인 호북성 출신으로 구성된 파벌로 분류한다.

파이(Lucian Pye)는 파벌정치를 정책적인 입장보다는 개인의 신분보장과 출세를 위해 사적인 관계로 결합된 집단정치의 특징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sup> 그는 파벌을 “서로 친밀하며, 상호 신뢰와 충성심을 공유하고 있고,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같은 파벌의 형성은 자신의 ‘지위의 보존과 상승’을 위한 욕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향(同鄉)’, ‘동학(同學)’, ‘동행(同行)’에 의하여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동향은 지역적인 연줄관계, 동학은 같은 학교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생기는 연줄관계, 동행은 같은 조직이나 유사단체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화이트슨(William Whiteson)의 인민해방군 야전군과 관련된 파벌연구<sup>6</sup>와 나단(Nathan Andrew)의 ‘추종자관계’에 입각한 ‘공동인식-충돌-위기’ 순환모델에 관한 연구,<sup>7</sup> 파이(Lucian Pye)의 중국의 정치문화에 기초한 권력과 지위 보장을 위한 ‘배타적 관계(Particularistic Relations)’로서의 파벌연구<sup>8</sup> 등은 앞에서 제기한 동향, 동학, 동행에 따른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파벌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엘리트들의 업

<sup>5</sup>- Lucian Pye, *Ibid.*, pp. 137~139.

<sup>6</sup>- William Whiteson, “The Concept of Millitary Generation: The Chinese Communist Case,” *Asian Survey*, Vol. 8, No. 11 (November 1968), pp. 921~947.

<sup>7</sup>- Nathan Andrew, “A Factionalism Model for CCP Politics,” *The China Quarterly*, No. 53 (January 1973), pp. 45~47.

<sup>8</sup>- Lucian Pye, “*The Dynamic of Chinese Politics*,” pp. 159~160.

무경력, 학교, 가족, 고향 등과 관련된 연관성을 찾아 중국 정치의 변동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반면 저우(Tang Tsou)는 상하 간 ‘배타적 관계’를 중시하는 파벌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비공식 집단(Informal Groups)’이나 ‘정치행동 집단(Political Action Group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9</sup> 저우는 파이가 내세우는 상하적 위계질서의 ‘후원자-추종자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s)’로는 동료와 같은 사적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정치적 네트워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같은 연장선에서 디트머(Lowell Dittmer) 역시 상하의 수직적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파벌정치’라는 개념을 대신하여 동향, 동학, 교우, 가족 등 비공식적 관계를 포함한 ‘비공식정치(Informal Politics)’라는 개념이 분석에 더 적합하다고 제기한다.<sup>10</sup>

정치집단과 파벌은 권력투쟁이나 정책노선의 갈등 그리고 조직 이익의 충돌에 따라 형성된다.<sup>11</sup>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 목표는 역시 권력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정치엘리트는 권력투쟁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후원자-추종자 관계라는 사적 네트워크를 짚는 것이다. 나단은 중국 정치엘리트들 간의 이념이나 정책노선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권력투쟁이 격화되면 이념이나 정책노선의 차이가 더 확대되고 극단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sup>12</sup> 한편 티위스(Fredrick Teiwes)는 파벌정치의 시

---

<sup>9</sup>- Tang Tsou, "Prolegomenon to the Study of Informal Groups in CCP Politics," pp. 97~98; Tang Tsou, "Chinese Politics at the Top: Factionalism or Informal Politics? Balance-of-Power or a Game of Win All?" pp. 136~139.

<sup>10</sup>- Lowell Dittmer, "Chinese Informal Politics," pp. 12~15.

<sup>11</sup>- Lowell Dittmer and Yu-Shan Wu, "The Modernization of Factionalism in Chines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47, No. 4 (July 1995), pp. 467~494; Jing Hua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pp. 2~3.



작을 문혁시기 보다 앞당겨 1950년대 초 가오강(高岡) 사건을 통해 중국의 파벌정치의 시발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중국 건국 후 파벌정치는 ‘업무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마오쩌둥의 권위와 균형적 업무분배를 통해 정치엘리트 집단 내 ‘안정과 단결(Stability and Unity)’을 유지했다고 지적한다.<sup>13</sup>

권력투쟁을 파벌정치의 중심에 놓고 분석한 연구와는 달리, 정책적 차이 또는 정책노선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파벌정치를 분석하는 흐름도 있다. 먼저 저우는 중국 정치에서 권력투쟁 만큼이나 정책 혹은 이념의 갈등이 중국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sup>14</sup> 권력투쟁만으로 중국 정치의 동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치에서 정치엘리트 간 새로운 이념과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엘리트 간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해소하면서 합의한 타협을 통해 새로운 이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햄린(Carol Hamrin)은 정책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개혁 시기 정치엘리트를 보수파와 개혁파로 분류하였다.<sup>15</sup> 그는 개혁·개방정책과 관련해 두 정책집단 간의 정책노선을 둘러싼 경쟁과 그 경쟁의 승패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햄린에 따르면 보수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균형과 안정을 위해 계획통제경제와 국가의 기능강화를 위한 중앙집중제를 옹호하였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4항 기본원칙의 견지’를 강하게 주장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개혁파는 단순히 경

<sup>12</sup> Nathan Andrew, “A Factionalism Model for CCP Politics,” pp. 46~48.

<sup>13</sup> Fredrick Teiwes, *Politics at Mao' Court: Gao Gang and Party Factionalism in the Early 1950s* (Armonk, New York: M. E. Sharpe, 1990), pp. 143~145.

<sup>14</sup> Tang Tsou, “Chinese Politics at the Top: Factionalism or Informal Politics? Balance-of-Power or a Game of Win All?” p. 137.

<sup>15</sup> Carol Hamrin, “Competing ‘Policy Packages’ in Post-Mao China,” *Asian Survey*, Vol. 24, No. 5 (May 1984), pp. 487~518.

제와 사회구조상의 개조뿐만이 아닌 관료 및 조직상의 제도적인 개편과 기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 없이는 개혁과 개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주도형 경제체제와 정치제도의 개혁을 보다 급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 간 정책갈등의 결과가 ‘일수일방(一收一放)’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반면에 권력투쟁과 정책노선 갈등만으로 중국 파벌정치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리버탈과 옥센버그(Lieberthal & Oksenberg)는 파벌정치과정에서 권력과 정책의 갈등이나 충돌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관료조직 이익 간의 갈등이라고 주장한다.<sup>16</sup> 정치엘리트는 자신의 ‘경력경로(Career Path)’를 통해 형성된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적,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셔크(Susan Shirk) 또한 중국 최고위 정치엘리트는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후원자-추종자 관계를 활용하여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고, 그 보답으로 이들 조직에 이익이 되는 모종의 정치적 조치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파벌에 대한 연구 성과는 중국 정치의 제도화와 관련된 연구로 이어졌다. 1990년 말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비공식 영역에서의 파벌이나 정치집단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공식적 영역에서의 정치 세력 간 관계 그리고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정치 과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sup>18</sup> 제

---

16. Kenneth Lieberthal and Michel Oksenberg, *Policy Making in China: Leaders, Structures, and Proces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p. 4~7.

17. Susan Shirk,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90.

18. Teiwes, Frederick. “The Paradoxical Post-Mao Transition: From Obeying the Leader to ‘Normal’ Politics,” *The China Journal*, No. 34 (July 1995), pp. 55~

도화와 관련하여 떠오른 주요 연구주제로는 리더십교체(Leadership Succession)의 공식적 규칙과 제도, 집단지도체제 하에서의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된 기구, 제도, 절차, 행위자 연구, 그리고 제도화 과정에서의 중국 정치가 직면하게 될 장애요인과 기회요인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sup>19</sup>

정치집단이나 파벌을 통한 중국의 권력정치과정 연구와 더불어 진행되어 온 연구가 중국 정치엘리트의 성격과 세대별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양적 데이터를 동원하여 증명하려 했던 연구이다. 전자가 정치엘리트 간 권력투쟁과 정책노선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권력정치의 동학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였다면, 후자는 1949년 이후 중국 사회주의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했던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중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정치엘리트의 성격과 역할에서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

94; David Bachman, “The Paradox of Analysing Elite Politics under Jiang,” *The China Journal*, No. 45 (January 2001), pp. 95~98; Lowell Dittmer, “Chinese Informal Politics,” p. 58; David Shambaugh, “The Dynamics of Elite Politics During the Jiang Era,” *The China Journal*, No. 45 (January 2001), pp. 104~105.

<sup>19</sup>- Nathan Andrew, “China’s Changing of the Guard: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Vol. 14 (January 2003); Shiping Zheng, *Crossing the Political Minefield of Succession: From Jiang Zemin to Hu Jintao*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2002); John Wong, et al. (eds.), *China’s Post-Jiang Leadership Succession: Problems and Perspectives*, (Singapore: World Scientific Press, 2001); Joseph Fewsmith, “The Sixteenth National Party Congress: the Succession that Didn’t Happen,” *The China Quarterly*, Vol. 173 (2003); Bo Zhiyue, “Political Succession and Elite Politics in Twenty-First Century China: Towards a Perspective of Power Balancing,” *Issues and Studies*, Vol. 41, No. 1 (March 2005) 등을 참조.

## 나. 실증적 조사방법을 통한 정치엘리트 연구

한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권력구조에 반영된다. 그리고 권력구조에 따라 정치체제의 성격은 변한다. 정치체제의 안정성은 그 체제의 권력구조의 안정성은 물론, 정치엘리트의 동질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구조와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체제에 속한 정치엘리트의 성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정 정치체제 내 정치엘리트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그 체제의 권력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엘리트는 해당 체제에서 정치적 지배를 하는 계층을 일컫는다. 모스카(Gaetano Mosca)와 파레토(Vilfredo Pareto)에 따르면, 정치엘리트는 “직접적으로 정치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치권력의 행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을 정치엘리트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0</sup> 즉,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행위자를 이른바 ‘정치엘리트’라고 한다.<sup>21</sup>

중국도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치엘리트가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의 당-국가체제에서 최고위 정치엘리트로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의 경로를 거친다.<sup>22</sup> 먼저 당 관료(Apparat)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경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중앙당이나 지방 당에서 활동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한다. 두 번째 경로는 이념가(Ideocracy) 경

---

20. Gaetano Mosca, *The Ruling Class* (New York: McGraw Hill, 1939), p. 50; Vilfredo Pareto, *The Mind and Society. A Treatise on General Sociology* (New York: Dower. Pareto, 1935), pp. 1422~1424.

21. Bottomore Tom, *Elites and Society* (London: C.A. Watt and Co. Ltd, 1964), p. 12.

22. Macridis Roy, *Modern Political Regimes: Patterns and Institutions*, (Boston: Little, Brown, 1986), pp. 144~145.

로인데, 당-국가체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이념을 연구, 선전하고 이를 교육하는 엘리트들이 밟게 되는 경로다. 세 번째 경로는 과학기술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전문 지식인이 당과 정부에서 정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위 정치엘리트로 성장하는 기술관료(Technocrats) 경로다.

중국의 정치엘리트로 성장하는 이 세 가지의 경로는 곧바로 정치엘리트의 종류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엘리트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연구들은 중국 정치사에 ‘기술관료’라는 새로운 정치엘리트가 1980년대 등장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정치 연구자들은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기술관료’의 범위와 사회경제적 배경 및 특징을 밝혀내려고 했다. 리청과 화이트(Cheng Li & Lynn White)는 중국과 대만의 엘리트를 비교한 결과 두 국가 모두 기술관료들이 정치지도자에 의해 발탁되어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밟았다는 것이 유사하다는 발견을 하였다.<sup>23</sup> 이홍영(Hong Yung Lee)은 기술관료를 “생산과 관련된 자연과학분야에서 교육받고 또한 그 이후 관료조직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한 엘리트”라고 정의하고, 이들의 연령, 교육배경, 전공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양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sup>24</sup>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거의 2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중앙위원회에서의 ‘기술관료’의 분포와 변동현황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중국 정치에서 기술관료가 중앙 고위 정치엘리트로 진입하는 비율을 놓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 했으며, 이들

<sup>23</sup> Cheng Li and Lynn White, “The Fif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ull-Fledged Technocratic Leadership with Partial Control by Jiang Zemin,” *Asian Survey*, Vol. 38, No. 3 (March 1998), p. 240.

<sup>24</sup> Hong Yung Lee,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Party Technocrats in Social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p. 156.

의 진입이 향후 중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전망하려고 하였다.

경력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정치엘리트를 연구하면서 파벌연구에도 실증적 방법이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치 지도자의 비서 그룹을 다룬 연구,<sup>25</sup> 청화(淸華)대학 출신들로 이루어진 정치엘리트 그룹인 청화방 연구,<sup>26</sup> 정치지도자의 가족관계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태자당(太子黨)에 관한 연구,<sup>27</sup>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정치엘리트로 성장한 그룹을 다룬 유학파(海歸派) 연구,<sup>28</sup> 공청단 출신 정치엘리트의 실증연구<sup>29</sup> 등이 있다. 이렇듯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치 연구에 있어 정치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 데이터와 경력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점증하고 있다. 이는 그 이전에 비해 정치엘리트와 관련된 인적 데이터를 취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엘리트의 발탁, 충원, 임용, 승진, 은퇴 등 인사시스템이 보다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5. Michael Chase and James Mulvenon, *You've Got Dissent! Chinese Dissident Use of the Internet and Beijing's Counter-Strategies* (Santa Monica, CA: RAND, 2003), pp. 140~151.

26. Cheng Li, "University Networks and the Rise of Qinghua Graduates in China's Leadership," pp. 1~30.

27. Cheng Li, *China's Leaders: The New Generation*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1), pp. 127~175.

28. Cheng Li,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Educated Returnees in the Chinese Leadership," *China Leadership Monitor*, No. 16 (Fall 2005).

29. 寇健文, "中共菁英政治的研究途徑與發展," *中國大陸研究*, Vol. 47, No. 3, pp. 1~28; 寇健文, 『中共菁英政治的演變：制度化與權力轉移, 1978-2004』(二版), (台北：五南, 2005).

## 다. 기존 중국 정치엘리트 연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중국은 이른바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 사회’이고 이런 사회문화적 특징이 바로 중국의 파벌정치를 낳게 하는 토양이 된다.<sup>30</sup>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정치에서 파벌이나 정치적 집단은 중국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파벌이나 정치적 집단 내부를 구성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파벌과 파벌,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보다 심층적으로 중국 정치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정치엘리트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중국 정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의 맥락과 정치적 영향의 방향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인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은 화이트의 구조주의적 관계형성이론과 에머베이어의 ‘관계의 사회학’에 기반하여 형성된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론은 일단 개인이 자기 통일적 자아를 가지고 있고 단일한 정체성과 선호에 따라 행동한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는 달리 개인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선호가 형성되고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가정한다.<sup>31</sup> 또한 개인은 자신의 인식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성 집단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행위자로 파악한다. 즉, 파벌이나 집단의 경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의 변화가

30-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서울: 한울, 1997), pp. 263~264.

31- 송호근 외,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결망』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6), p. 6.

가능하며 나아가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정체성이 변하면서 집단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사회를 이른바 ‘관계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중국사회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는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들이 중첩적이고 교차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위패턴은 이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동적으로 재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이러한 관계론적 관점에 기초해 구조와 행위자 간의 관계를 정태적이고 박제화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기존 중국 정치의 파벌이나 정치적 집단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파벌의 구성원인 정치엘리트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치를 특정 파벌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만 인식하였을 뿐, 그 구조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 변화하고 또 그 변화는 중국 정치엘리트에게 어떤 정치적 성향과 태도의 변화, 더 나아가 자기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었다. 사실 파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파벌 내·외적으로 관계 맺음이 다양하고 복잡한 까닭에 파벌 구성원의 포괄범위나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존의 파벌 연구를 통해서는 변화하는 파벌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파벌의 경계를 시의 적절하게 포착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변화의 원인을 추적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실증적으로 중국의 정치엘리트를 분석하는 것이 위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증적 분석은 대체적으로 변수와 변수 관계를 다룬다. 정치엘리트의 연령, 세대, 교육정도, 민족, 출신지, 출신대학 등의 속성(Attributes)을 변수로 치환하여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집단을 임의적으로 획정하고 이 집



단에서의 정치적 성향과 태도를 추출해 내려고 한다. 가장 단적인 예로 “혁명간부는 보수적이고 분배와 평등을 강조한 반면 기술관료는 개혁적이고 생산과 효율성을 강조한다”<sup>32</sup>는 명제가 있다. 이 명제에서 보면 혁명간부나 기술관료의 경력 속성(변수)이 ‘보수’와 ‘개혁’, ‘분배’와 ‘효율’이라는 정치적 태도(변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속성이 정치적 태도나 입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실증적 분석은 변수와 변수간의 상관성을 보여 줄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상관성이 어떤 인과적 매커니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독립변수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가 변수 간 특성을 변화시켜 또 다른 변수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변수가 종속변수에 역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분석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중국의 정치엘리트 관련 연구 성과에 기대어,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중국의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중국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분석방법론

### 가.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분석의 7가지 가설

본 연구에서는 493명의 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각 엘리트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조사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출하였다. 공식적, 비공식적

<sup>32</sup> Hong Yung Lee,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Party Technocrats in Socialist China*, pp. 15~24.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배경 외에 공식적 업무관계 속에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표들이 필수적이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업무연관성이다. 각 권력엘리트가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권력엘리트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같은 부처에서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부처의 상하관계와 동료관계였다면 연결이 긴밀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부처에 속하지 않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와 협력관계에 있었다면 이들 역시 공식적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493명의 업무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권력엘리트의 경력데이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를 모두 조사하여 연결 관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첫째, 각 권력엘리트들이 활동을 시작했던 부처나 조직으로부터 시작하여 근 20~30년간 쌓아온 경력들에 대한 DB화가 필요하고, 둘째, 각 권력엘리트들의 경력이 시기별로 세밀하게 구분되어 특정시점에서 어떤 권력엘리트가 다른 권력엘리트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며, 셋째, 특정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타 부처나 타 지방에서 근무한 권력엘리트와의 업무상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구축되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데이터를 구축하여 493명의 업무상 연결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의 구축, 그리고 데이터의 처리과정까지를 포괄하는 사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미 조사된 중국 493명 권력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

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표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분석이 493명의 활동과정에서 맺은 관계의 모든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과 소속 집단을 통해 각 권력엘리트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적 작업임에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 가지의 사회경제적 배경 조사항목 중에서 다음의 <표 II-1>과 같이 네트워크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다음의 7가지를 추출하였다.

● 표 II-1 중국 493명 권력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 조사에 따른 분석 지표

	연령대	호적지	전공	공청단	주요 근무지역	지식청년 여부	유학지역
賈廷安	"60대 초반"	"하남성"	"자연과학"	""	"교차"	""	""
柯尊平	"50대 후반"	"섬서성"	"자연과학"	""	"내륙"	"지식청년"	""
葛慧君	"50대 초반"	"질강성"	"사회과학"	""	"연해"	""	""
董建清	"60대 초반"	"상해시"	"사회과학"	""	"교차"	"지식청년"	"북미"
董大明	"60대 초반"	"산둥성"	"사회과학"	"공청단"	"교차"	""	""
董力	"60대 초반"	"흑룡강성"	""	""	""	""	""
江小涓	"50대 후반"	"섬서성"	"사회과학"	""	"교차"	""	""
强衛	"60대 초반"	""	"자연과학"	"공청단"	"교차"	""	""
董偉新	"60대 후반"	"흑룡강성"	""	""	"중앙"	"지식청년"	""
董異康	"60대 초반"	"산둥성"	"자연과학"	""	"교차"	""	""

각 지표들은 일곱 개의 가설에 기반을 두고 추출하였다. 첫째, 연령대는 비슷한 연령에 속한 권력엘리트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거나 업무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권력엘리트 층원은 거대한 피라미드 속에서 비슷한 연령대 경쟁자들끼리 치열한 경쟁과정을 통해 상층부로 올

라간다. 하층에서 활동할 시기에는 관련 부처 내의 주변 몇몇의 동년배들만 관심을 갖지만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부처 다른 지방의 비슷한 연령대 권력엘리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들에 대한 인식 또한 점점 깊어지게 된다. 비슷한 연령대이기에 서로가 공식적 업무관계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찾아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 또한 크다.

둘째, 호적지는 지연(地緣)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같은 고향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문화와 생활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권력엘리트 간 친밀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같은 지역에서 출생하거나 같은 지역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각 권력엘리트 간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데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점만으로도 서로 다른 권력엘리트 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리청(Cheng Li)의 관찰에 따르면,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기까지 시진핑의 호적지인 섬서(陝西)성 출신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sup>33</sup> 이렇듯 기존의 파벌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을 연고로 하여 활동한 바 있는 권력엘리트를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상해방(上海幫)’이나 ‘섬서방(陝西幫)’이 좋은 예이다.

셋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전공과 관련된 특성이 권력엘리트 간 연결 개연성을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자연과학을 전공한 권력엘리트들이 등장하면서 테크노크라트라는 명칭으로 정의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학과 법학 또는 경영학과 같은 학문을 전공한 권력엘리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

---

<sup>33</sup> Cheng Li, “Xi Jinping’s Inner Circl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3 (November 2012), pp. 4~5.

고 있다. 전공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하는 것은 권력엘리트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의 전문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 지표이다. 따라서 특정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는 비슷한 전공자들 간 교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공은 권력엘리트 간 관계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넷째, 중앙이나 지방 공청단 조직의 리더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지는 권력엘리트 간 공식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후진타오(胡錦濤)의 정치적 성장 배경에는 이른바 ‘공청단파(團派)’의 지원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공청단파는 현재 ‘태자당’, ‘상해방’과 함께 중국 권력엘리트 내부의 주요 파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세력화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나 중국 정치 전문가들 간 이견이 있을지 모르나, 특정 권력엘리트가 청년시절 공청단에 소속되어 주도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력을 가진 권력엘리트들 간 소속감 내지는 정서적 동질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청단 소속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권력엘리트 간 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권력엘리트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엘리트는 많은 적든 지방 근무경력이 있다. 어떤 권력엘리트는 지방에서 상당기간 활동하면서 실력을 키운 후 중앙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권력엘리트는 중앙당이나 국가기관에서 주로 활동하다 일시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근무했느냐 하는 것은 권력엘리트 간 관계를 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근무지역과 관련하여 연해, 내륙, 교차(중앙과 지방, 내륙과 연해의 교차 근무)로 나누어 상호간의 연결가능성을 분석

I
II
III
IV

하고 있다.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근무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에 입각하여 실제적으로 연결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여섯째, 문혁시기에 지식청년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권력엘리트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분류하였다. 지식청년을 경험한 권력엘리트는 세대적 동질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만일 같은 지역으로 파견되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물론 지식청년 경험이 있느냐의 여부는 그 권력엘리트의 정책적 성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권력엘리트 간 실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는 되지 못한다. 보다 사실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에서 지식청년으로 있었던지를 조사한 후, 같은 지역 같은 시기별로 관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데이터를 구성한 것이 아니기에, 지식청년 경험 여부만으로 놓고 권력엘리트 간 정서적, 세대적 친밀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일곱째, 유학지가 같은 권력엘리트 간에 일정한 연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유학경험이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유학지를 파악한 후 이를 관계성 파악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는 유학경험 여부만으로는 각 권력엘리트 간 연결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학과 관련한 자료를 통해 관계성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것은 어떤 국가에서 유학을 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같은 지역에서 유학을 경험한 권력엘리트 사이에서는 비슷한 문화를 경험했을 것이며, 나아가 비슷한 학문적 풍토 하에서 서로의 인식과 정서를 공유하는 요소가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유학지는 관계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일곱 개의 지표 중에서, 오직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권력엘리트 간 관계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같은 연령대인 것만으로 권력엘리트 간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며, 호적지가 같다고 반드시 알고 지낸다고 할 수도 없다. 더욱이 유학한 권력엘리트가 매우 적기 때문에 마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같은 유학지 지표라 하더라도, 서로가 실제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물론 어떤 권력엘리트 사이에서는 서로가 실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493명 전체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493명 각각의 권력엘리트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492명과 맺고 있는 관계여부 전체를 조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나의 지표만으로 관계의 일반성을 파악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여기에서 활용한 자료가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곱 개의 지표를 선정한 후 서로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493명 권력엘리트 간 관계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권력엘리트 간 관계가 있을 법한 일곱 개 각각 속성을 종합하여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한 사람의 권력엘리트가 다른 권력엘리트에 대해 최대 7개의 속성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물론 최소는 권력엘리트 간에 아무런 공통된 속성이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렇듯 각 권력엘리트 간 적어도 3개 이상의 공통점이 있는 인물들 간에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네트워크의 중심인물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관계가 있는 권력엘리트 간에도 2개 정도만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연결성이 높은 엘리트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

I
II
III
IV

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93명 상호간의 관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면 두 권력엘리트 간 관계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인터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연구자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493명 권력엘리트의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특정 연결정도 이상을 하한선으로 잡아 네트워크 중심인물의 범위를 획정하게 된 것이다. 향후 보다 정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나.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분석 대상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한 특정 국가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정치행위자 간 맺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트워크의 특성과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정치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어떤 권력엘리트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인적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파악하거나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은 권력엘리트 간 관계를 통해 권력의 집중성과 권력엘리트 간 영향력의 정도, 권력엘리트 간 상관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여부, 그리고 각 정치행위자들은 구성된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sup>34</sup> 또한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은 각 권력엘리트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에 대한 단순빈도 뿐만 아니라 각 속성들 간의 상호작용

---

<sup>34</sup> 서상민, “상하이지역 경제엘리트의 사회연결망분석,” 『한국동북아논총』, Vol. 71, No. 1 (한국동북아학회, 2014), pp. 89~112.



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의 특성을 거리(Distance)를 통하여 네트워크의 수준 혹은 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한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각 권력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권력엘리트 간 권력관계와 영향력의 중심성(Centrality) 및 상관성, 그리고 역할을 파악할 수도 있다.<sup>35</sup> 다시 말해서 어떤 특성과 속성을 지닌 권력엘리트가 누구와 인적으로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구성원 간의 ‘유유상종(類類相從)’을 규명해 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안에서 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는 비슷한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비슷한 목표를 가질 확률 또한 많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가까이 있으면 비슷해진다는 ‘근묵자흑(近墨者黑)’으로 비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 중 하나는 “경험적 권력의 지표로서 많은 사람과 연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가 그렇지 못한 행위자보다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6</sup> 즉, 많은 행위자와 연결(Link)되어 있는 권력엘리트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경로’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링크가 적은 권력엘리트에 비해 비교적 덜 의존적이며,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sup>37</sup> 따라서 일반적 의미에서의 영향력의 정도와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특정 제도 하에서 ‘실체적’으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권력엘리트가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의 영향력 크기는 크지 않을

35- Stanley Wasserman and Katherine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 pp. 169~219.

36- *Ibid.*, pp. 172~174.

37- 서상민, “상하이지역 경제엘리트의 사회연결망분석,” pp. 91~93.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시진핑 지도부의 당·정·군 권력엘리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정치를 이끌었던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인적정보에 기초하여 주요 권력엘리트 간 전체적 인적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를 통해 당-국가체제하에서 중국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영향력 변화와 파벌,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변화를 복합적으로 추적하고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파벌연구와 정치엘리트 특성연구에서 분석할 수 없었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요 권력엘리트들은 자신의 정책과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지자 간 강한 ‘결속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치적 위기 상황에 당면한 지도자일수록 자신이 가진 정치적 자원과 인력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결속력을 증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방법론인 ‘동태적 네트워크 분석’은 중국 권력엘리트들의 정치적 동인이나 행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중국의 당-국가체제 하에서의 권력엘리트가 불확실한 대내외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틀이다.

당-국가체제 하의 중국의 권력엘리트는 ‘종적-횡적 관계(條塊關係)’ 하에서 당과 정부조직 그리고 군 조직이 혼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는 부문별로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또한 부문 간 중복멤버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역별 분석과 특성별 분석을 종합하지 않으면 중국권력구조의 ‘깊은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다. 본 연구는 당·정·군 권력엘리트가 장악하고 있는 약 600개의 직책 중 493명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는데, 이

493명의 권력엘리트는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과 후보위원 376명을 비롯해 중앙정부 부처의 부장, 부부장, 각 성의 성장과 당서기 218명,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과 위원 10명을 모두 합한 총 604인에서, 중복 인원을 제외한 것이다. 493명의 주요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는 총 11명으로 전체 493명 중 2.2%였고, 50대는 전체 절반이 넘는 56.4%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40.4%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연령이 권력엘리트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으며, 총 91.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을 10년 단위의 세대로 구분하지 않고 5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분류한 이유는 지도부 교체가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령을 5년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표 II-2 중국 권력엘리트의 연령별 분포

분류	인원	비율(5년 단위)	비율(10년 단위)
40대 초반	1	0.2%	2.2%
40대 후반	10	2.0%	
50대 초반	80	16.2%	56.4%
50대 후반	198	40.2%	
60대 초반	162	32.9%	40.4%
60대 후반	37	7.5%	
결측	5	1.0%	1.0%
합계	493	100.0%	100.0%

I

II

III

IV

현재 중국에서 권력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493명의 호적지를 기초로 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지역 간 권력엘리트 배출 격차가 비교적 크며, 호적 인구수와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인다. 분석 결과 산둥(山東)성과 강소(江蘇)성, 그리고 하북(河北)성 등 상위 3개 지역의 호적을 가진 엘리트의 수가 전체 3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적 인구 분포와 권력엘리트 간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2013년 현재 호적인구수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하남(河南)성이 1억 500여만 명, 산둥 9천 500여만 명, 사천(四川)성이 9천만 명 순으로 나타나는데, 하남성의 호적을 가진 권력엘리트는 분석대상 전체 493명 중 26명에 지나지 않는 5.3% 정도였다. 더욱이 사천성은 단 6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체로 호적인구 수가 많으면 권력엘리트의 수 또한 많은 편인데, 유독 사천과 광둥(廣東, 호적인구 수 순위 4위) 출신의 권력엘리트는 적은 편에 속했다. 나머지 지표와 관련한 통계는 작년 통일연구원 연구결과에 자세히 나와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sup>38</sup>

---

38. 전병곤 외,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39~47.

표 II-3 호적지별 중국 권력엘리트의 분포

지역	인원	비율	지역	인원	비율
산둥성	66	13.4%	강서성	9	1.8%
강소성	47	9.5%	내몽고자치구	8	1.6%
하북성	44	8.9%	천진시	7	1.4%
요녕성	35	7.1%	중경시	7	1.4%
절강성	33	6.7%	감숙성	6	1.2%
하남성	26	5.3%	사천성	6	1.2%
산서성	23	4.7%	귀주성	6	1.2%
호남성	21	4.3%	운남성	6	1.2%
안휘성	19	3.9%	광서장족자치구	6	1.2%
섬서성	15	3.0%	청해성	4	0.8%
호북성	13	2.6%	광둥성	4	0.8%
북경시	13	2.6%	신강위구르자치구	4	0.8%
북건성	10	2.0%	해남성	2	0.4%
길림성	10	2.0%	영하회족자치구	2	0.4%
흑룡강성	10	2.0%	서장자치구	2	0.4%
상해시	9	1.8%	결측	20	4.1%

### 3.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분석

#### 가.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와 그 특징

493명의 중국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속성지표를 가지고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유추하였다. 먼저 호적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자신의 호적지에 따른 정서적 동질감이 인적 연결의 하나의 중요 요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전공분야를 네트워크 구성의 변수로 삼았는데, 이는 같은 분야의

I
II
III
IV

전문지식을 가지게 되면 연결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식청년 경험 유무를 또 하나의 변수로 삼았다. 문혁시기 지식청년 경험은 같은 세대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인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학지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변수로 처리하였는데 같은 지역에서 유학했다면 서로 알고 지낼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모른다하더라도 문화적 경험이 주는 친밀도가 권력엘리트 간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청단 가입유무, 근무지역 변수를 추가하여 493명 권력엘리트의 인적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 (1) 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밀도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네트워크의 구조가 느슨하게 짜여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척도로서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를 측정한다.<sup>39</sup> 네트워크의 밀도는 2가지의 성질에 따라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데,<sup>40</sup> 그 첫 번째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성(Inclusiveness)’ 정도이다. 포괄성은 각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의 총합이다. 분석대상으로 삼는 모집단에 비록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행위자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총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네트워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 노드

39. 밀도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의 수를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연결 가능한 관계의 모든 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방향성이 없고, 대칭적인 경우의 밀도는 네트워크 안의 연결 수/이상적인 전체 네트워크 내의 연결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부록을 참조 바란다.

40. John Scott,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London: SAGE Publications, 2000), p. 114.

(Node)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성질은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링크의 집합 정도이다.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네트워크의 밀도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각 행위자 간 연결되어 있는 링크 수의 총합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행위자의 1/2이다. 즉, 연결은 2명을 짝으로 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링크 수는 자연스럽게 연결된 행위자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그 링크 수가 많을 수 있고, 또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링크의 빈도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몇 개의 링크가 걸려있느냐가 네트워크의 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sup>41</sup>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에서 권력엘리트 간 연결된 총 링크 수는 121,127개였으며, 밀도는 0.999로 산출되었다. 모든 권력엘리트가 예외 없이 연결되었을 때의 밀도가 1.0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권력엘리트의 전체 네트워크 밀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권력엘리트들이 7개의 속성 중 적어도 한 개 이상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해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493명의 권력엘리트들 평균 연결도는 약 245.7인데 이는 전체 권력엘리트 중 어떤 한 명을 잡아 그 네트워크를 조사할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권력엘리트의 절반에 가까운 약 245명과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sup>41</sup> 서상민, “상하이지역 경제엘리트의 사회연결망분석,” p. 95.

● 표 II-4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밀도

	링크 수	연결밀도	1인당 평균 링크 수
종합	121,127	0.999	245.694
연령	5,932	0.697	45.282
호적지	8,021	0.942	61.229
전공	5,743	0.674	43.84
공청단	4,018	0.472	30.672
주요근무지역	4,807	0.565	36.695
지식청년 경험	4,234	0.497	32.321
유학지역	5,355	0.629	40.878

<표 II-4>는 일곱 개 지표들을 하나씩 네트워크로 구성했을 때의 밀도와 평균 연결수를 나타낸 것이다. 종합된 연결밀도가 1.0에 가까운 것은 한 권력엘리트가 공통된 속성을 가진 다른 권력엘리트와의 관계가 중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엘리트이든 다른 권력엘리트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지표별 밀도와 평균링크 수를 보면, 먼저 연결밀도가 가장 높은 지표의 네트워크는 호적지 관계 네트워크이다. 호적지가 없는 권력엘리트는 없기 때문에, 호적지 지표는 전체 권력엘리트를 포함하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 즉, 네트워크의 특성 상 31개의 출신지로 나누어져 있는 호적지 네트워크에서 한 명의 권력엘리트는 같은 호적지를 가진 다른 권력엘리트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촘촘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권력엘리트를 많이 배출한 지역일수록 호적지 네트워크 밀도는 더욱 높게 나타난다. 산둥, 강소, 하북 등 상위 3개 지역 출신 권력엘리트들의 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결밀



도가 높은 네트워크는 연령 및 전공 관계 네트워크인데, 각각 0.697과 0.674 정도의 밀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밀도를 보인 네트워크는 공청단 활동여부와 관련된 지표로서, 0.472로 전체 네트워크의 밀도의 절반에 못 미치는 밀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그림 II-1>은 각 엘리트들이 일곱 개의 공통된 속성에 따라서 어떻게든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을 총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험을 같이하고, 같은 전공의 같은 지역에서 유학할 지라도 반드시 알고 있거나 인적 연결이 강하다고 말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변수를 공유하고 하고 속성이 중첩되어 있는 엘리트만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실제와 네트워크 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에서의 중첩 횟수가 크면 클수록 현실세계에서 인적 연결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일곱 개 속성 지표 중 3개 이상의 중첩을 가진, 즉, 연결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권력엘리트 총 115명을 추출하였다. 이들 권력엘리트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다음의 <그림 II-2>이나 <그림 II-3>과 같은 네트워크가 나타나게 된다.

---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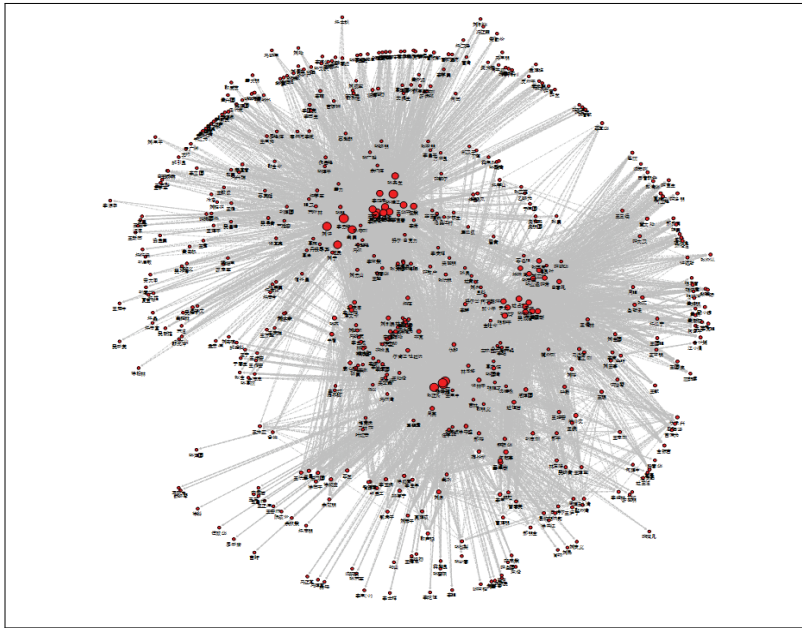
I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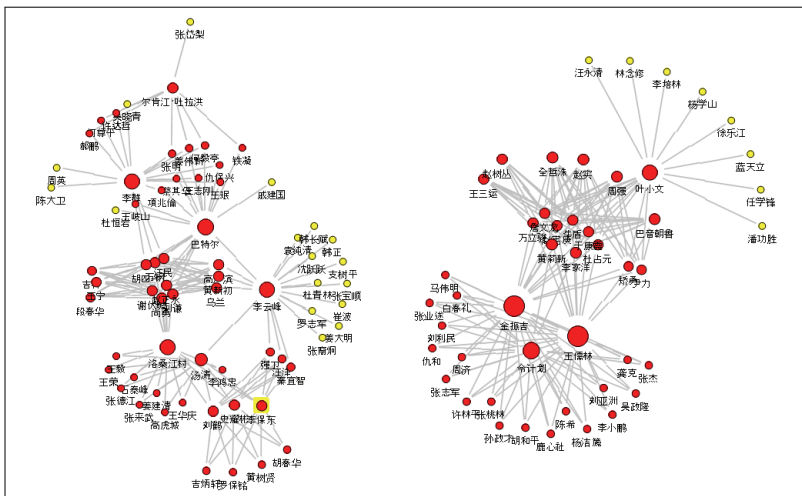
IV

---

● 그림 II-1 중국 당·정·군 493명 권력엘리트의 전체 네트워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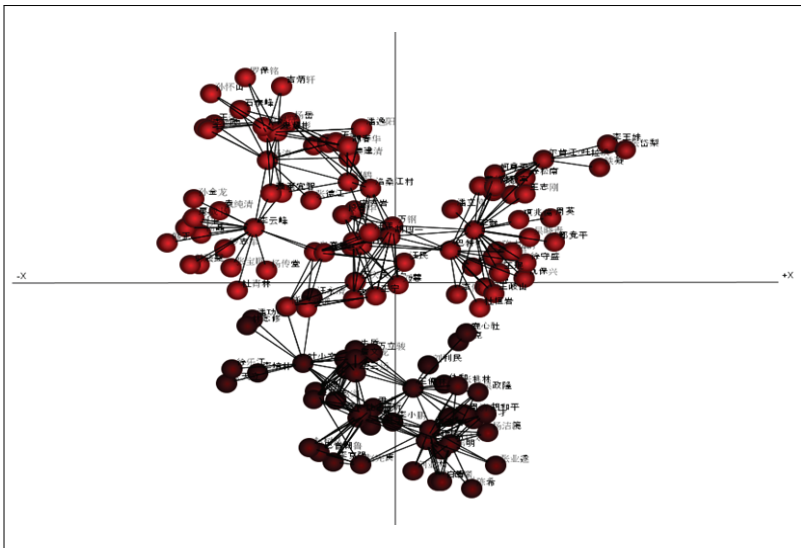


● 그림 II-2 연결정도가 강한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그림 II-2>는 115명의 권력엘리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7개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했을 경우 크게 두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그룹이 왜 분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일차적으로 그림에서는 권력엘리트들 간 관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각 권력엘리트 간의 거리, 직접적인 연결 관계인지 아니면 단계를 거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네트워크에서 관계의 친밀도는 모두 거리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권력엘리트와 관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그림 II-3>이다.

● 그림 II-3 연결정도가 강한 115인 권력엘리트의 입체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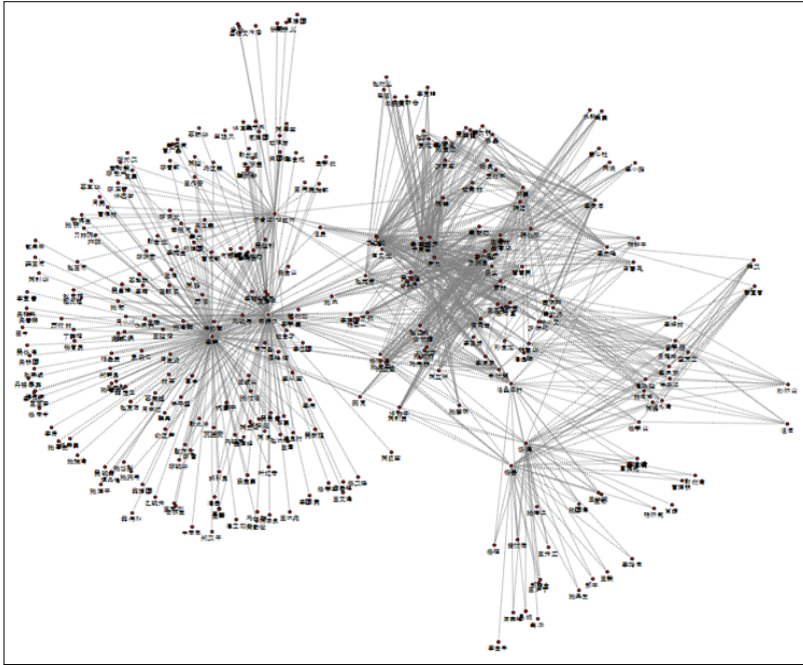


I
II
III
IV

네트워크 연결정도가 많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서 7개의 지표를 모두 포함한 네트워크 그래프를 구현했을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네트워크는 크게 2개의 네트워크로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청년 경험 지표는 전체 네트워크를 분절화 하는 주요 원인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6가지 지표 중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없었다.

지식청년 경험 지표를 제외했을 경우 전체 네트워크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식청년 경험 여부가 전체 네트워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표들의 가감에 따라 중심적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권력엘리트들의 수가 달라질 수 있고,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 또한 약간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3개 이상의 공통된 속성을 가진 권력엘리트들이 지표의 가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들은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변화시킬만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지식청년 경험 지표는 전체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둘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 가지 이상 공통된 속성을 가진 네트워크를 결정하는 주요 권력엘리트들 중 지식청년 경험이 네트워크의 속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식청년 경험 여부가 네트워크 분절에 있어 ‘매개결정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청년 경험 지표를 제외하고 세 개 이상의 공통된 속성을 가진 권력엘리트들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그래프인 <그림 II-4>와, 7개 지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그림 II-3>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4 지식청년 경험 지표를 제외한 중국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2) 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응집구조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개념 중의 하나는 응집구조 분석<sup>42</sup>이다. 응집구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493명의 중국 권력엘리트 간 관계의 긴밀성 정도에 따라 이른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커뮤니티 혹은 그룹이 형성된다는 의미는 특정 그룹 내의 권력엘리트 간 밀도와 다른 그룹의 권력엘리

I  
II  
III  
IV

42. 응집구조 분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산출방법은 부록을 참조 바란다.

트 간 밀도의 차이에 따라 그룹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그룹의 획정은 기존 파별이론에서 ‘정치적 파별’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 보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각 권력엘리트들이 맺고 있는 관계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나누어진 그룹을 일종의 파별이라고 한다면,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은 파별 연구에서 있어서 파별의 구획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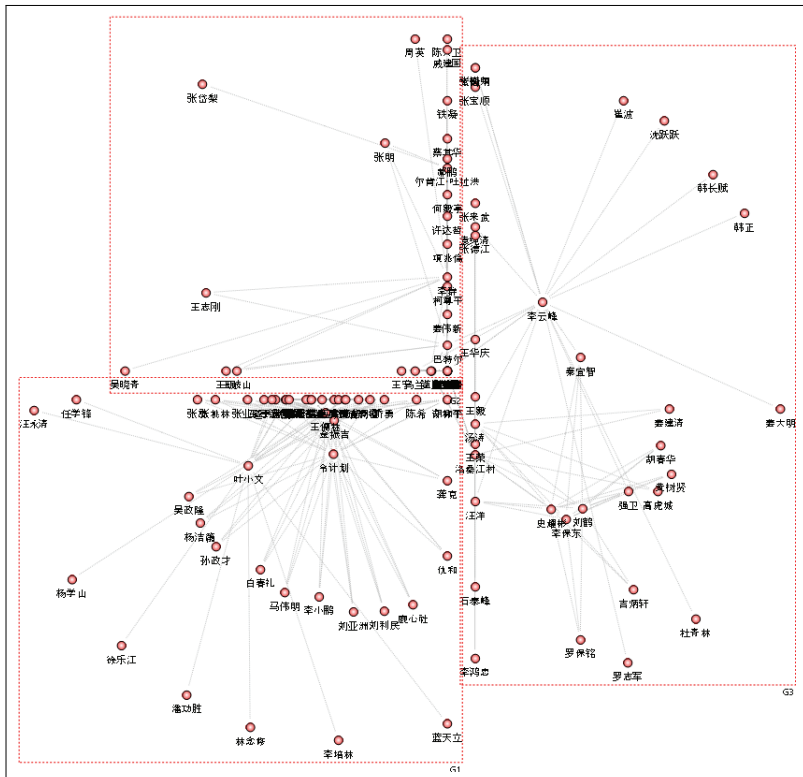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그룹은 여러 변수들 간 상호영향과 변수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분화되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따른 변수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파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책적 태도나 입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변수가 결정되는 것이며, 파별이라는 것 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슈와 주제에 따라 상당히 다른 그룹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위간부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태자당’이나, 특정 지역을 근거한 정치세력의 형성을 이르는 ‘상해방’ 그리고 특정 조직이나 단체의 소속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을 특정 하는 ‘공청단파’라고 하는 것들이 현안과 사안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493명의 권력엘리트를 정치세력이나 정책적 입장을 기준으로 그룹을 획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조작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재가공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권력엘리트의 정치세력의 분화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정치과정에서 맺고 있을 법한 공

식적 혹은 비공식적 관계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공식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공식적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를 종합하여, 이들 지표 간에 주고받는 영향에 따라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를 해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정치적 기준을 파벌형성의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각 권력엘리트들의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파벌을 이루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물론 그룹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그룹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파벌연구의 대안으로써, 그리고 중국 정치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하나의 경쟁적 시각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분석방법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설정한 7개의 속성을 변수들을 결합하여 도출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의 그룹, 즉, ‘커뮤니티’ 분석이 기존의 파벌연구 수준의 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변수뿐만 아니라 개별 권력엘리트 간 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관계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당·정·군 권력엘리트는 3개의 집단으로 분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5 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커뮤니티 분석



<그림 II-5>에서 분할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곧 중국 정치학에서 정치동학의 분석단위로 분석하고 있는 파벌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세 그룹으로 분할되어 있는 <그림 II-5>는 단지 각각의 권력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의 속성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그룹일 뿐이다. 이들이 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그룹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룹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파벌과 같



은 정치세력 커뮤니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수와 ‘관계데이터(Relational Data)’에 입각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살펴볼 네트워크의 중심성은 사용한 변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어떤 변수와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체 네트워크에서 분할되거나 경쟁하고 있는 ‘정책 커뮤니티’를 추출해 낼 수도 있고, ‘정치세력 커뮤니티’를 구별해 낼 수 있다는 방법론적 장점이 있지만 연구 대상의 성격과 연구 주제에 맞는 변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3)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네트워크 내에서 누가 인기가 많은가?’를 규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척도가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이다.<sup>43</sup>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크다고 본다. 이는 네트워크에서 각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정치적 인맥의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sup>44</sup> 만일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연결정도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측정이 되면, 그 권력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권력엘리트에게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의 영향력의 정도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공식적 권력기구 속에

43. Stanley Wasserman and Katherine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 pp. 173~174.

44. 보다 자세한 설명과 중심성 분석방법은 부록을 참조 바란다.

서 형성되는 권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다. 정치적 권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정치제도와 당 조직에서의 권력체계를 연구하는 방법론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493명 권력엘리트의 권력관계가 아니라 인적 관계(Personal Relation)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권력관계 내에서 중심성이 높은 인물과 다른 인물들이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연결정도 중심성’을 보인 권력엘리트는 리쥘(李群)이었다. 리쥘 역시 실제 권력관계에서는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권력엘리트의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대단히 중심적이었다. 먼저 그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산둥성 출신이며, 사회과학 전공이면서 미국유학을 한 인물이다. 여기에 공청단 산둥성 서기를 거쳐 공청단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역임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제시한 7가지 지표에 상당히 부합한 인물이다. 현재는 산둥성 청도(靑島)시 당서기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왕루린(王儒林)과 리윈펑(李雲峰)이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왕루린은 현재 중공 산서(山西)성 당서기로 있는 인물로서, 길림성 성장과 당서기를 거친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이다. 그가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이유는 공청단 경력이 있으며, 지식청년 경험이 있고 사회과학(경제학) 전공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리윈펑은 강소성 출신으로서, 북경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강소성 상무부성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네 번째로 중심성 지수가 높은 진전지(金振吉)는 조선족으로 공청단 경력과 지식청년 경험이 있으며, 사회과학(국제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현재 중공 길림성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표 II-5>는 네트워크의 중심인물 중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20인의 명단 및 연결정도 중심성을 나타낸 것이다. 각 권력엘리트 간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의 격차가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7가지 지표들이 상호간 영향을 미치면서 네트워크에서 고른 분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5 중국 권력엘리트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 상위 20인

이름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	이름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
리첸(李群)	0.1846	자오정용(趙正永)	0.0846
왕루린(王儒林)	0.1692	양위예(楊嶽)	0.0846
리윈펑(李雲峰)	0.1385	세푸잔(謝伏瞻)	0.0846
진진지(金振吉)	0.1308	완강(萬鋼)	0.0846
예샤오원(葉小文)	0.1231	황리신(黃莉新)	0.0769
바터얼(巴特爾)	0.1154	위강전(於康震)	0.0769
레이춘메이(雷春美)	0.1154	스야오빈(史耀彬)	0.0769
탕타오(湯濤)	0.1000	리바오둥(李保東)	0.0769
링지화(令計劃)	0.1000	뤄상장춘(洛桑江村)	0.0769
후스이(胡四一)	0.0923	두잔위엔(杜占元)	0.0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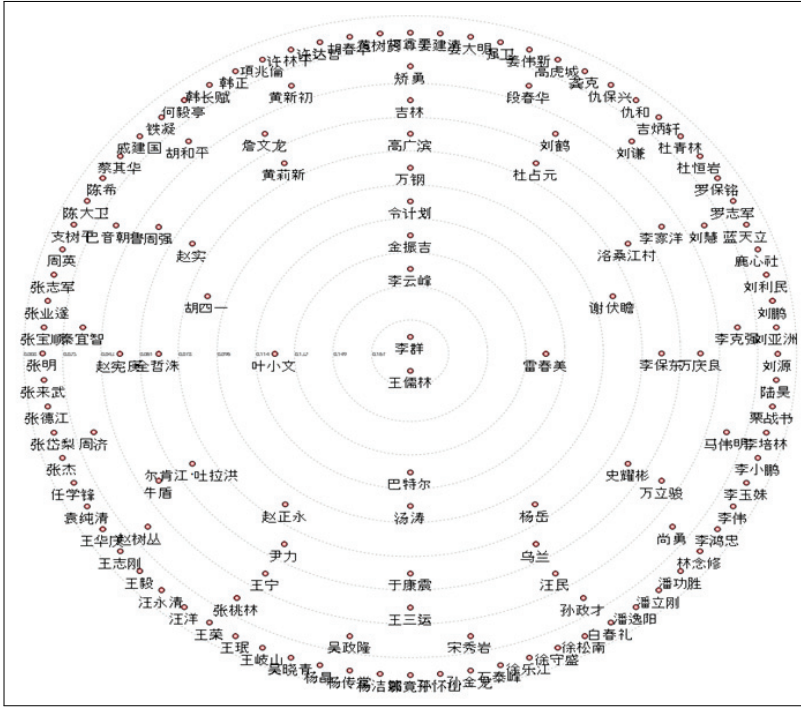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기법 중에는 네트워크 내 영향력을 측정하는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이 있다.<sup>45</sup> 전체 네트워크에서 권력엘리트 간 연결을 시도할 때 가장 빠른 경로 상에 위치하는 또 다른 권력엘리트의 매개 중심성 측정값이 높게 나타난다. 즉, 두

45. 매개 중심성 분석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방법은 부록을 참조 바란다.

권력엘리트 간의 최단경로(Shortest Path)에 위치한 권력엘리트가 매개 중심성이 높은 권력엘리트인 것이다. 만일 인맥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매개 중심성이 높은 권력엘리트를 찾아 인맥을 맺고 싶은 권력엘리트와의 연결을 시도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구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개 중심성이 높은 지점은 인맥의 확대를 목표로 한 전략적 지점일 수도 있지만, 정보전달 네트워크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 전달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전달 과정에서 다른 권력엘리트에 대한 상대적 통제력이 높은 권력엘리트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매개 중심성이 높은 권력엘리트가 네트워크 내에서 제외된다면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현재 중국의 당·정·군 권력엘리트 493명 중 ‘매개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게 측정된 인물은 리첸과 왕루린이다. 중심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개 중심성 또한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매개 중심성 지수를 가지고 전체 493명의 위치를 동심위를 통해 표현하면 <그림 II-6>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그림 II-6>에 따르면 리첸과 왕루린은 동심원의 정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절대 다수의 권력엘리트들은 매개 중심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외곽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6 매개 중심성 동심원 그래프



(4) 제18기 중앙위원회 네트워크에서 권력엘리트의 역할 분석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포함되어 있는 개인을 다섯 가지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먼저 ‘조정자(Cordinate)’는 이 동심원 그룹 내에 속해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대리인(Representative)’은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룹 내 노드에게 링크를 받아 다른 그룹의 노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문지기(Gatekeeper)’는 타 그룹으로부터 링크를 받아 그룹 내 노드에게 전달하는 외부정부의 내부 전달 역할을 의미하며, ‘순화

I
II
III
IV

중계자(Itinerant Broker)’는 타 그룹의 노드로부터 링크를 받아 링크를 준 그룹의 다른 노드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연락자(Liaison)’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링크하여 연결하는 역할 등으로 정의된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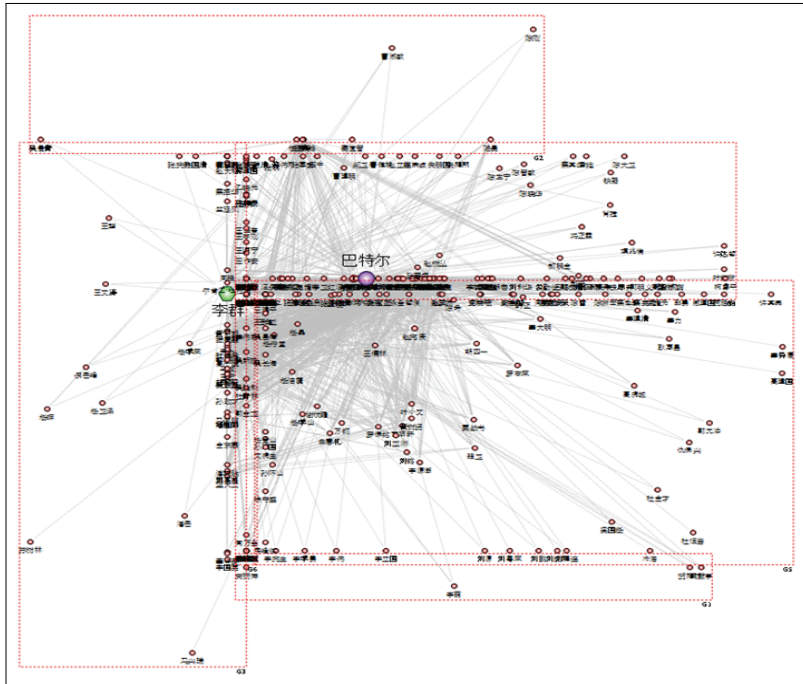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연결도가 강한 주요 권력엘리트 네트워크를 연령대별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 II-6>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를 요약하면, ‘조정자’ 역할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인물은 50대 후반의 바터얼(巴特爾)이었다. 리첸은 ‘문지기’ 역할과 ‘대리인’ 역할 지수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II-6 중국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상의 역할지수 상위 10인

이름	연령	조정자	문지기	대리인	순회중계자	연락자	합계
바터얼(巴特爾)	50대 후반	3660	7503	7503	5420	9586	33672
리첸(李群)	50대 초반	342	2717	2717	7324	12982	26082
뤄상장춘(洛桑江村)	50대 후반	1056	1056	1056	368	624	4160
자오셴강(趙憲庚)	60대 초반	306	468	468	272	378	1892
니우둔(牛盾)	50대 후반	182	448	448	452	540	2070
리자양(李家洋)	50대 후반	182	420	420	414	456	1892
잔원룽(詹文龍)	50대 후반	156	416	416	452	540	1980
완리진(萬立駿)	50대 후반	156	416	416	452	540	1980
송슈옌(宋秀岩)	50대 후반	240	336	336	182	238	1332
류후이(劉慧)	50대 후반	240	336	336	182	238	1332

<sup>46</sup> Stanley Wasserman and Katherine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 pp. 461~467.

●그림 II-7 연령대별 각 권력엘리트들의 역할 위치도



이와 같이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각 권력엘리트가 담당하는 역할을 다양화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중국 정치에 있어 주목해야 할 역할은 ‘조정자’, ‘대리인’, ‘문지기’ 등 3가지 역할이다. 본 연구는 중국 정치세력이나 정책그룹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대해 해석할 수 없지만, 방법론상에 있어 충분히 유용한 분석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파벌 내에서의 조정자의 역할은 누가하며, 파벌과 파벌 간에 있어 ‘대리인’이나 ‘문지기’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파벌 내 구성원 간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  
II  
III  
IV

다른 파벌과 협상할 때 누구를 대리인으로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은 중국 권력엘리트와 파벌 연구, 그리고 정책결정과정 연구와 관련된 이슈를 풀어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존의 연구가 안고 있는 앞에서 제기한 몇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 중국 권력엘리트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 나. 당·정·군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출신 지역별 분석

네트워크 전체에서 각 지역별 권력엘리트의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최다 권력엘리트 배출 상위 3개 지역 출신들의 네트워크 연계를 보면, 이들 지역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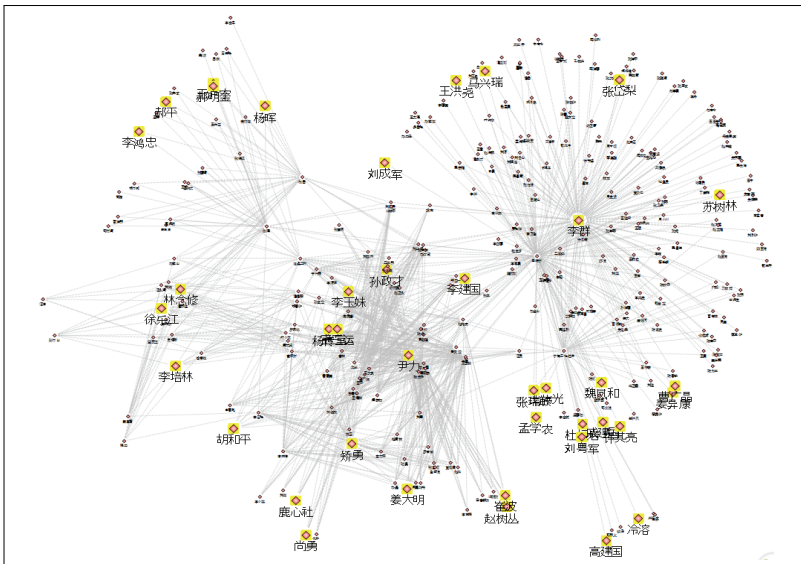
먼저 최다 권력엘리트의 배출 지역인 산둥 출신 권력엘리트들의 네트워크 분포를 보면 <그림 II-8>, 밀도가 높은 상반부 네트워크보다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반부 네트워크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상반부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산둥성 출신인 리첸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결경로를 보면 중심부의 리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산둥성 출신 권력엘리트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2~3단계를 거쳐야 리첸과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외곽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상반부 네트워크의 경우 출신지 지표가 네트워크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청단 인맥이나 전공분야와 같은 지표를 공유한 권력엘리트들이 일차적으로 리첸 주변에 포진되어 있고 이들을 매개하여 산둥성 지역 출신 다른 권력엘리트들과 연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연(地緣)은 네트워크에서 위치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하반부 네트워크에서는 산둥성 출



신 권력엘리트들 다수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분포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쑨정차이(孫政才, 중공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경시 당서기)를 비롯해 인리(尹力,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 자오용(矯勇, 중국 수리부 부부장) 등은 하반부 네트워크에서 중심인물에 속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권력엘리트들은 네트워크에서 외곽에 분포되어 있어 네트워크에서의 매개성과 중심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부와 하반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는 리젠궈(李建國, 중공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젠궈는 산둥성 권력엘리트로는 유일하게 상하 네트워크의 중간에서 네트워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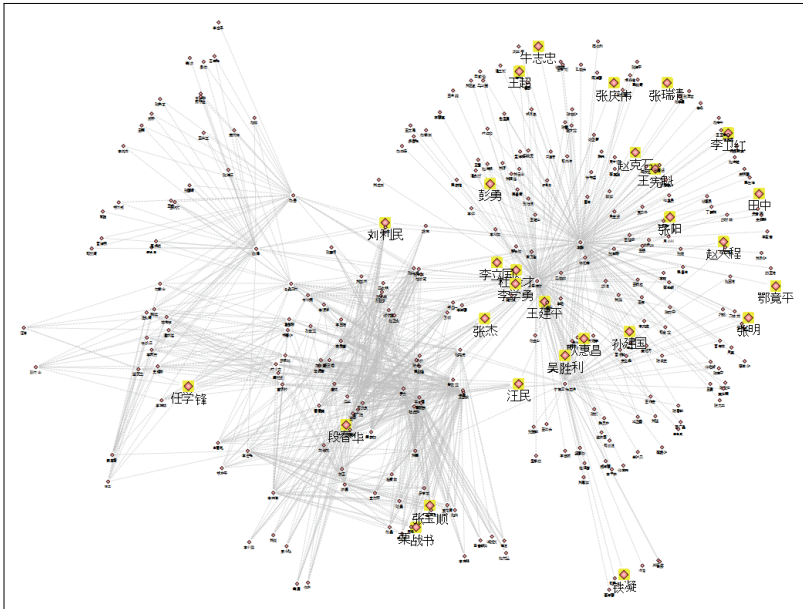
●그림 II-8 산둥성 출신 권력엘리트 분포



- I
- II
- III
- IV

둘째, 하북성 권력엘리트들의 네트워크 분포는 산동지역 출신 권력 엘리트의 분포와 확연히 구별된다. 대다수 하북성 권력엘리트들이 상반부 네트워크에 분포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상반부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부보다는 중간 단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곽에 위치한 권력엘리트와 중심부에 위치한 권력엘리트를 매개하는 인물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쑨젠궈(孫建國,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리궈(李立國,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중국 민정부 부장), 우성리(吳勝利,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왕젠핑(王建平,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사령원)과 같은 인물은 상반부 네트워크의 2선에서 외곽에 위치한 권력엘리트들과 중심부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반부 네트워크에서 하북성 출신들은 소수인데, 특이한 점은 경제학 박사 학력으로 현재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면서 천진시 비서장인 댜춘화(段春華,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천진시위원회 상무위원)가 하반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청단 경력이 그 위치를 점하게 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하북성 출신들은 상반부와 하반부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위치에 다수가 포진해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류리민(劉利民, 중국 교육부 부부장)과 왕민(汪民, 중국 국토자원부 부부장) 등은 상하반부 네트워크의 중간에서 양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9 하북성 출신 권력엘리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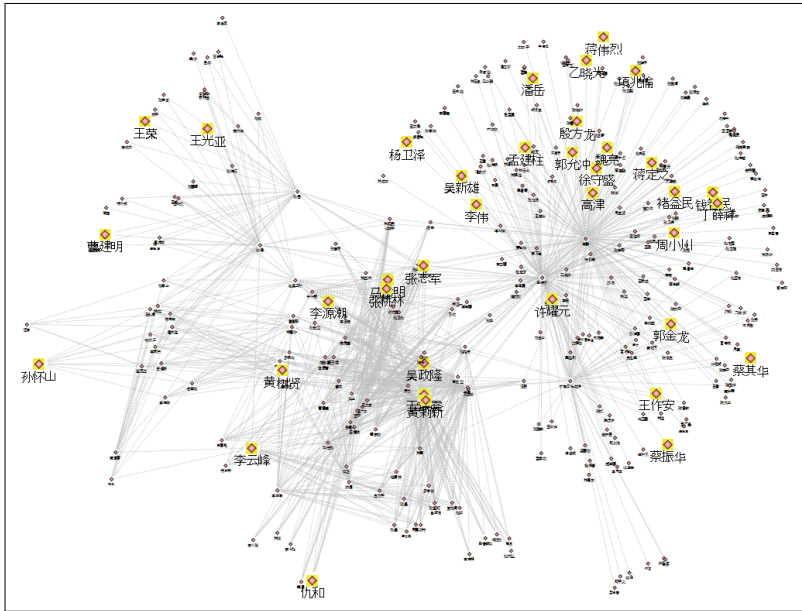
셋째, 강소성 출신 권력엘리트들의 네트워크 분포를 보면, 이들은 상하반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각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 2선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반부 네트워크에서는 대다수의 강소성 출신들이 2선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외곽의 권력엘리트와 중심부의 권력엘리트를 2~3단계로 연결하는 위치를 갖는다. 대표적으로 리웨이(李偉,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주임) 비롯해 우신슝(吳新雄,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명젠주(盟建柱, 중공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저우샤오훤(周小川,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인민은행장), 가오진(高津,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조리) 등이 있다. 보다 많은 수의

I
II
III
IV

하북성 출신 권력엘리트들이 상하반부 네트워크의 중간에 위치해 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이렇듯 가장 많은 권력엘리트를 배출한 지역에 속한 권력엘리트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정리하자면 산동성 출신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외곽에 위치하는 권력엘리트들이 많았던 반면, 하북성 출신들은 주로 상반부 네트워크에 분포되어 있어 비공청단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하북성 출신 중 공청단 경력을 가진 권력엘리트는 3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강소성 출신들은 전체 네트워크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중심과 주변 그리고 성격이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위치에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엘리트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산동성과 하북성 출신 지역 권력엘리트들 간에는 연결의 밀도가 크지 않은 반면 강소성 출신 권력엘리트들은 양 지역 출신 권력엘리트들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현실 중국 정치에서 강소성 출신들의 중재자적 역할과 정치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그림 II-10 강소성 출신 권력엘리트 분포



다. 당·정·군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세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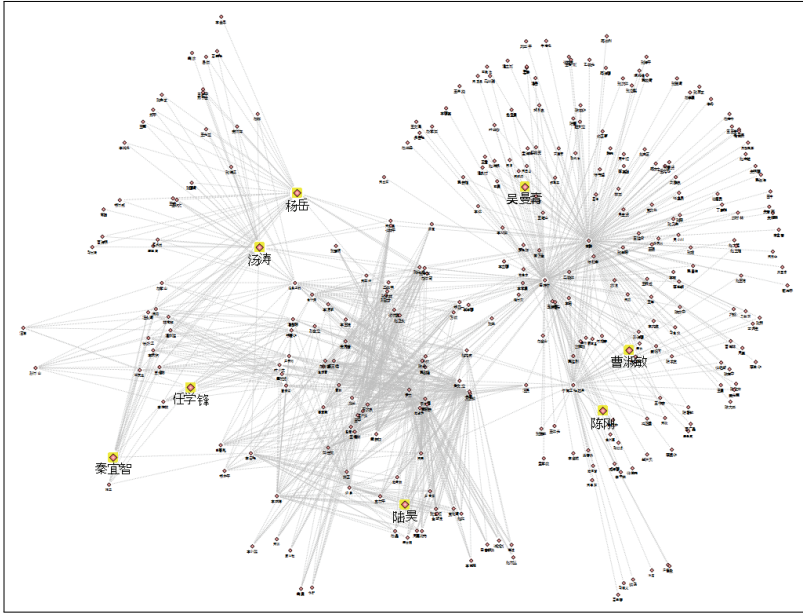
493명의 권력엘리트 중 50~60년대 출생 권력엘리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40대 후반의 신진 권력엘리트들은 모두 11명이다. 그 중에서 공청단 경력을 가진 권력엘리트는 4명으로 루하오(陸昊,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흑룡강성 당 부서기 겸 성장)를 비롯해 양위에(楊嶽,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복건성위원회 상무위원), 친이즈(秦宜智,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탕타오(湯濤,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등이다. 그리고 전공별로 본다면 사회과학 전공자와 자연과학 전공자가 5:6을 이루고 있다. 지역별로는

I
II
III
IV

호북출신과 하남출신 각 2명이었고, 산둥, 요녕, 상해, 안휘, 하북 출신이 각 1명이었다. 유학을 갔다 온 인물은 런쉐핑(任學鋒,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광둥성위원회 상무위원)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11명 중 주요 115명에 포함된 권력엘리트는 루하오, 양위에, 친이즈, 탕타오, 런쉐핑, 우만칭(吳曼靑,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중국 공정원 원사), 차오수민(曹淑敏,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전신연구원 원장), 천강(陳剛,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귀주성위원회 상무위원) 등 8명이었는데, 이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5:3으로 분할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호북성 출신인 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인 탕타오의 연결정도 중심성이 다른 40대 권력엘리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식적 경력이나 비공식적 배경요인이 다른 권력엘리트들과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각 지표들 간 상호영향으로 인해 중심이 크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루하오, 양위에, 친이즈, 탕타오, 런쉐핑 등은 공청단 경력자들이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그룹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반면, 우만칭, 차오수민, 천강 등은 그 그룹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를 가지고 40대 권력엘리트가 두 파벌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분명 40대 권력엘리트들은 분명히 다른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 상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청단 경력자 분포와 북미-유럽 유학경력자 분포를 상호 대조해서 관찰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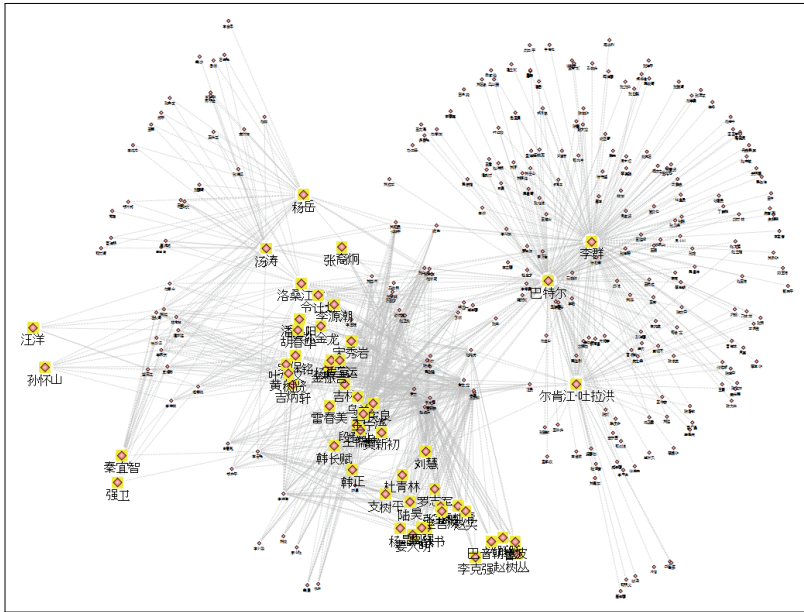
● 그림 II-11 40대 권력엘리트 분포



<그림 II-12>은 공청단 출신 권력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공청단 경력을 가진 권력엘리트들은 대체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집중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네트워크에서 연결정도 중심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그림 II-11>의 40대 권력엘리트들의 분포와 같이 놓고 보면 5명의 40대 권력엘리트들은 공청단 출신자들이 많은 그룹과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3명은 비교적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그림 II-13>의 북미-유럽 지역 유학경력자들의 분포와 비교해 살펴보면 40대 권력엘리트들이 만들고 있는 네트워크의 기반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
II
III
IV

● 그림 II-12 공청단 출신 권력엘리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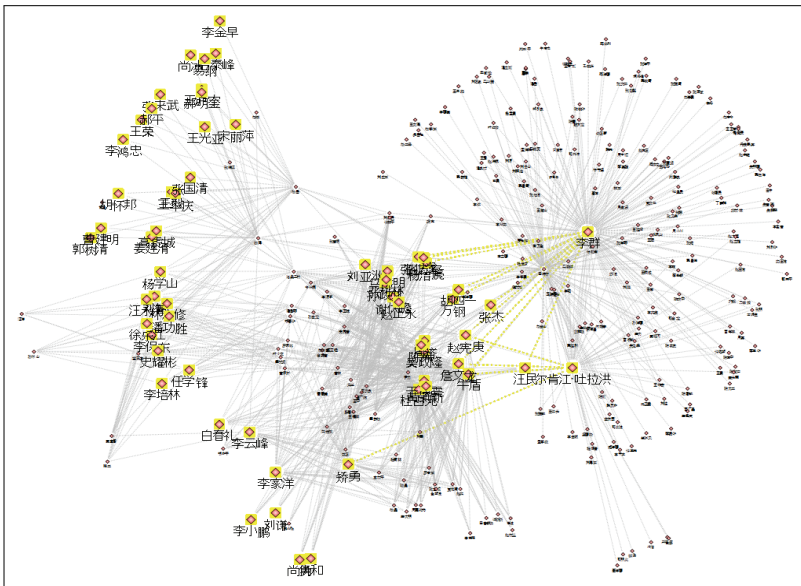


특히 40대 권력엘리트 중 런쉐핑은 비록 공청단 경력이 없으나 공청단 경력자들이 많은 그룹과 가까운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최다 권력엘리트 배출지역 중 한 곳인 하북성 출신으로 하북성 공청단 경력자들과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맥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서 유학해 북미-유럽 지역에서 유학한 권력엘리트와의 인맥 또한 있다. 그의 경력을 보면 주로 홍콩과 천진 지역의 기업체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 온 인물로 이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4명과는 전혀 다른 경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는 현재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써 2014년 8월부터 광둥성 광주시 당서기를 맡아 활동해 오고 있다. <그림 II-1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7개 지표 전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내에서 루하



오는 공청단 그룹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그룹의 한 가운데 있지만, 런쉐핑은 이들과는 거리를 좀 두면서 네트워크의 외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북미 지역과 유럽지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권력엘리트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그림 II-13 북미-유럽 유학경력자 권력엘리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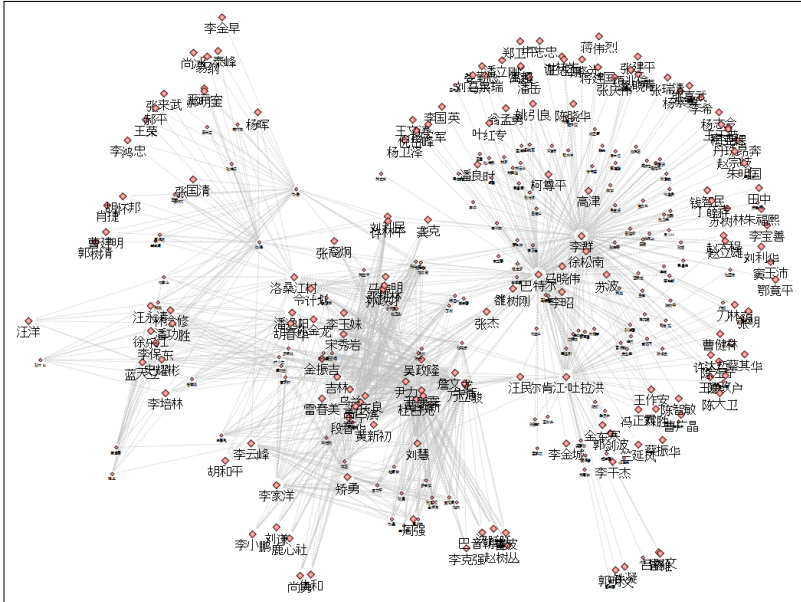


50~60대 권력엘리트들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치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네트워크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는 두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오른쪽 비공청단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50대의 위치는 중심부이면서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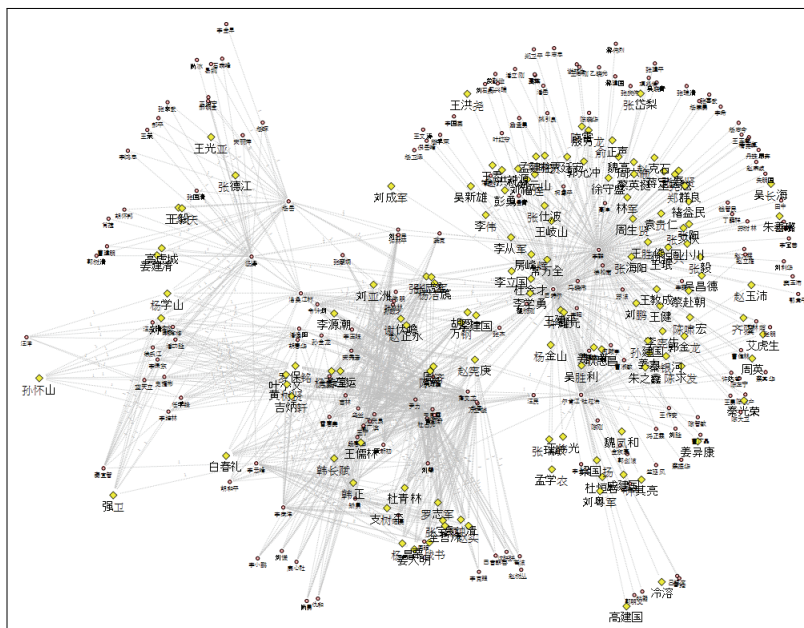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의 60대는 왕루린과 취안저주(全哲洙,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중앙통일전선부 부부장) 등 몇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 공청단 경력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왼쪽 네트워크에서 50대의 위치는 오른쪽보다는 외곽에 위치해 있는 권력엘리트가 상대적으로 많다. 역으로 60대는 비교적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60대 공청단 경력 소유자들이 갖는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역할을 예측하게 한다.

● 그림 II-14 50대 권력엘리트 분포



●그림 II-15 60대 권력엘리트 분포



- I
- II
- III
- IV



# Ⅲ. 중국 중앙정부 및 군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분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장에서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군부의 주요 권력엘리트들이 지난 10년(2005~2014년)간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진행한 교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 부처(국무원 산하 25개 부·위원회) 부장, 부부장급 인사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 위원을 맡고 있는 주요 권력엘리트들의 한국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권력엘리트들은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중교류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다음의 <표 III-1>은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한중 민간법률교류,<sup>47</sup> 지방정부 한중일간 다자교류<sup>48</sup> 등이 단순한 필드연구 방법을 이용한 연구라면, 사회적 자본 연구,<sup>49</sup> 중국의 판시(關係) 연구<sup>50</sup> 등은 사회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 47. 윤진기, “한중 민간법률교류의 현황과 역할,” 『중국법연구』, 제19집 (한중법학회, 2013), pp. 1~46.
  - 48. 류재현, “한중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유형론적 비교연구-부산, 상하이,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2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pp. 97~120.
  - 49. 김도희, “중국의 사회적 자본: 사회네트워크를 통한 고찰,” 『중국학연구』, 제48집 (중국학연구회, 2009), pp. 125~148; 한중완, “연출망에서 연결망으로,” 『사회와 철학』, 제8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04), pp. 97~121.
  - 50. 이재호, “중국에서 판시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집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pp. 125~148.

표 III-1 한중교류 관련 기존 연구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자	비고
사회 네트 워크	사회적 자본	중국내 사회 경제적 관계/교류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김도희(2009)	필드 연구
		한중일의 삼국의 연줄망과 사회네트워크로서 사회자본 특성 관계	한중완(2004)	필드 연구
	관계와 신뢰	편사와 행정신뢰와의 관계	이재호(2006)	통계 연구
상호 교류	사회교류	한중민간 법률 교류의 현황 분석	윤진기(2013)	필드 연구
	다자간 국제교류	다자간 교류협력체 구성, 운영 등을 유형론으로 비교분석	류재현(2012)	필드 연구

본 장에서 진행한 연구도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 위에 있다. 다만 위의 연구들과 다른 점이라면, 바로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교류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관계특성 파악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의 권력엘리트들이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진행한 교류활동은 사회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사회네트워크는 교류의 분야에 따라 각기 상이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상이한 네트워크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주로 인터넷에서 추출하였는데, 이는 한중 인사들 간 교류에 관한 정보가 잘 축적되어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인터넷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엔진인 네이버(www.naver.com)와 바이두(www.baidu.com)에서 중국 인사의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이들이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한 내용을 수집하였다. 나아가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중국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구조 자료를 추출하였다.



# 1.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기법

## 가. 데이터 코딩 방법 및 분석 대상

한중 인사들 간 교류에 관한 인터넷 정보는 주로 텍스트 중심의 웹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표적 텍스트 분석방법인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웹문서에 기재된 정보를 분석에 유용하도록 변환을 시도하였다. 내용분석방법이란 텍스트나 문장을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특정한 사안의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텍스트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탐색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통계 방법 및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범주 혹은 텍스트, 워드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51</sup> 한중교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문서를 분석하기 위한 내용분석방법은 아래의 <표 III-2>와 같이 몇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 표 III-2 웹정보 수집 및 분석 절차

단계	분석 절차
제1단계	분석할 대상이나 현상 선정
제2단계	관찰할 매체(잡지, 신문, 문서, 웹문서 등) 선정
제3단계	분류기준 설정
제4단계	샘플링 전략결정
제5단계	평가자 훈련
제6단계	자료 분석

<sup>51</sup> 김병석 외, “한·미간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구성하는 정보기술 선호도 비교 연구: IT 인공물과 내용 분석,” 『유라시아연구』, 제8권 1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1), pp. 33~49.

웹정보 수집 및 분석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국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네트워크로서, 다양한 정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중앙정부 부처(국무원 산하 25개 부·위원회) 부장 및 부부장급 인사 173명과 중앙 군사위원회의 부주석·위원 등이 지난 10년(2005~2014년)간 한국의 주요 인사와 진행한 교류 현황을 수집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교류 현황에 내재된 교류의 목적을 분석하였다. 정보 추출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바이두를 사용하여 특정 인물을 검색하였다. 예를 들어 검색어를 왕이(王毅)로 한 후, 관련 데이터를 분류·검색·추출하였다. 물론 추출한 데이터는 왕이가 지난 10년간 한국의 주요 인사와 진행한 교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로 국한하였다.

## 나. 관계데이터 및 인접행렬

### (1) 관계데이터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상호관계를 우선 수치화해야 하고, 이를 다시 인접행렬(Adjacency Matrix)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절에서는 우선 사회네트워크 데이터의 특징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조작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

사회네트워크 데이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관계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데이터는 실험, 설문 조사(Survey) 혹은 관찰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이 가능하다.

네트워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범위를 설정하는 것

이 곧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악한 분석 결과에서는 상호관계의 패턴이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III-3>은 한중인사 교류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웹상에서 교류 내용을 추출, 요약한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권력엘리트를 중심으로 한국의 주요 인사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교류하였는지를 조사하고 탐색하였다. 네트워크의 범위는 2014년 8월 기준 중국 중앙정부(국무원 산하 25개 부·위원회)의 부부장급 이상의 인물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 및 위원을 맡고 있는 인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이 최근 10년(2005~2014년)간 한국의 주요 인사와 진행한 교류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 표 III-3 관계데이터 추출 예시

외교부 자이진(翟隽) 부부장 1.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국장 (중국 외교부, 2008.9.10., 제10회 한중영 사협정)
---

(2) 인접행렬

한중교류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결과 노드의 집합을 네트워크[(감마:  $\Gamma$ )=(N,L)]로 표현해야 한다. 한중교류 네트워크의 노드와 연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한중교류 네트워크( $\Gamma$ : 감마(Gamma)) = f(N, L)
- N(노드: node) = { 1, 2, 3, ..., n}, 노드는 한중 인사의 집합
- L(Links) = 한중 인사 교류 연결의 집합,  $L \subseteq N \times N$

I
II
III
IV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관계데이터를 수리적 지표 값으로 변환하고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리적인 행렬(Matrix)로 전환해야 한다. 노드 사이의 관계가 있으면 행렬값은 '1'로, 관계가 없으면 '0'으로 표기하는데 이러한 행렬을 인접행렬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접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_{ij} = \begin{cases} 1, & \text{if } (i,j) \in L \\ 0, & \text{otherwise} \end{cases}$$

$ij$ 의 노드사이에 대한 연결이 있으면 값은 1이고, 연결이 없으면 0을 가진다. 즉, 한중 인사 사이에 연결이 있으면 '1'값이고, 연결이 없으면 '0'의 값을 가진다.

#### 다. 통계 자료 분석 및 특징

중국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중국의 인사는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중국 중앙정부(국무원 산하 25개 부·위원회)의 부부장급 이상의 인물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 및 위원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데이터 추출을 위한 도구로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바이두를 선정하였고, 양측 자료 간 비교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재고하였다.

<표 III-4>는 중국 중앙정부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처별 인원수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 산하에는 총 25개의 부·위원회가 있으며 총 인원은 173명, 부서 당 평균인원은 7명이었다. 이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데 반해, 국방부와 국가안전부는

1명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국방부와 국가안전부에 부부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부장급은 총 25명(부장 20명, 감사장 1명, 주임 3명, 행장 1명)이고, 부부장급은 총 1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2명의 부주석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4 중앙정부 25개 부처와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본 구조

조직	부처	인원	비율	비고
중앙 정부	감찰부	5	2.9	25개 부서  평균 7명
	공안부	10	5.7	
	공업정보화부	8	4.6	
	과학기술부	7	4.0	
	교육부	7	4.0	
	교통운수부	8	4.6	
	국가회계감사서	6	3.4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2	6.9	
	국가안전부	1	0.6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10	5.7	
	국방부	1	0.6	
	국토자원부	6	3.4	
	농업부	8	4.6	
	문화부	7	4.0	
	민정부	5	2.9	
	민족사무위원회	6	3.4	
	사법부	6	3.4	
	상무부	7	4.6	
	수리부	7	4.0	
	외교부	10	5.7	
	인력자원사회보장부	10	5.7	
	재정부	7	4.0	
	주택도시건설부	5	2.9	
	중국인민은행	7	4.0	
	환경보호부	7	4.0	
합계	173	100.0		
중앙군사위원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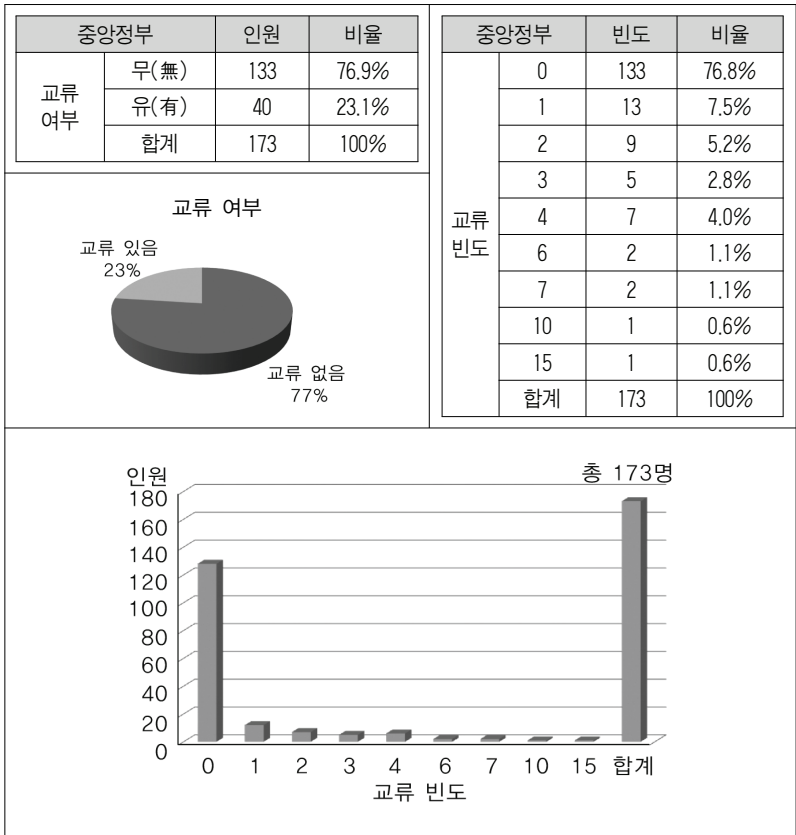
조직	직위	인원	비율
중앙 정부	감사장	1	0.6
	부감사장	5	2.9
	부부장	114	65.5
	부장	20	11.5
	부주임	24	13.8
	부행장	5	3.4
	주임	3	1.7
	행장	1	0.6
	합계	173	100.0
	중앙 군사 위원회	부주석	2
위원		8	80
합계		10	100.0

I  
II  
III  
IV

### (1) 한국 검색엔진 조사 결과

<표 III-5>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수집한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여부 및 빈도를 통계로 구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총 173명의 권력엘리트 중에서 한국과 교류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40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조사인원 대비 23.1%를 차지하고 있다.

● 표 III-5 교류 여부 및 빈도(한국 검색엔진 조사 결과)



교류의 빈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주요 인사와 10번 이상 교류한 경험이 있는 중국 중앙정부의 권력엘리트는 총 2명으로 확인됐다. 대체적으로 교류 빈도는 한 두건에 머물렀으며, 3건이나 4건이 있는 경우는 총 12명으로 확인됐다.

## (2) 중국 검색엔진 조사 결과

<표 III-5>는 바이두 검색을 통해 수집한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여부 및 빈도를 통계로 구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총 173명의 권력엘리트 중에서, 한국과 교류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85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조사인원 대비 49.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단 1건<sup>52</sup>을 제외하고, 네이버 조사 결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sup>5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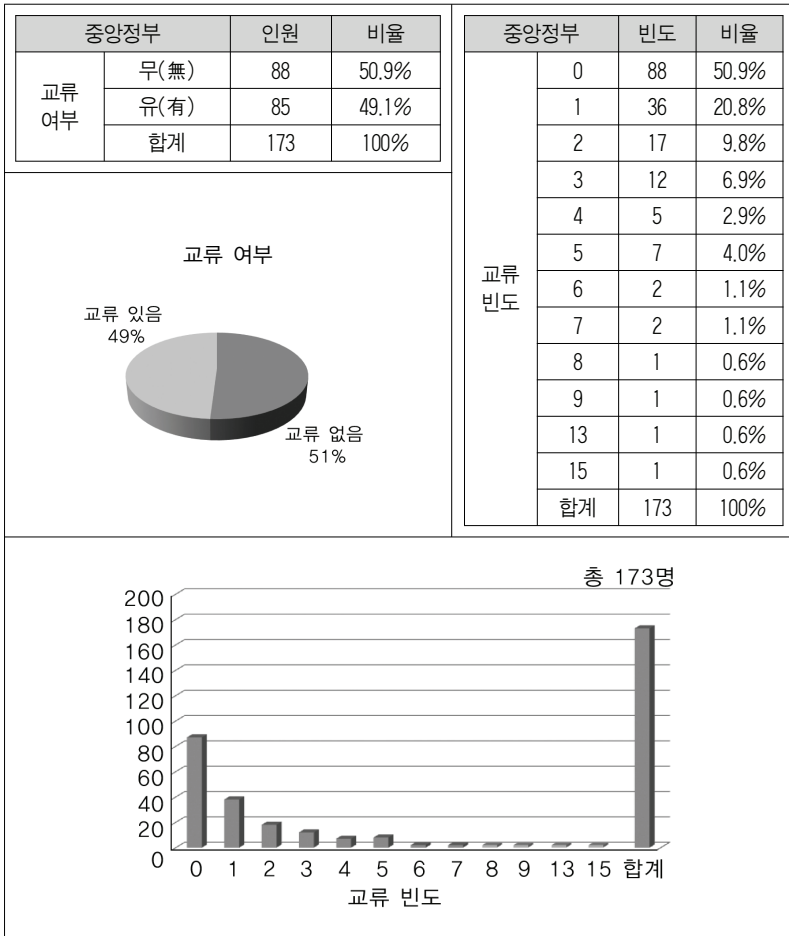
교류의 빈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주요 인사와 5번 이상 교류한 경험이 있는 중국 중앙정부의 권력엘리트는 총 15명이고, 10번 이상 교류 경험이 있는 인물도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류 경험이 1건이나 2건밖에 없는 인사가 총 5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2. 2013.09 한중 조세정책회의(장샤오춘 재정부 부부장이 한국 기재부 인사와 논의)

53. 이는 본 연구가 한중 인사 간 상호 교류가 아닌 중국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즉, 중국에서 한국이라는 단방향적 네트워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I-6 교류 여부 및 빈도(중국 검색엔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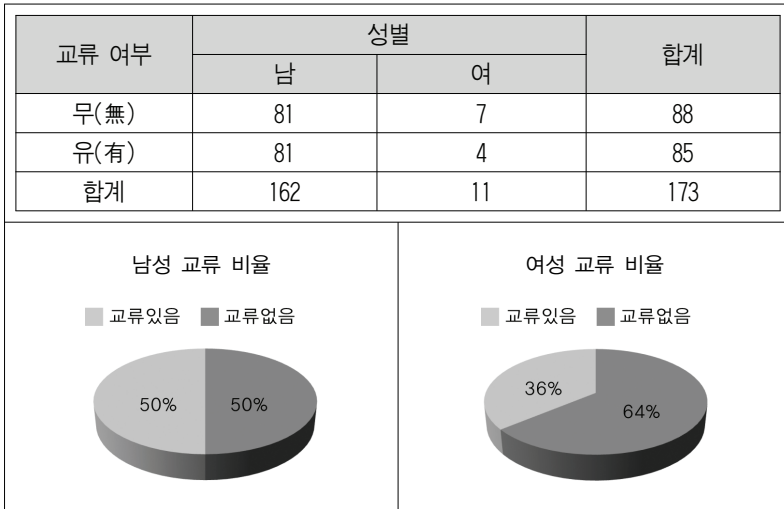


### (3)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조사 결과

#### (가) 성별

<표 Ⅲ-7>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력엘리트를 성별로 나누어 교류 네트워크 현황을 통계로 구현한 것이다. 먼저 남성의 경우 총 162명 중에서 한국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인물은 81명으로, 절반이 한국과 교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여성의 경우 총 11명 중에서 한국과 교류 경험이 있는 인물은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 Ⅲ-7 성별로 본 교류 네트워크 특성



I

II

III

IV

#### (나) 연령

<표 III-8>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력엘리트를 연령대 별로 나누어 교류 네트워크 현황을 통계화 한 자료이다. 교류 경험이 있었던 인사들은 모두 50대 이상이며, 이중에서도 50대의 인사들이 한국과 주로 교류 네트워크를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연령별로 본 교류 네트워크 특성

교류 여부	연령대		합계
	50대	60대	
무(無)	62	26	88
유(有)	47	38	85
합계	109	64	173

#### (4) 중앙정부 부처별 조사 결과

<표 III-9>는 중국 중앙정부의 권력엘리트들의 한국과의 교류 경험 여부를 부처별로 나눈 후, 이를 통계로 구현한 자료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현재(2014년 8월 기준) 중국 사법부의 부부장급 이상의 인물 중에서, 한국과 교류 경험이 있는 인물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탈북자 복송문제 등으로 한중 간 사법 공조가 보다 절실해지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남겨 준다.

표 Ⅲ-9 한중 검색엔진의 조사 결과 비교

중국 중앙정부 부처	교류 여부(네이버)		합계	교류여부(바이두)		합계
	무(無)	유(有)		무(無)	유(有)	
감찰부	5	0	5	4	1	5
공안부	8	2	10	6	4	10
공업정보화부	6	2	8	4	4	8
과학기술부	5	2	7	3	4	7
교육부	4	3	7	3	4	7
교통운수부	4	4	8	2	6	8
국가회계감사서	6	0	6	4	2	6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10	2	12	4	8	12
국가안전부	0	1	1	0	1	1
국가위생계획 생육위원회	10	0	10	4	6	10
국방부	1	0	1	0	1	1
국토자원부	5	1	6	5	1	6
농업부	7	1	8	7	1	8
문화부	5	2	7	3	4	7
민정부	3	2	5	2	3	5
민족사무위원회	6	0	6	5	1	6
사법부	6	0	6	6	0	6
상무부	5	2	7	2	5	7
수리부	7	0	7	3	4	7
외교부	6	4	10	0	10	10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7	3	10	6	4	10
재정부	3	4	7	4	3	7
주택도시건설부	4	1	5	3	2	5
중국인민은행	5	2	7	3	4	7
환경보호부	5	2	7	5	2	7
합계	133	40	173	88	85	173

I  
II  
III  
IV

<표 III-10>과 <표 III-11>은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의 대한국 교류 빈도를 각각 네이버와 바이두로 조사한 후, 이를 부처별로 분류하여 통계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단 1건을 제외하면, 바이두의 조사 결과가 네이버의 조사 결과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바로 농업부에서 한국 측 주요 인사와 무려 13건의 교류 경험이 있는 인물이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창푸(韓長賦) 농업부 부장으로서, 한국과의 교류 네트워크는 2007년부터 2년 간 길림성 성장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창푸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 표 III-10 교류 빈도의 부처별 분류(한국 검색엔진 조사 결과)

중국 중앙정부 부처	교류 빈도									합계
	0	1	2	3	4	6	7	10	15	
감찰부	5	0	0	0	0	0	0	0	0	5
공안부	8	1	0	1	0	0	0	0	0	10
공업정보화부	6	0	1	0	0	0	1	0	0	8
과학기술부	5	0	2	0	0	0	0	0	0	7
교육부	4	1	0	0	2	0	0	0	0	7
교통운수부	4	2	2	0	0	0	0	0	0	8
국가회계감사서	6	0	0	0	0	0	0	0	0	6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10	1	0	1	0	0	0	0	0	12
국가안전부	0	1	0	0	0	0	0	0	0	1
국가위생계획 생육위원회	10	0	0	0	0	0	0	0	0	10

중국 중앙정부 부처	교류 빈도									합계
	0	1	2	3	4	6	7	10	15	
국방부	1	0	0	0	0	0	0	0	0	1
국토자원부	5	0	0	0	0	0	0	0	1	6
농업부	7	0	0	1	0	0	0	0	0	8
문화부	5	1	0	0	0	0	0	1	0	7
민정부	3	1	0	1	0	0	0	0	0	5
민족사무위원회	6	0	0	0	0	0	0	0	0	6
사법부	6	0	0	0	0	0	0	0	0	6
상무부	5	0	0	0	1	1	0	0	0	7
수리부	7	0	0	0	0	0	0	0	0	7
외교부	6	0	1	1	1	0	1	0	0	10
인력자원사회보장부	7	2	1	0	0	0	0	0	0	10
재정부	3	2	0	0	2	0	0	0	0	7
주택도시건설부	4	0	0	0	1	0	0	0	0	5
중국 인민은행	5	1	1	0	0	0	0	0	0	7
환경보호부	5	0	1	0	0	1	0	0	0	7
합계	133	13	9	5	7	2	2	1	1	173

● 표 Ⅲ-11 교류 빈도의 부처별 분류(중국 검색엔진 조사 결과)

중국 중앙정부 부처	교류 빈도													합계
	0	1	2	3	4	5	6	7	8	9	13	15		
감찰부	4	1	0	0	0	0	0	0	0	0	0	0	5	
공안부	6	2	0	0	1	1	0	0	0	0	0	0	10	
공업정보화부	4	2	1	0	1	0	0	0	0	0	0	0	8	
과학기술부	3	0	2	0	1	1	0	0	0	0	0	0	7	
교육부	3	2	0	0	0	1	1	0	0	0	0	0	7	
교통운수부	2	2	3	0	0	1	0	0	0	0	0	0	8	

I  
II  
III  
IV

중국 중앙정부 부처	교류 빈도														합계
	0	1	2	3	4	5	6	7	8	9	13	15			
국가회계감사서	4	1	0	1	0	0	0	0	0	0	0	0	0	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4	5	2	1	0	0	0	0	0	0	0	0	0	12	
국가안전부	0	1	0	0	0	0	0	0	0	0	0	0	0	1	
국가위생계획 생육위원회	4	3	1	1	1	0	0	0	0	0	0	0	0	10	
국방부	0	0	0	0	1	0	0	0	0	0	0	0	0	1	
국토자원부	5	0	0	1	0	0	0	0	0	0	0	0	0	6	
농업부	7	0	0	0	0	0	0	0	0	0	1	0	0	8	
문화부	3	2	1	0	0	0	1	0	0	0	0	0	0	7	
민정부	2	1	0	2	0	0	0	0	0	0	0	0	0	5	
민족사무위원회	5	0	0	0	0	0	0	1	0	0	0	0	0	6	
사법부	6	0	0	0	0	0	0	0	0	0	0	0	0	6	
상무부	2	1	0	1	0	2	0	0	0	1	0	0	0	7	
수리부	3	3	1	0	0	0	0	0	0	0	0	0	0	7	
외교부	0	5	1	1	0	1	0	0	1	0	0	0	0	10	
인력자원사회보장부	6	1	3	0	0	0	0	0	0	0	0	0	0	10	
재정부	4	2	0	1	0	0	0	0	0	0	0	0	0	7	
주택도시건설부	3	1	1	0	0	0	0	0	0	0	0	0	0	5	
중국인민은행	3	1	1	2	0	0	0	0	0	0	0	0	0	7	
환경보호부	5	0	0	1	0	0	0	1	0	0	0	0	0	7	
합계	88	36	17	12	5	7	2	2	1	1	1	1	1	173	

### (5) 연도별 교류 경험

<표 III-12>는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경험을 부처별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연도별로 세분화한 자료이다. 다시 말해 <표 III-12>는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중국 중앙정부에서 부부장급 이상을 맡고 있는 인물들의 지난 10년간 대 한국 교류 경험을 추출한 자료일 뿐, 부처별 교류 현황을 나타낸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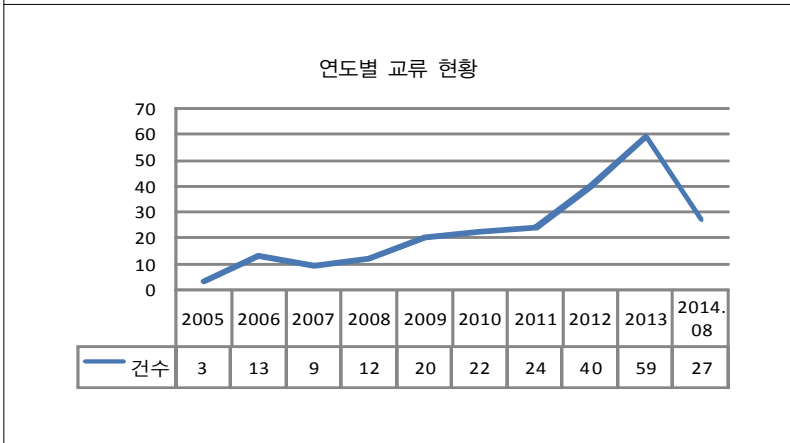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현재(2014년도 8월 기준) 상무부 내 부부장급 이상의 인물 중에서, 지난 2005년부터 한국과의 교류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으로, 1982년부터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근무한 경제통이다. 한국과의 교류 경험은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며 쌓아오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12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의 연도별 교류 현황<sup>54</sup>

중국 중앙정부 부처	연도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감찰부	0	0	0	0	0	0	0	0	0	1	1
공안부	0	2	0	0	1	1	9	2	1	2	18
공업 정보화부	0	0	0	0	0	0	1	2	3	1	7
과학기술부	0	0	2	2	1	3	2	1	2	0	13
교육부	0	0	0	0	1	2	1	5	2	0	11
교통운수부	0	2	0	0	2	2	1	2	3	1	13
국가회계 감사서	0	0	2	0	0	0	1	0	0	0	3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0	2	0	0	3	1	2	1	2	0	11
국가위생 계획생육 위원회	0	0	0	0	0	0	0	0	1	0	1
국방부	0	0	0	0	0	0	0	0	3	1	4
국토자원부	0	0	0	0	3	0	0	3	0	0	6
농업부	0	0	2	4	3	1	0	0	1	0	11
문화부	0	1	0	2	2	1	2	7	5	0	20
민정부	0	0	0	0	2	0	0	3	2	0	7

I  
II  
III  
IV

중국 중앙정부 부처	연도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민족사무 위원회	0	0	0	2	1	1	0	3	0	0	7
상무부	2	4	2	0	0	4	1	5	11	6	35
수리부	1	0	0	0	0	0	1	0	3	0	5
외교부	0	0	0	1	0	2	0	3	17	12	35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0	1	1	0	0	1	1	1	0	0	5
재정부	0	0	0	0	0	1	1	1	0	1	4
주택도시 건설부	0	0	0	0	0	0	0	0	1	0	1
중국 인민은행	0	0	0	0	0	1	0	0	0	0	1
환경보호부	0	1	0	1	1	1	1	1	2	2	10
합계	3	13	9	12	20	22	24	40	59	27	229
	25			118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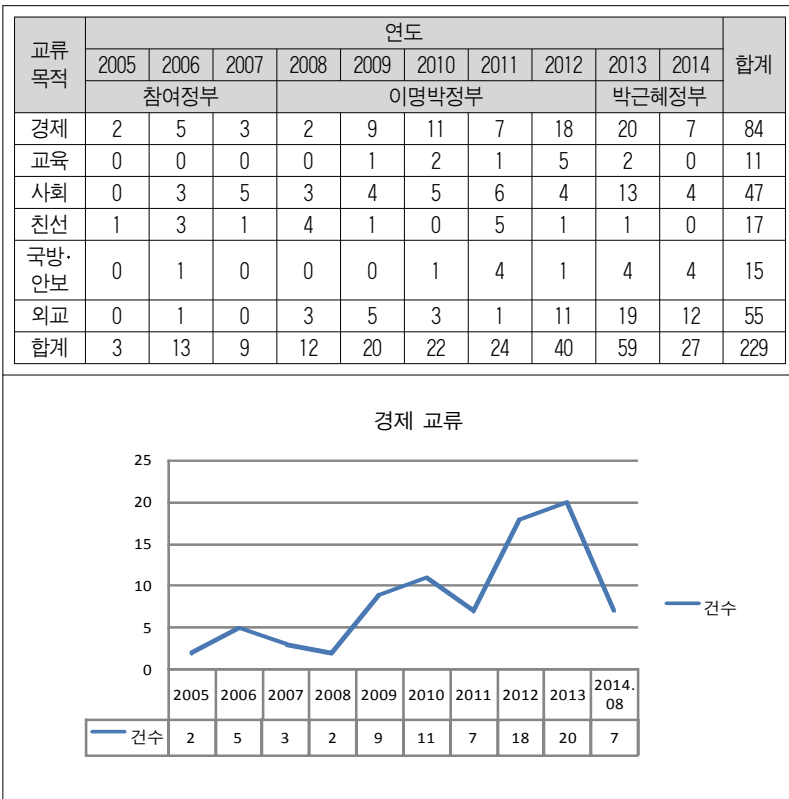


54. 위 자료는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중국 중앙정부에서 부부장급 이상을 맡고 있는 인물들의 지난 10년간 대 한국 교류 경험을 취합한 자료일 뿐, 부처별 교류가 아님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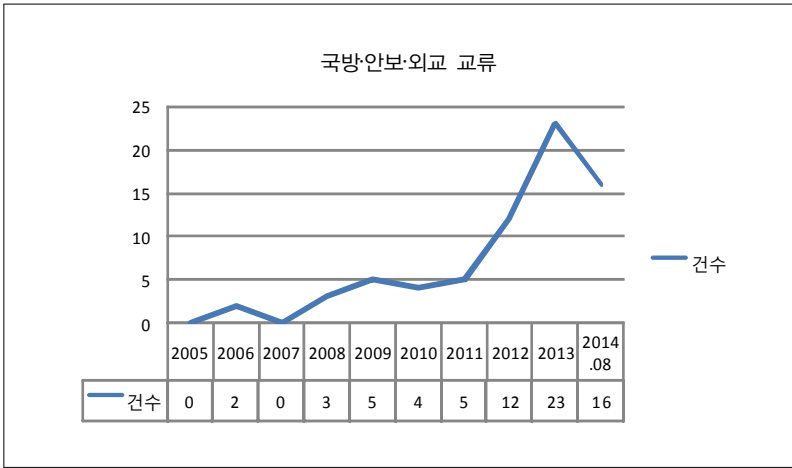


<표 III-13>은 교류 목적별로 분류한 연도별 교류 현황을 통계로 나타낸 것이다. 2014년도 8월 현재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에도, 참여정부 시기부터 경제 분야에서 여전히 교류가 나타나는 것은, 한중 경제 교류가 그만큼 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방·안보·외교에 관한 부문은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표 III-13 교류 목적별로 분류한 연도별 교류 현황<sup>55</sup>



<sup>55</sup> 교류 목적에 대한 기준은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공동연구자 간 합의로 결정하였으며, 2014년은 8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2.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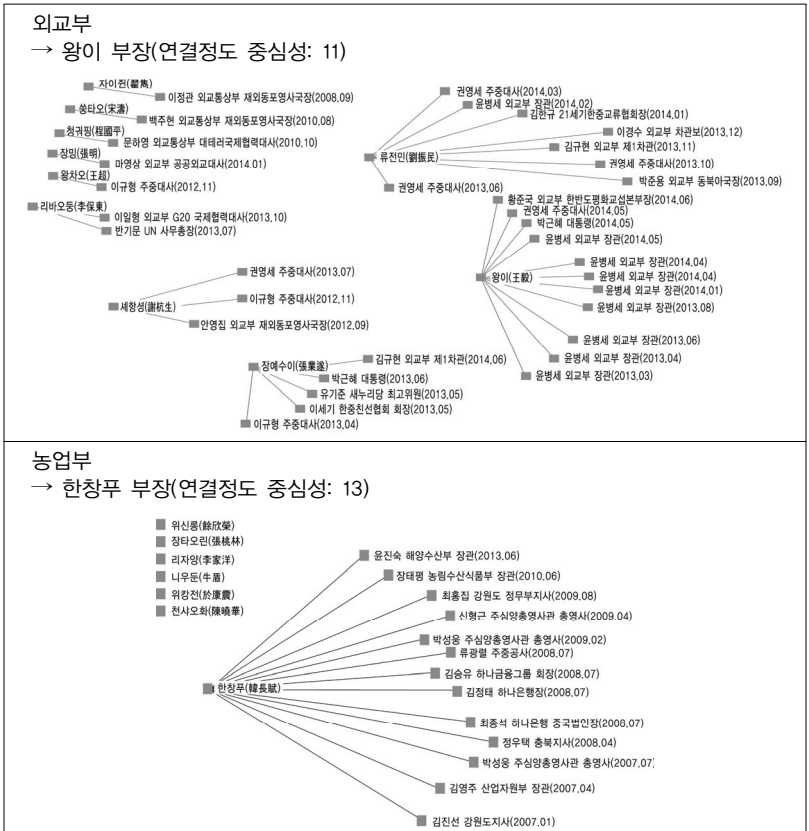
### 가. 네트워크 구조 및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1.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기법”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바이두를 사용하여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를 교류 여부, 빈도,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새로운 권력엘리트(한창푸) 및 그 인물이 속한 부처(농업부), 그리고 한국과 교류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 속한 부처(농업부, 외교부, 상무부)를 중심으로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분석하기에 앞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를 ‘단방

향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류 경험이 활발한 중국 인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조화하면, 외교부의 왕이나 농업부의 한창푸와 같이 스타(Star)형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III-1>를 통해 외교부와 농업부의 교류 네트워크를 구조화하여 보여준 이유는, 같은 부처 안에서도 인물에 따라 네트워크 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부처라도 같은 모양의 네트워크 구조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함이다.

● 그림 III-1 외교부, 농업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구조



<표 III-14>는 중국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에 있어 가장 높은 연결정도 중심성을 가진 인물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활발하게 한국 내 인사와 교류가 이루어진 부처와 중앙정부 인사는 농업부의 한창푸 부장으로, 연결정도 중심성이 13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외교부 왕이 부장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11, 공안부 귀성쿤(郭聲琨) 부장은 9, 상무부의 가오옌 부부장과 위젠화(俞建華) 부부장은 각각 9, 민족사무원위원회 왕정웨이(王正偉) 주임은 7, 환경보호부 저우성셴(周生賢) 부장은 7 등의 연결정도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표 III-15>는 직급에 따라 중심위치의 값이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급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직급에 따른 교류 건수에 의한 직급별 중심성의 평균은 0.5이고 두 직급 사이의 유의확률은 0.669로서 검정 값인 p값 0.05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 표 III-14 중앙정부 각 부처별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인물 분석

중앙정부 부처	연결정도 중심성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	11
국방부	창완취안(常萬全) 부장	4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샤오창(張曉強) 부부장	3
교육부	하오핑(郝平) 부부장	6
과학기술부	완강(萬鋼) 부장	5
공업정보화부	묘오웨이(苗圩) 부장	4
민족사무원위원회	왕정웨이(王正偉) 주임	7
공안부	귀성쿤(郭聲琨) 부장	9

중앙정부 부처	연결정도 중심성	
국가안전부	경후이창(耿惠昌) 부장	1
감찰부	황수셴(黃樹賢) 부장	1
민정부	리리궈(李立國) 부장 구차오시(顧朝曦) 부부장	3
사법부	없음	0
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 부부장	3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왕샤오추(王曉初) 부부장	2
국토자원부	장다밍(薑大明) 부장	6
환경보호부	저우성셴(周生賢) 부장	7
주택도농건설부	장웨이신(薑偉新) 부장	2
교통운수부	리자샹(李家祥) 부부장	5
수리부	자오용(矯勇) 부부장	3
농업부	한창푸(韓長賦) 부장	13
상무부	가오옌(高燕) 부부장 ; 위젠화(俞建華) 부부장	9
문화부	차이우(蔡武) 부장	6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리빈(李斌) 주임	4
중국 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	1
국가회계감사서	류자이(劉家義) 감사서장	3

I

II

III

IV

표 III-15 직급에 따른 중심성 분석

직급	인원	빈도	유효 빈도
부장급	16	59.3%	59.3%
부부장급	9	33.3%	33.3%
없음	2	7.4%	7.4%
합계	27	100%	100%

중심성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차	표준 오차	차이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 가정	.625	.438	.405	22	.689	.55556	1.372	-2.289	3.400
등분산 미가정			.435	20.598	.668	.55556	1.278	-2.106	3.217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큰 농업부 한창푸 부장의 한국 내 인사와의 교류내용 및 목적은 <표 III-16>에 정리하였다. 한창푸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길림성 성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 인사와 많은 교류 활동을 하였고, 이는 그의 네트워크에 주된 자산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교류활동은 경제와 친선에 관한 활동이 많으며, 한국 측 장관급 교류인사는 장태평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고, 이외에도 도지사와 기업 및 은행관련 인사와의 교류가 있었다.

표 III-16 농업부 한창푸 부장의 교류내용 및 목적

	연도	이름	직위	내용	교류
한창푸	2013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어업교류 협력 논의	경제
	2010	장태평	농림수산물부 장관	한중 농어업 협력 논의	경제
	2009	신형근	주심양총영사관 총영사	길림성정부와의 협력 논의	경제
		최흥집	강원도 정무부지사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경제
	2008	정우택	충청북도 도지사	충청북도 대표단 우호방문	친선
		박성웅	주심양총영사관 총영사	한일러조 총영사들과 우정협작	친선
		류광렬	주중대사관 공사	하나은행 장춘지점 개업식	친선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은행 장춘지점 개업식	친선
		김정태	하나은행 은행장	하나은행 장춘지점 개업식	친선
		최종석	하나은행 중국법인장	하나은행 장춘지점 개업식	친선
	2007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서울-길림 경제무역교류회	경제
		박성웅	주심양총영사관 총영사	장춘 금호타이어공장 준공식	친선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친선

중국 외교부에서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큰 왕이 부장의 한국 인사와의 교류내용은 <표 III-17>에 정리하였다. 외교부의 왕이 부장의 경우 주로 2013년과 2014년도에 교류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주일본 대사(2005~2007년)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임(2008~2013년)을 역임하던 시기의 활동은 업무 특성상 파악되지 않았다. 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는 특성을 갖는다.

I  
II  
III  
IV

● 표 III-17 외교부 왕이 부장의 교류내용 및 목적

연도	이름	직위	내용	교류
2014	박근혜	대통령	접견	외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회담	외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의견교환	외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국초청방문	외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세월호 위로전화	외교
	권영세	주중대사	의견교환	외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전화안부	외교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북핵문제 의견교환	안보
2013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남북한공업지역 가동 환영	외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회의	외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부장 취임축하	외교

<표 III-18>에는 공안부 귀성쿤 부장의 한국내 인사와의 교류내용을 정리하였다. 공안부의 귀성쿤 부장의 경우 2004년부터 광서장족자치구에 근무하며 한국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많이 쌓은 점이 확인되었고, 공안부 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한국의 이성환 경찰청 청장과 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III-18 공안부 귀성균 부장의 교류내용 및 목적

귀성균	연도	이름	직위	내용	교류
	2014	이성한	경찰청 청장	치안총수회담	외교
	2011	김광수	충청북도의회 의장	광서-충북 교류협력 논의	외교
		정의화	국회 부의장	광서-한국 교류협력 논의	외교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	광서-한국 교류협력 논의	외교
		손학규	민주당 대표	광서-한국 교류협력 논의	외교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	광서-한국 교류협력 논의	외교
	2009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광서-한국 교류협력 논의	외교
	2006	신정승	주중대사	광서-한국 교류협력 논의	외교
		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광서 투자협력 논의	경제

## 나. 중앙정부의 사회네트워크 구조 지표와 교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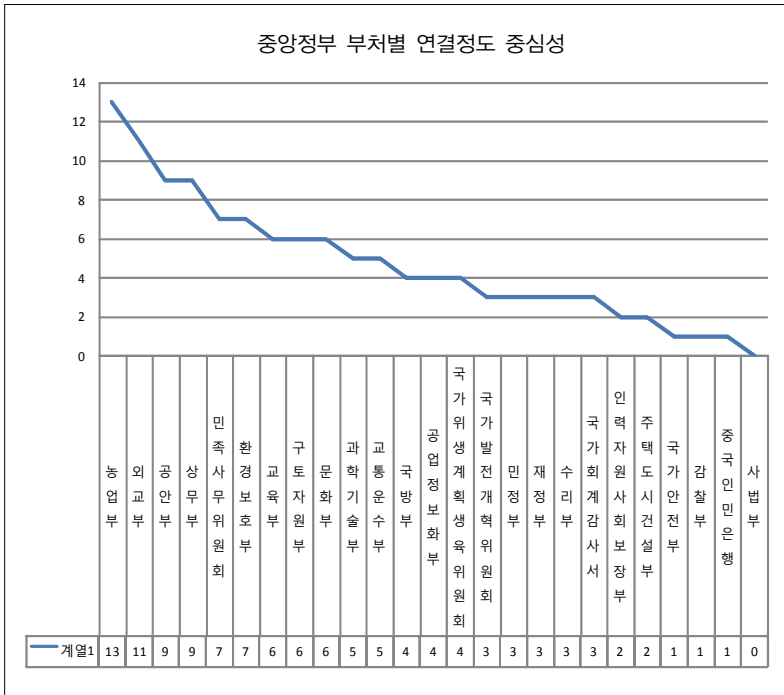
### (1) 중앙정부 부처별 연결정도 중심성

앞서 연결정도 중심성은 그룹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하는 인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의 <그림 III-2>를 보면 중앙정부의 평균 연결정도 중심성은 4.68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는 부서는 국토자원부, 문화부, 민족사무위원회, 환경보호부, 공안부, 상무부, 외교부, 농업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국과 교류활동이 전무한 부부장급 이상의 인사가 속한 부서는 사법부가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평

I  
II  
III  
IV

가하였을 때, 교류활동의 중심에 있는 인사가 속한 부서는 주로 농업, 외교, 상무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세 부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림 III-2 중앙정부 부처별 연결정도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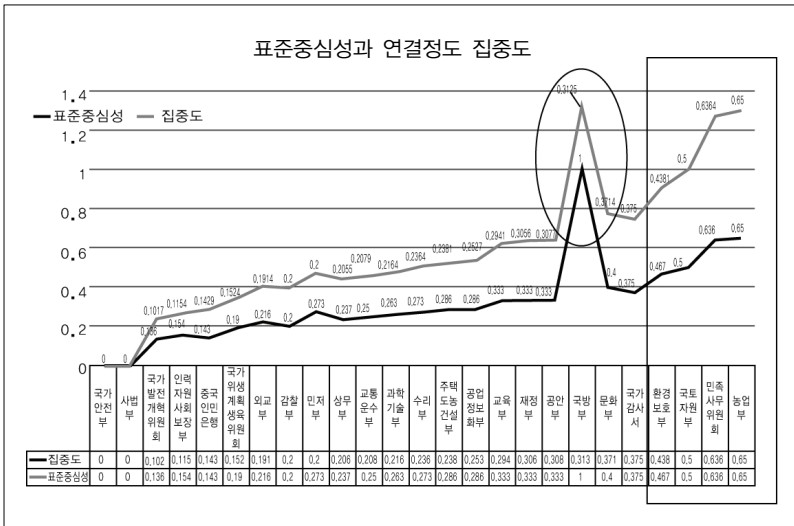


(2) 중앙정부 부처별 표준 중심성 및 연결정도 집중도

<그림 III-3>에서는 중앙정부 부처별 표준 중심성과 연결정도 집중도(Degree Centralization)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 중심성이 집단과 집단 사이를 비교하는 지표라면, 연결정도 집중도는 집단 내에서의 위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이다. 그림을 보면 대체적으로 표준

중심성은 연결정도 중심성과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방부의 수치가 높은 것은 국방부의 네트워크 크기(5 노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림 Ⅲ-3 중앙정부 부처별 표준 중심성 및 연결정도 집중도



### 다. 농업부, 외교부, 상무부 상호작용 효과 분석

“나. 중앙정부의 사회네트워크 구조 지표와 교류 특성”에서는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해, 농업부와 외교부, 그리고 상무부에 한국과 교류 경험이 풍부한 권력엘리트가 속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이 세 부서를 중심으로 각각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고, 나아가 세 부서를 모두 통합한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여 어떤 인물이 교류 네트워크 안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I
- II
- III
- IV

우선 각각의 부서의 교류 현황과 네트워크 구조는 <표 III-19>, <표 III-20>, <표 III-21>에 정리하였다. 각각의 그래프를 보면 대체적으로 중국 권력엘리트를 중심으로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스타 구조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중국에서 한국이라는 단방향적 교류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각각의 부서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개 역할을 하는 인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III-19 농업부 교류 현황과 네트워크 구조

연도	이름	직위	내용	교류	
한 창 푸	2013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어업교류 합작 논의	경제
	2010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중 논어업 합작 논의	경제
	2009	신형근	주심양총영사관 총영사	길림성정부와의 협력 논의	경제
		최흥집	강원도 정무부지사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경제
	2008	정우택	충청북도 도지사	충청북도 대표단 우호방문	친선
		박성웅	주심양총영사관 총영사	한일러조 총영사들과 우정합작	친선
		류광렬	주중대사관 공사	하나은행 장춘지점 개업식	친선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은행 장춘지점 개업식	친선
		김정태	하나은행 은행장	하나은행 장춘지점 개업식	친선
	2007	최종석	하나은행 중국법인장	하나은행 장춘지점 개업식	친선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서울-길림 경제무역교류회	경제
		박성웅	주심양총영사관 총영사	장춘 금호타이어공장 준공식	친선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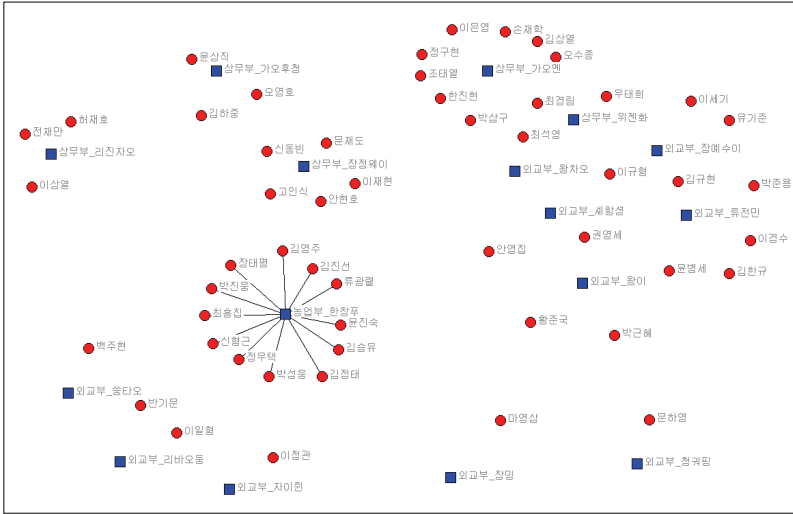


표 III-20 외교부 교류 현황과 네트워크 구조

중국	연도	이름	직위	내용	교류	
왕이 (王毅)	2014	부장	박근혜	대통령	접견	외교
		부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회담	외교
		부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의견교환	외교
		부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국초청방문	외교
		부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세월호 위로전화	외교
		부장	권영세	주중대사	의견교환	외교
		부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전화안부	외교
	부장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북핵문제 의견교환	안보	
	2013	부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남북한공업지역 가동 환영	외교
		부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회의	외교
부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부장 취임축하	외교	

I  
II  
III  
IV

중국		연도	이름	직위	내용	교류
장예수이 (張業遂)	부부장	2014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	한중 외교전략 대화	외교
		2013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대표단 접견	외교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	국회의원 대표단 접견	외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방중	외교
이규형	주중대사	한반도문제 의견 교환	외교			
송타오 (宋濤)	부부장	2010	백주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국장	한중영사협정 논의	외교
자이쥘 (翟雋)	부부장	2008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국장	한중영사협정 논의	외교
칭귀평 (程國平)	부부장	2010	문하영	외교통상부 대테러국제협력 대사	한중 대테러협의회	외교
세항성 (謝杭生)	부부장	2013	권영세	주중대사	회견	외교
		2012	안영집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국장	한중영사협정 논의	외교
			이규형	주중대사	회견	외교
왕차오 (王超)	부부장	2012	이규형	주중대사	한중 기업경영 고위급 좌담회	외교
장밍 (張明)	부부장	2014	마영삼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 협력 논의	외교
류진민 (劉振民)	부부장	2014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 회장	한중관계 논의	외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반도 정세 논의	외교
			권영세	주중대사	한반도 정세 논의	외교
		2013	권영세	주중대사	국제 정세 논의	외교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 국장	한반도 정세 논의	외교
			권영세	주중대사	한국 건국기념 행사	외교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	류진민 부부장 방한	외교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한중일 차관보급 회담	외교			
리바오둥 (李保東)	부부장	2013	이일형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	G20 관련 논의	외교
			반기문	UN사무총장	회견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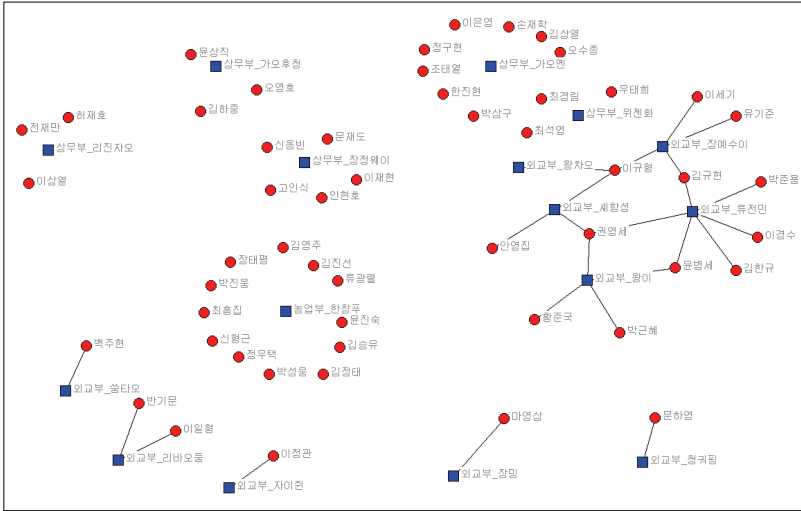


표 Ⅲ-21 상무부 교류 현황과 네트워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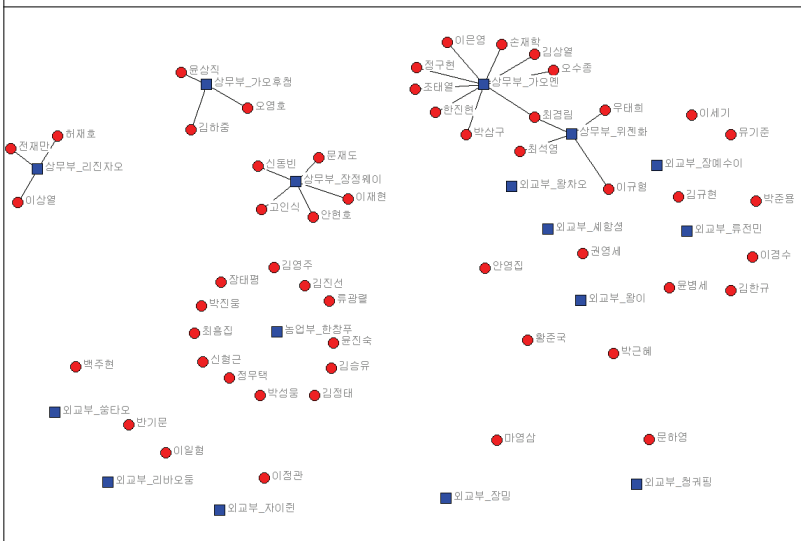
중국	연도	이름	직위	내용	교류	
가오후청 (高虎城)	부장	2014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중FTA 논의	경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중FTA 논의	경제
		2007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	2007 베이징 포럼	사회
			김하중	주중 대사	2007 베이징 포럼	사회
가오옌 (高燕)	부부장	2013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제19차 한중경제공동위원회	경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제20차 한중경제공동위원회	경제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제21차 한중경제공동위원회	경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한중 경제협력 논의	경제

I  
II  
III  
IV

중국		연도	이름	직위	내용	교류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한중 경제협력 논의	경제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한중 경제협력 논의	경제
			박삼구	한중우호협회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한중 경제협력 논의	경제
			이은영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 과장	한중 경제협력 논의	경제
		2006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국 중소기업과의 좌담회	친선
			오수종	중국한국상회 회장	한국 중소기업과의 좌담회	친선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한국 중소기업과의 좌담회	친선
위젠화 (俞建華)	부부장	2014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한중 FTA 논의	경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실장	한중 FTA 논의	경제
		2013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실장	한중 FTA 논의	경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실장	한중 FTA 논의	경제
		2012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한중 FTA 논의	경제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한중 FTA 논의	경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한중 FTA 논의	경제
			이규형	주중 대사	한중 FTA 논의	경제
장정웨이 (姜增偉)	부부장	2011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 실장	한중산업원 설립 논의	경제
		2010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한중 경제무역협력 강화 논의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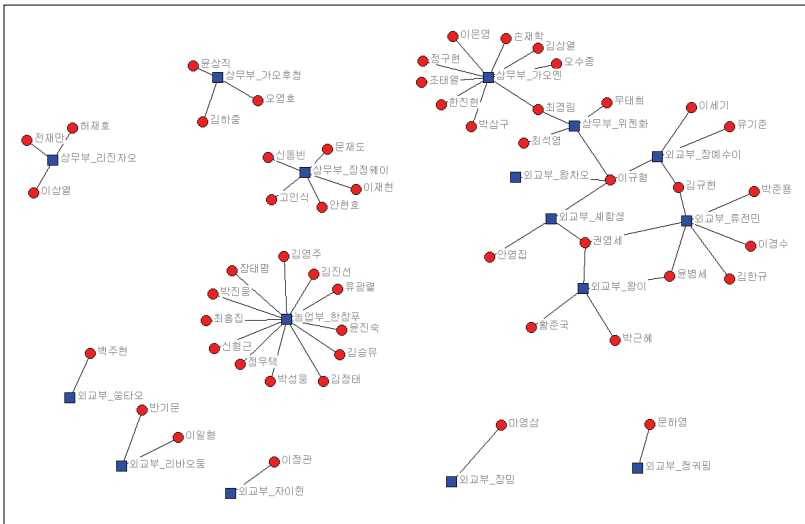
중국	연도	이름	직위	내용	교류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중 경제무역협력 강화 논의	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한중 경제무역협력 강화 논의	경제
		고인식	한국백화점협회 상근부회장	한중 경제무역협력 강화 논의	경제
리진자오 (李金早)	부부장	2006 전재만	주광주총영사관 총영사	광서-한국 경제무역 협력강화 논의	경제
		2005 이상열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단 단장	광서-한국 교류협력 논의	경제
		2005 허재호	대주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광서-한국 경제무역 협력강화 논의	경제



농업부, 상무부, 그리고 외교부의 상호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한중 인사 교류의 표준 중심성과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부서 사이에 한중 교류 특성의 상호작용 패턴을 탐색하였다. 부서 간 상호교류 네트

워크는 다양한 부서 사이의 교류 특성과 순환 구조를 설명한다. 이규형 주중대사는 상무부와 외교부 등의 부서와 함께 교류한 특성이 있다. 왕이 부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류전민 부부장, 윤병세 장관 간의 순환구조와 권영세 주중대사, 류전민 부부장, 김규현 제1차관, 장예수 이 부부장, 이규형 주중대사, 세항성 부부장 등의 인사들이 순환고리를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III-4 농업부, 상무부, 외교부의 상호 교류 네트워크 구조



### 3. 중국 군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분석

#### 가. 중국 군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중앙군사위원회는 부주석 2인, 위원 8인이고, 다음과 같은 한중 교류활동을 보였다.

먼저 판창룡(範長龍)과 팡펑후이(房峰輝)는 지난 2013년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참모총장 연석회의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과 가진 회담이 유일하다. 이에 반해 창완취안은 지난 2013년 브루나이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가진 양자회담 외에도, 중앙군사위원회의 영빈관으로 사용되는 바이다러우(八一大樓)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 성일환 공군 참모총장,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을 접견한 경험이 있다. 우성리(吳勝利)는 창완취안과 함께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을 접견한 경험이 있는 한편, 2008년 방한 당시에는 김태영 합참의장, 정옥군 해군 참모총장과 회담을 가진 적이 있다. 다음으로 마샤오펜(馬曉天)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용걸 국방부 차관, 성일환 공군 참모총장, 조백상 국방부 국제정책관 등과 교류를 쌓은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웨이펑허(魏鳳和)는 이흥기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과의 회담이 유일하다. <표 III-22>는 이러한 현황을 간략히 표로 만든 후, 이를 다시 네트워크 구조로 구현한 것이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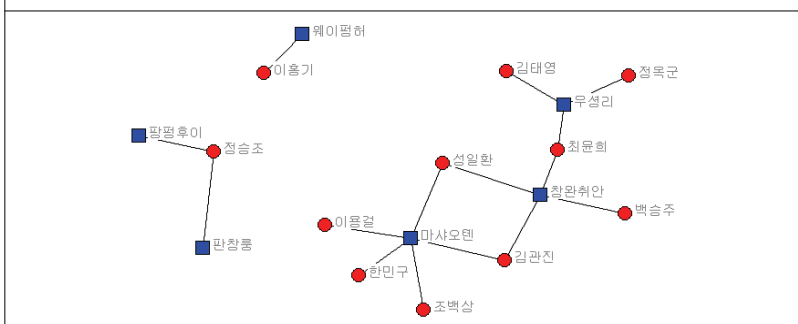
II

III

IV

표 III-22 중국 군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현황

이름	현직	연도	이름	직위	내용
판창룡	부주석	2013	정승조	합참의장	한중 참모총장 연석회의
창완취안	부주석	2014	백승주	국방부 차관	방중 접견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	방중 접견
		2013	성일환	공군 참모총장	방중 접견
			김관진	국방부 장관	브루나이에서 양자회담
팡핑후이	위원	2013	정승조	합참의장	한중 참모총장 연석회의
우성리	위원	2013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	방중 접견
		2008	정옥군	해군 참모총장	방한 회담
			김태영	합참의장	방한 회담
마샤오텐	위원	2013	성일환	공군 참모총장	한국 공군사령부 접견
		2011	조백상	국방부 국제정책관	방중 접견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방한 회담
			이용걸	국방부 차관	한중 국방전략대화
			한민구	합참의장	방한 회담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방중 접견
웨이핑허	위원	2011	이흥기	3군 사령관	방중 접견



중앙군사위원회	이름	연결정도 중심성
	마샤오텐	
	창완취안	
		4

중국 군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에서 비교적 중심 위치에 있는 인물은 <표 III-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샤오텐과 창완취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모두 4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성일환 공군 참모총장(2013년)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2011년, 2013년)이 이들과 교류 경험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나.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가. 중국 군부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에서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과 위원(총 10인)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구조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범위를 중국 중앙정부의 권력엘리트까지 확장하여, 국방·안보·외교 분야의 네트워크 교류 현황을 각 정권 시기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2014년 기준 중국 중앙정부 및 군부의 권력엘리트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표 III-23>의 분석 결과만 두고 한중 간 국방·안보·외교 분야의 교류가 급증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3차년도에서 한중 간 보다 의미 있는 분야별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선도적인 시도로서, 간략한 표와 그림으로 소개를 하고자 한다.

---

I

II

III

I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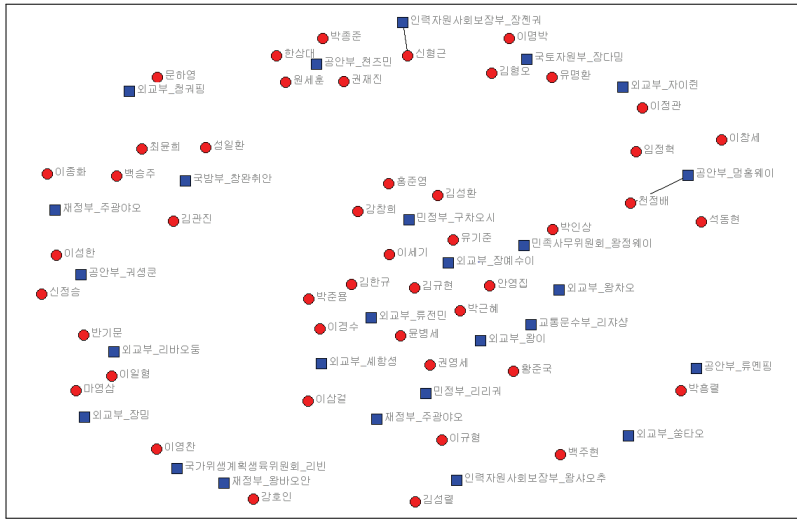
● 표 III-23 한국 정권별 국방·안보·외교 분야 교류 현황<sup>56</sup>

한중교류	연도										전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국방·안보·외교	0	2	0	3	5	4	5	12	23	16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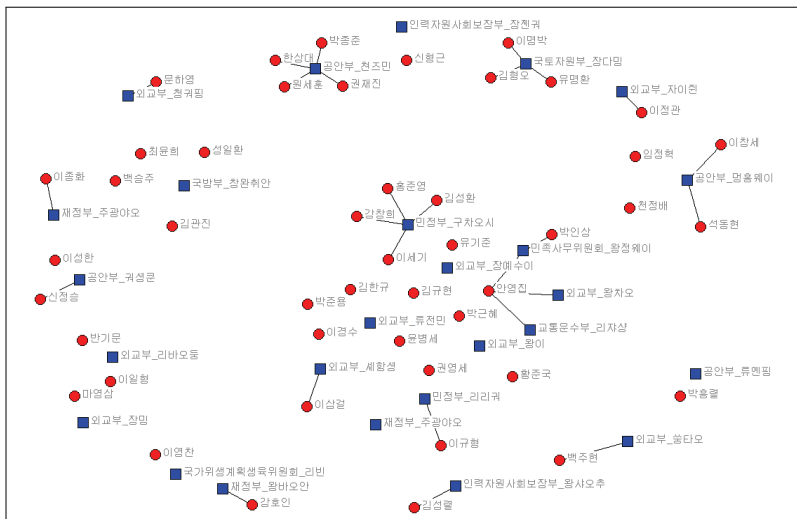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III-5>, <그림 III-6>, 그리고 <그림 III-7>는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의 정권 시기별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세 개의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하면, 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한중 인사 사이에 연결이 교차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부서의 서로 다른 인물들 간 교차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중국 중앙정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교류가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국방부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6. 위 자료는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및 중앙정부의 권력엘리트들이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대 한국 교류 경험을 취합한 자료일 뿐, 한중 간 전체 교류를 취합한 자료가 아님을 밝혀 둔다.

●그림 III-5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2005~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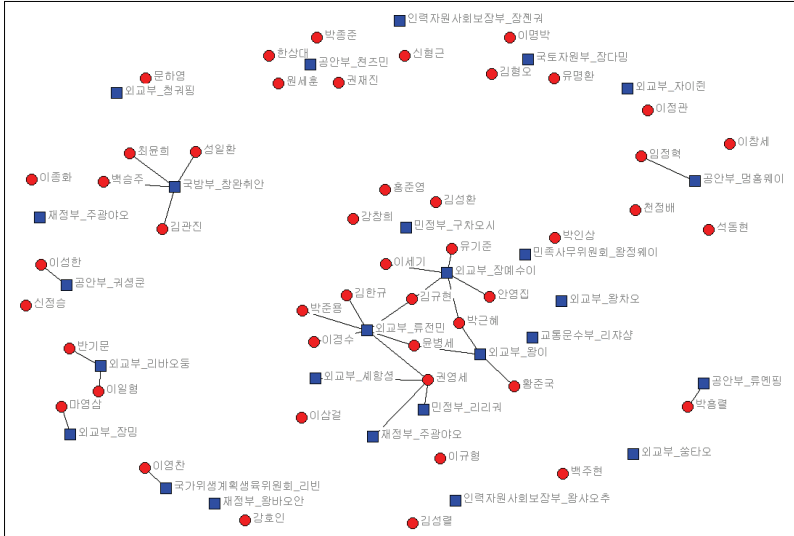


●그림 III-6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2008~2012년



I  
II  
III  
IV

● 그림 Ⅲ-7 국방·안보·외교 분야에서의 대 한국 교류 네트워크: 2013~2014년





# IV. 결론: 종합평가와 시사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1. 종합평가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그리고 한중 주요 인사의 교류 네트워크 두 가지 대상을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당·정·군 권력엘리트 사이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에서 누가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권력엘리트 간 네트워크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는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당·정·군 권력엘리트 493명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여주는 7개의 속성(연령대, 호적지, 전공분야, 공청단 활동, 지방근무 경력, 지식청년 참가, 유학경험 등)을 기준으로 삼아, 속성을 공유하는 권력엘리트 간을 연결 짓는 네트워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중 인사교류 네트워크를 분석한 의도는 한중 고위 인사교류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사는 누구인지, 가장 접촉빈도가 높은 인사가 소속된 부서는 어디인지, 그리고 인사교류에 패턴은 어떠한 모습을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중국 중앙정부 부처(국무원 산하 25개 부·위원회)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요 권력엘리트들이 최근 10년(2005~2014년)간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한 내용과 특성을 바이두와 네이버 등 웹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사회네트워크 평가

중국의 당·정·군 권력엘리트 493명에 대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

I

II

III

IV

한 데이터는 7가지 지표, 즉 연령대, 호적지, 전공분야, 공청단 활동, 지방근무 경력, 지식청년 참가, 유학경험 등을 사용하였다. 7가지 지표는 엘리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배경을 공유하는 권력엘리트들 간에는 공식적·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 진다고 가정하였다. 즉, 지표를 공유하는 권력엘리트들은 서로 연관을 맺고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만일 두 권력엘리트 간에 2~3개의 지표들이 두 권력엘리트에 공통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들은 서로 인맥을 맺고 있는 관계라고 본 연구는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고향에 공청단 활동을 했으며, 동일 국가나 지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다면 해당 권력엘리트 간에는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지표 중에서 3가지 이상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만을 따로 추출하였는데, 총 493명의 권력엘리트 중 115명이 선별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현 중국 권력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15명에 7개 속성변수를 모두 적용하여 그들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를 파악한 결과 두 개의 다른 네트워크로 엘리트들이 분할되어 있는 것과, 문혁시기의 지식청년 경험 여부가 전체 권력엘리트 네트워크를 분할하는 요인이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지식청년 경험 여부는 중국 권력엘리트의 전체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청단 경력 여부가 파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치에서는 공청단 경력이 ‘공청단파’라고 불릴 만큼 대표적인 파벌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네트워크 분석 결과 공청단 경력은 네트워크상에서 파벌로 규정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

닌 지표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단지 공청단 경력 여부와 다른 속성 변수인 북미-유럽지역 유학경력 및 호적지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네트워크 내의 소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중국 정치의 권력관계가 네트워크상에서의 영향력 관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까닭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영향력은 누가 누구와 연계되어 있고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각 행위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과, 관계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엘리트는 리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리첸은 산둥성 출신으로 공청단 산둥성 서기를 거쳐 공청단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중공 산둥성위원회 상무위원 겸 청도시 당서기를 맡고 있다. 리첸은 중국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에서는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 권력엘리트의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는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첸 외에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는 인물은 왕루린과 리원평, 진전지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왕루린은 공청단 경험이 있고, 지식청년 참가 경험이 있으며, 사회과학(경제학) 전공이라는 점 때문에 리첸의 뒤를 이어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는 길림성 당서기를 거쳐 2014년 9월부터는 산서성 당서기를 맡고 있다. 진전지 역시 지식청년 참가 경험이 있다.

넷째, 분석 결과 493명 중 11명의 40대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를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서 루하오와 런쉐핑이 대표주자이다. 현재 흑룡강성 당부서기 겸 성장을 맡고 있는 루하오는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를 5년간(2008.04~2013.03) 역임하는 등

공청단 그룹의 중심적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런쉐핑은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서 천진시 부시장을 거쳐 2014년 8월부터 광둥성 광주시 당서기를 맡고 있다. 런쉐핑은 공청단 경력은 없지만 공청단 경력자들과의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동시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북미-유럽지역 유학파와도 인맥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차기 중국 지도부와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 나. 한중 인사 교류와 사회네트워크 평가

본 연구는 최근 10년(2005~2014년) 동안 중국의 중앙정부의 25개의 부·위원회 및 중앙군사위원회 인사들과 한국 측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교류 내용과 특성은 한중 양국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바이두를 이용하여 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용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지도부의 한국 주요 인사와의 교류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류 부서 역시 예전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중앙정부 부처 및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주요 직무를 맡고 있는 권력엘리트가 지난 10년간 한국의 주요 인사와 교류한 횟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2007년에는 25건, 2008~2012년에는 118건, 2013~2014년 8월까지의 86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급격하게 가까워진 양국관계를 반영하여 중국 권력엘리트의

한국 인사들과의 교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둘째, 교류의 내용 혹은 목적을 기준으로 교류를 살펴보면, 경제 분야의 교류활동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외교·안보·국방 분야와 관련된 교류도 급증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 하면 2005~2007년까지는 중국 상무부와 한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고, 2008년 이후부터는 중국의 농업부, 문화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민족사무위원회, 교통운수부 등으로 교류활동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외교부와 상무부 및 국방부 등이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수리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시건설부, 중국 인민은행 등은 교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 고위 인사 교류의 사회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활발하게 교류하는 스타 구조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비교적 교류 빈도가 낮은 그룹과 교류가 없는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룹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인사가 누구이고, 어느 정도의 교류활동을 수행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연결정도 중심성은 평균 4.68정도이고, 평균 이상의 연결정도 중심성이 나타나는 그룹은 국토자원부, 문화부, 민족사무위원회, 환경보호부, 공안부, 상무부, 외교부, 농업부 등이 있다. 교류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부서로서는 '1'건인 중국 인민은행,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이 있고, 교류활동이 '0'인 부서는 사법부가 유일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류의 중심에 있는 중국 인사가 소속된 부서는 외교, 문화, 환경, 농업 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중 고위 인사 교류에 대한 사회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장 활발하게 한국 인사와 교류가 이루어진 중국 중앙부서와 권력엘리트는

I  
II  
III  
IV

농업부(한창푸 부장, 13건)와 외교부(왕이 부장, 11건)이고, 공안부(귀성쿤 부장, 9건), 상무부(가오옌 부부장, 위젠화 부부장, 각각 9건), 민족사무위원회(왕정웨이 주임, 7건), 환경보호부(저우성셴 부장, 7건) 순이다. 특히 외교부(왕이 부장)와 농업부(한창푸 부장)는 최근에도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 내 관계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과, 한중 고위 인사 교류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구조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의 한국과의 교류활동을 분석한 결과, 리췌, 쑨정차이, 셰푸잔 등 3명이 한국과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당·정·군 권력엘리트 중에서, 40대이며 공청단 경력을 가진 신진 권력엘리트 중 2명(루하오, 친이즈)과 유학과 출신인 런쉐핑 역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이들은 주로 지방정부에서의 근무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 기업과의 경제교류 네트워크를 축적해온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루하오는 북경시 부시장 시절 현대차그룹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고,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도에는 현대차그룹과 중국 내 사회공헌활동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흑룡강성 성장으로 자리를 옮긴 현재도 여전히 한국과의 교류를 중시하고 있다. 런쉐핑 역시 천진시 부시장 시절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하지만 기타 주목할 만한 인물(두잔위엔, 탕타오, 양위에, 니우둔, 레이춘메이, 리윈핑 등) 들은 한국과의 교류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중국 내 권력엘리트 내부의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 중에서,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이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중국 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시사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당·정·군 권력엘리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해 공식적·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양국 정상은 이미 2013과 2014년 상호 국빈 방문 시 공동성명 및 부속서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전략적 정치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전략적 정치안보협력 강화’의 주요 내용은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 및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정례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전략대화 정례화, 양국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정착,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 및 직통전화 조속 개통 합의, 정부·민간 참여 1.5트랙 대화체제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당·정·군 권력엘리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당·정·군의 주요 부문별 엘리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리쥘(산둥성 청도시 당서기), 왕루린(산둥성 당서기), 리원핑(강소성 상무 부성장), 진전지(길림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등이 중국 중국의 당·정·군의 최고 직위를 보유하고는 않았지만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들과의 네트워크의 형

성을 위해서는 어떤 사안을 개발해야 하는가는 본 연구가 던지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해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에게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 한중교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인물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본 연구에서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이 본 연구가 갖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차세대(6, 7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40, 50대 권력엘리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차세대 지도부가 중국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2020~2030년대를 대비하여 이들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류 및 접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이들을 미래의 ‘친한파(親韓派)’ 내지는 ‘지한파(知韓派)’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알려진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 그룹은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60년대 출생한 소위 ‘60후(後)’그룹으로서, 어린 시절에는 문혁을 겪었고, 성장 시기에는 개혁개방과 천안문 사건을 경험한 세대를 일컫는다. 이들 그룹은 현재 중앙정부의 부부장급 혹은 성급 지방정부의 지도자(당서기, 성장)로 정치적 경험과 능력을 축적 중에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후춘화(胡春華, 1963년생, 중공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광둥성 당서기), 쑤정차이(孫正才, 1963년생, 중공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경(重慶)시 당서기), 루하오(陸昊, 1967년생,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흑룡강성 당부서기 겸 성장), 저우창(周強, 1960년생,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쑤수린

(蘇樹林, 1962년생,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복건성 당부서기 겸 성장), 장칭웨이(張慶偉, 1961년생,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하북성 당부서기 겸 성장), 지린(吉林, 1962년생, 중공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북경시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이 있다. 두 번째 그룹은 1970년대 출생한 소위 ‘70후(後)’ 그룹으로서, 이들은 완전한 교육체계에서 성장한 개혁개방 수혜자 그룹이며, 외국 유학을 경험하였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현급 지방정부의 지도자(시(市) 당서기, 시장)로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류젠(劉劍, 1970년생,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신강위구르자치구 합밀(哈密)시 당서기), 류제(劉捷, 1970년생, 강서성 신여(新餘)시 당서기), 스광휘(時光輝, 1970년생, 상해시 부시장), 왕샤오둥(王曉棟, 1971년생, 하북성 보정(保定)시 당부서기) 등이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 산둥성, 강소성, 하북성 출신 권력엘리트는 중국 정치에서 사회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호적지인 섬서성 출신이 중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비중있게 다룬 리첸은 청도시 당서기로 근무하며 대전-청도 우호협력도시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루하오가 성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흑룡강성은 오는 12월 충칭남도와의 자매결연 협정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출신 권력엘리트와의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도자 초청 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 소속 연구기관과 대학 및 싱크탱크(사회과학원 등) 등과의 연구협력 역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필요시 이미 이들 지방정부와 오랫동안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유지해 온 한국의 주요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가 축적한 교류협력 경험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I
II
III
IV

중국 산둥성은 2011년 ‘경기-산둥 도시연합 총회’를 개최하여 양 성·도의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메커니즘을 논의한 바 있고, 서울시 역시 2012년 중국의 북경, 강소성, 산둥성, 천진시 등의 대표를 초청해 ‘서울-중국도시 발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메커니즘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중국의 미래 권력엘리트와의 신뢰구축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중국 정치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식청년’ 경험자 및 ‘공청단’ 경력자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2년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4명이 지식청년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중에서는 7명이,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 중에서도 65명이 지식청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7</sup> 또한 공청단 경력이 현재의 중국 정치에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은 이미 본문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매우 막강한데, 이는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를 역임한 루하오와 친이즈가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내부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중심성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교류활동도 대단히 활발히 진행해왔음을 발견하였는데, 일례로 루하오는 공청단 재직 시절 한중 청소년 교류 대표단,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을 유치한 경험이 있고, 친이즈 역시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라는 직함으로 한국의 국회의원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공청단이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교류 네트워크를 쌓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

57. “205名中央委員65人有知青經力,” 『人民網』, 2012年 11月 23日, <<http://politics.people.com.cn/n/2012/1123/c1001-1966932.html>>. (검색일: 2014.10.10).

좀 더 주도적이고 공식적으로 공청단 활동을 해 온 엘리트에 대한 관심을 위해서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과 연계하여 공청단 출신의 차세대 지도자를 초청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외교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초청외교’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도자간 네트워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정부(외교부 등) 차원의 미래 지도자 초청 형식은 유지하되, 민간 주도의 초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분석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사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협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넘기 힘든 장애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가치와 이념 및 제도상의 차이는 제쳐두고라도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은연중에 대립하고 있고, 미·중 경쟁구도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중국은 ‘중국의 부상’에 부합하는 강대국 외교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을 겨냥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시했으며, 동아시아에서 ‘핵심이익’을 둘러싸고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만 하더라도 중국에 과도한 기대와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는 한국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반도 문제 및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성급하게 한중 밀월관계를 추진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하지만 한국에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외교적·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접근은 조급하지 않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의’와 그 실천도 중요하지만 한중 양국의 신뢰 강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내 친한 인사들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류방식과 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비록 이번 연구에서 한중교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인물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을 밝혀내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지만, 3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는 것을 과제 중의 하나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차기 연도에서는 한중 간 다양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물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지, 새로운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 부록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부록 1]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설명해주는 방법 중 하나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다. 즉,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며,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등의 다양한 관계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사회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 4가지의 연구 동향을 보인다.<sup>58</sup> 그래프이론(Graph Theory)을 활용한 계량사회학(Sociometry), 사람 사이의 관계와 파당 형성에 관한 연구, 다양한 사회구조와 행위, 사회적 자본 등이다.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은 네트워크에 대한 체계적인 모델링기법과 데이터 수집방법을 통해 정량적인 관계분석 결과와 이 분석 결과에 기초한 다양한 시각적인 네트워크 맵(Map)을 제시한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노드와 링크 사이의 네트워크를 다양한 단위와 구조에 의해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그래프이론에 기초하여 개인 및 집단들 간의 관계를 노드와 링크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관계의 확산 및 진화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래프이론을 활용한 계량사회학 관점에서 사회네트워크의 다양한 특성을 구조변수 혹은 지표를 사용하여 사람들 사이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들 지표의 수량적인 특성을 설명한다. 사회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에 대한 설명과 지표 혹은 구조변수외는 다양한 관계를 가지

---

<sup>58</sup> 이창준 외, “e커머스기업의 고객서비스 쿨트랜드 발견 사회네트워크분석 NodeXL 활용,” *Information System Review*, Vol. 13, No. 1 (한국경영정보학회, 2010), pp. 75~96.

고 있다. 특히 권력과 중심위치는 사회네트워크 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이다. 집단의 결속력과 활동력을 설명하는 응집성(Cohesion)에 대한 지표로는 밀도와 포괄성 지표가 있고, 네트워크의 경계영역을 설명하는 범위와 집단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특성, 그리고 네트워크 내에서 동일한 위치에 따른 특성을 연구하는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특성을 설명하는 원모드 네트워크(One-Mode Network)와 사람과 사물 사이 등 서로 다른 집단을 설명하는 방법인 투모드 네트워크(Two-Mode Network)에 따라 네트워크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원모드 네트워크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데 반해서, 투모드 네트워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설명한다. 다양한 원모드와 투모드 네트워크에서 중심위치에 있는 노드의 변화 등도 설명하였다.

## 1.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란


최근 소통, 공유 등의 관계에 의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주목받고 있다. 사회네트워크는 1954년 인간관계를 연구한 바네스(Barnes)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후, 인류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주로 발전하였으며, 심지어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네트워크이론이 응용되고 있다.<sup>59</sup> 또한 초기 연구는 기술적인 묘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실증적인 연구로 까지 발전하였다.<sup>60</sup> 네트워크 분석은 개별행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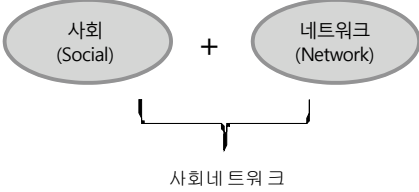
<sup>59</sup> 박해육·고경훈, “지방자치단체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398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p. 39 참조.

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써, 특정 집단의 관계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형태,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을 도출하는 분석방법이다.<sup>61</sup>

표 부록-1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란

❖ 의미



- 사회네트워크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연결망을 나타냄  
: 즉 사회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 사회네트워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접목시켜 분석하는 것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관계 성격을 갖는지, 관계의 연결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sup>62</sup> 사회네트

60. 김병석, “온라인 댓글 토론 구조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 18 참조.

61.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전영사, 2007), p. 22 참조.

62. 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서울: 전영사, 2003), p. 52 참조.

워크 분석은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역할, 인지, 그리고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관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sup>63</sup> 즉, 사회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의 특성이나 형태, 사회적 관계의 연결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다.

## 가. 사회네트워크 분석 특징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과 변화의 패턴 혹은 규칙을 설명한다. 즉,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의 패턴이나 규칙이 분석 대상이다. 이 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 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64</sup>

- 사람들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중심
-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 네트워크의 구조와 실제적인 현상 간 상호작용
- 새로운 구조적 특성에 의한 다양한 효과(중심위치 이동 등)

---

63. 손동원,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2008), p. 16 참조.

64. "What is Social Network analysis," <[www.analytictech.com/networks/whatis.htm](http://www.analytictech.com/networks/whatis.htm)> (검색일: 2014.10.04).

## 표 부록-2 사회네트워크 분석 대상과 관계

### 사회네트워크 분석

#### ❖ 분석대상

##### ➤ 관계형성과 구조(Relational process & Structures)

: 사람이나 사물 사이의 관계 형성 과정이나 관계형성(Foms)의 구조

#### ❖ 관계와 관계표현

##### ➤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로써, 우정, 사랑, 권력 등을 나타냄

: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

→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로써, 소유, 선호, 만족 등을 나타냄

: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

→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로써, 부착, 조립 등의 관계를 나타냄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속성 보다는 관계 특성 및 관계의 의해서 나타나는 네트워크가 분석 대상으로 한다. 개별적인 속성을 설명하는 ‘속성자료(Attribute Data)’는 개인 혹은 집단의 나이, 소득 등 개별적이며 그들 자신에게 소속되는 고유한 성질 및 특징으로 간주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으로 수집되며, 다양하고 유용한 통계절차에 의해 양적 혹은 수리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특정 개인 및 집단의 속성으로 간주된다.<sup>65</sup> 그에 반해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사랑, 우정, 접촉, 유대, 연계, 집단 사이의 접촉 등 사회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나 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또

<sup>65</sup>- John Scott,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pp. 2~3.

한 사회 구성원사이의 교류관계, 지위관계, 다양한 경제적 재화나 자원을 교환하는 기업 사이의 거래관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방향, 빈도, 그리고 강도 등이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관계 속성이나 특성을 수치화, 통계화, 그래프화하여 관계에 수리적인 특성도 분석한다.

## 2. 사회네트워크의 분류

사회네트워크는 노드의 구성 요소와 노드의 특성 및 노드 구성 집합에 따라서 구분한다. 특정 중심의 노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여부에 따라 에고중심 네트워크(Egocentric Network)와 전체 네트워크(Whole/Complete Network)로 구분하고, 노드의 구성 요소가 하나의 집합 혹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집합인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원모드 네트워크와 투모드 네트워크로 구분한다.

### 가. 전체 네트워크와 에고중심 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체 네트워크와 에고중심 네트워크이다. 전체 네트워크는 경계영역이 모호할 수도 있지만, 분석 대상은 어느 정도의 경계영역을 가지고 있거나, 나타나는 사회적 집단(Social Collectives)이다. 에고중심 네트워크는 특정의 중심적인 행위자(Actors)나 사물(Objects)이 주위의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연관 등이 분석 대상이다. 전체 네트워크는 상호작용의 유무에 따라 개인의 관계가 이분법으로 표현되거나 관계의 강도 혹은 숫자로 표현되는 네트워크로 모집단의 경계가 분명한 네트워크이다. 이것은 대상 전체의 연결패턴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유용하다.<sup>66</sup> 에고중심 네트

워크는 한 개인을 중심에 위치시키고, 그 개인과 다른 사람(Alter)과의 연결한 네트워크이다. ‘개인중심 네트워크’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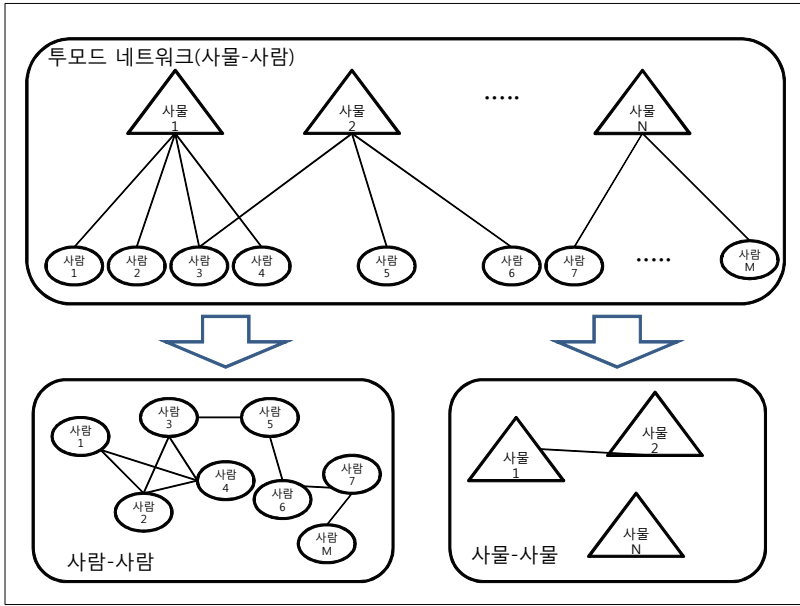
#### 나. 원모드 네트워크와 투모드 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를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원모드와 투모드 네트워크로 분류하는 것이다. 원모드는 같은 대상의 ‘사람과 사람’ 혹은 ‘사물과 사물’이 관계를 맺는 것이고, 투모드는 사람과 사물 등 서로 다른 대상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행렬의 관점에서는 정방행렬( $m \times m$ :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음)인 경우 원모드 네트워크이고, 정방행렬이 아닌 경우( $n \times m$ : 행과 열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투모드 네트워크이다.

사회네트워크에서 투모드 네트워크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부록-1>은 (사람 x 사물)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집합으로 나타나는 투모드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표현이다.

---

66. 김용하, 『사회연결망이론』, pp. 33~35.



투모드 네트워크의 중요한 특성은 원모드 네트워크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였고, 이를 행렬로 변환하는 과정은 사람M과 사물 N의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원모드와 투모드 데이터는 인접행렬 (Adjacency Matrix)로 표현한다. 인접행렬은 노드와 연결로 표현된다.  $i, j$ 의 노드 사이에 대한 연결이 있으면 행렬의 셀(Cell)값은 '1'이고, 연결이 없으면 '0'을 가진다.

67. 김홍유 외, “취업률과 취업인프라 사이의 사회 네트워크 구조변화에 따른 예산효과에 관한 연구: K대학을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제27권 4호 (한국생산성학회, 2013), pp. 4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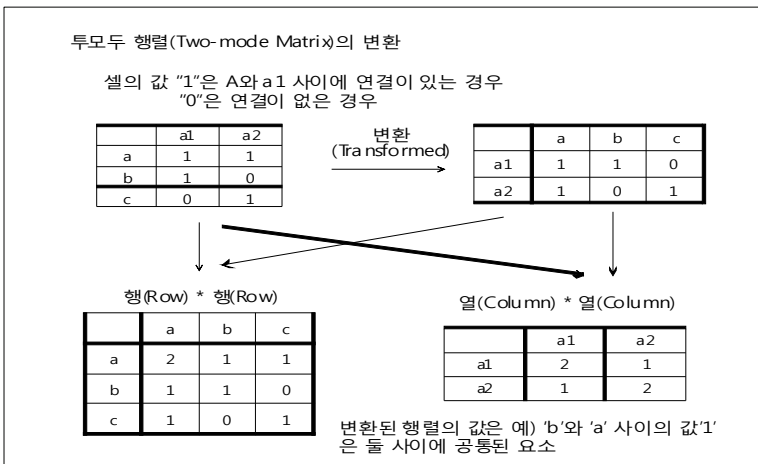
$$a_{ij} = \begin{cases} 1, & \text{if } (i,j) \in L \\ 0, & \text{otherwise} \end{cases}$$

투모드 인접행렬은 두 개의 노드 집합과 연결 집합으로 표현된다.

- 집합 M = {a1,a2} a1,a2은 집합 M의 원소를 표시
- 집합 N = {a,b,c} a,b,c은 집합 N의 원소를 표시
- 집합 R = {0,1} 연결을 나타내는 집합이고 연결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가짐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집합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고객이 다양한 의류 상품이나 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혹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이다.

● 그림 부록-2 투모드 행렬의 변환<sup>68</sup>



<sup>68</sup> 김병석·최재용,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 공유 관계와 사회네트워크 영향력 위치 탐색 연구: 투모드 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0권 2호 (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14), pp. 157~171.

투모드 네트워크 인접행렬의 변환은 <그림 부록-2>처럼 분할된다. 이 분할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물이 공유되고 있는 지를 설명하고, 사물과 사물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공유 혹은 중첩되고 있는 지를 설명한다.

### 3. 사회네트워크와 그래프이론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은 관계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이 관계데이터를 표현하는 수학적 방법이 행렬이다. 이 행렬 데이터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네트워크 구조 지표를 수리적으로 분석한다. 수리적으로 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로 표현한다. 네트워크에서 노드는 점으로 나타내며, 사람, 집단,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링크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선으로 나타내며, 사람 사이의 관계-연줄, 의사소통, 학연, 친구, 구매 등을 표현하거나 사람과 사물에 대한 소속, 소유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노드와 링크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데, 네트워크(감마:  $\Gamma$ )=(N,L)로서 표현된다.<sup>69</sup>

- 네트워크( $\Gamma$ : 감마(Gamma)) = f(N, L)
- N(Node) = { 1, 2, 3, ..., n}, 노드의 집합
- L(Links) = 연결의 집합,  $L \subseteq N \times N$

네트워크 모형에서 인접행렬의 모든 연결은 '0'과 '1'의 두 가지 고정적인 값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먼저 행과 열이 원모드 네

---

<sup>69</sup> Fernando Redondo, *Complex Social Networ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28~29.

트위크인 경우는 같은 집합으로 표현되고, 투모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행과 열이 만나는 셀의 값으로는 '0'과 '1'을 입력한다.

$$a_{ij} = \begin{cases} 1, & \text{if } (i,j) \in L \\ 0, & \text{otherwise} \end{cases}$$

노드  $ij$ 가 있고, 이들 노드 사이에 대한 연결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가진다. 네트워크는 다양한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 특성을 설명하는 지표를 구조 지표 혹은 변수라고 한다.

네트워크는 그래프로서 시각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이 그래피론은 1736년 오일러(Euler)의 쾨니히스베르크 다리 문제(Konigsberg's Bridge Problem)에 그 기원이 있다. 그는 이 문제를 그래프를 사용하여 증명하였는데, 이 증명은 그래피론으로 발전하였고, 네트워크의 특징을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하였다<sup>70</sup>. 그래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는 점과 라인이다.

● 표 부록-3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점과 라인을 표현하는 단위

구분	점	라인
수학적 표현	Node, Point	Line, Arc
사회과학적 표현	Actor, Agent	Tie, Link

<sup>70</sup> 네트워크에서 점에 대한 용어는 포인트(Point), 노드(Node), 정점(Vertex) 등이 있고, 점과 점을 잇는 선분은 연결(Link), 선(Edge), 원호(Arc)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나, 노드와 연결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김병석, “온라인 댓글 토론 구조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p. 21.)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점’과 ‘라인’을 표현하는 단어는 다양하다. 특히 노드는 사람, 조직, 기업, 집단, 국가 등 하나의 개인이나 그룹을 의미하고, 라인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피론의 큰 장점은 수학적 방법 외에도 노드 혹은 행위자와 그들 사이의 관계 혹은 연관(Ties)에 의해서 나타나는 네트워크를 그래픽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그래프를 통하여 노드 혹은 행위자와 그들 사이의 관계 혹은 연관의 전체적인 형상(Form)이나 구조(Structure)를 표현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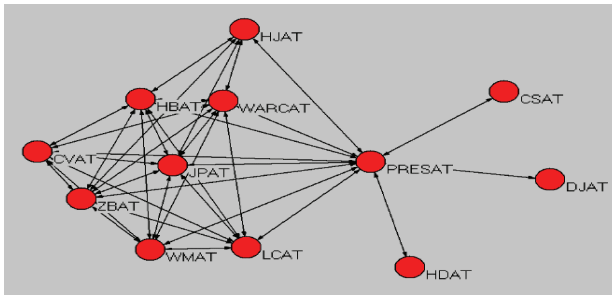
행위자 사이의 관계(예를 들어 교우관계, 채무관계, 친족관계)를 그래프에서는 선 혹은 라인으로 표현된다. 이 라인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의 <그림 부록-3>처럼 다양하게 표시된다. <그림 부록-3>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라인 혹은 관계) 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첨부하였다.

- 단순유형 연결(라인 혹은 관계)
- 방향성이 있는 연결
- 값을 가진 연결
- 균형이 있는 연결
- 다이애드(Dyad)
- 트리아드(Triad)

### 그림 부록-3 그래프의 형태

#### ❖ 그래프의 형태

- 그래프는 노드와 라인으로 표현하는 방법
- 보통 점은 사람인 행위자를 나타내고, 선인 라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
- 점과 선의 조합에 의해 행위자들이 사람 사이의 교류, 거래, 교환, 구매 등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프
- 사람들 사이의 전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



단순유형연결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관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친구관계가 있고 없고, 물건을 구매했고 안했고, 연인이 있고 없고 등의 단순관계가 포함된다. 방향성이 있는 연결은 하나의 노드를 중심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과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등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수입과 지출, 구매 및 판매 등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는 관계를 나타낸다. 값을 가지고 있는 연결은 연결의 가중치를 가지거나 연결의 크기 등이 있는 경우이다.

두 사람 사이에 같은 것을 다섯 개 선택한 경우 등이 있다. 다이에드 관계는 방향이 있는 관계와 상호성(Mutual)이 있는 관계를 포함한다. 즉, 상호 간에 정보를 주고받거나 하는 등의 관계를 포함한다. 트

리아드 관계는 노드 세 개에 의해서 연결되는 네트워크 내의 하위 네트워크이다. 네 가지 유형으로 연결선이 '0', '1', '2', '3'개인 경우가 있다.

#### 4. 구조 지표와 수리적 특성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추론하는 연구이다.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는 개인 혹은 조직을 일컫고, 관계는 행위자 사이의 연결을 의미한다. 이 관계의 맺음은 영향력 혹은 자원, 의견, 정보 교환 등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특히 행위자 사이의 자원 공유는 상품 공급과 같은 유형의 물질을 공유하는 것도 되며, 혹은 서비스나 정보 같은 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는 의미도 된다.

와셀만과 파우스트(Wasserman & Faust)<sup>71</sup>는 사회의 다양한 관계를 방향성, 강도, 내용의 세 가지 척도로 설명하였다. 먼저 방향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 혹은 영향력 등을 주고받은 방향을 설명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방향을 표현할 수 없는 관계도 있다. 방향이 없는 관계에서는 자원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제공자고 수혜자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강도는 두 행위자 사이 상호작용 빈도이다. 내용은 사람들 사이에 실질적인 연결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내용은 관계 맺음의 유형이다. 즉, 우정, 사랑, 구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1930년대부터 사회 및 행동 과학 영역에서 발

---

<sup>71</sup> Stanley Wasserman and Katherine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and applications*, pp. 37~38.

전하기 시작하였지만, 20세기 말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때 계량 사회학(Sociometry), 그래프이론, 다이에드, 트리아드, 하위그룹(Subgroup) 및 블록모델(Blockmodels) 등의 개념이 이론화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sup>72</sup> 최근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구조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계량적인 분석과 설명을 하는 것이다. <표 부록-4>에서 사회네트워크의 상호작용과 구조적 기준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 표 부록-4 사회네트워크 상호작용과 구조적 기준<sup>73</sup>

유		정의
상호작용적 기준	의사소통빈도	상호작용의 수와 연속성
	연결의 유형	관계의 목적과 작용: 관계의 유형
	중복	관계의 중복: 관계 속에서 결합된 내용의 수
	상호관계	관계의 조화 정도
	연결의 강도	시간, 감정, 강도, 상호성의 상대적 크기
구조적 기준	크기(Size)	사람의 수 또는 네트워크 속의 관계
	밀도(Density)	네트워크 연결: 총 연결에 대한 실제 연결의 비
	거리(Distance)	네트워크에서의 두 노드 사이의 연결 수
	중심성(Centrality)	노드와 노드 사이의 인접과 영향
	그룹화(Clique)	네트워크 하위그룹과 당파

72. 김병석, “온라인 댓글 토론 구조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 17 참조.

73. 김미선 외, “사회연결망을 이용한 새만금유역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 『ECO』, 제17권 2호 (한국환경사학회, 2013), pp. 227~274.

사회네트워크의 구조적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중심성과 집중도 지표가 있다. 그리고 관계의 빈도와 유무 특성을 설명하는 밀도나 네트워크 크기(Size)를 설명하는 등의 지표가 있다. 다음에서 사회네트워크 구조 지표 혹은 변수를 설명하였다.

## 가. 사회네트워크 구조특성과 지표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몇 가지의 대표적인 특성은 명성 혹은 권력(Power), 중개, 범위, 응집력, 그리고 구조적 등위성이라 할 수 있다.<sup>74</sup> 명성이나 권력은 네트워크에서 누가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응집력은 행위자들 사이에 연결 빈도를 통하여 전체적인 집단 내에서 강한 사회화 관계(직접적 연결)를 설명한다. 범위는 전체 네트워크 규모 혹은 크기를 나타낸다. 중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등위성은 한 네트워크 내에서 유사한 혹은 동일한 구조적 위치에 있는 행위자의 역할이나 지위의 유사성을 설명해 준다.

---

74. 임병학 외,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6시그마 경영활동요인 관계성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11권 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0), pp. 187~206.



● 표 부록-5 사회네트워크의 구조 특성과 지표(혹은 변수)

	권력 혹은 명성	응집력	범위	중개	구조적 등위성
구조적 지표	연결정도와 근접 중심성 및 집중도	밀도와 포괄성	네트워크의 경계 혹은 크기	매개 중심성과 집중도/ 구조적 특새	유사한 혹은 동일한 구조적 위치
네트워크 개념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	네트워크에 서 가능한 총 관계 수와 연결된 노드 수의 비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수	네트워크 내에서 한 행위자가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의 정도	유클리디안 거리와 상관계수에 의해 측정

사회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개념 및 지표와의 관계는 <표 부록-5>에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수리적인 특성은 다음에서 설명하였다.

## 나. 중심성과 집중도

‘중심성(Centrality)’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의 위치를 설명하는 지표로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를 측정한다.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은 다른 점들과의 관계성이 높거나 중개자적 역할이 많은 경우를 의미하며,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거나 관계하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 네트워크의 중심 위치에 있다고 설명된다. 중심성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정보나 자원을 수집하기 용이하다. 높은 중심성을 가질수록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한 점이 얼마나 많은 점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75</sup>

75. 손동원,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2008), pp. 91~92.

표 부록-6 중심성과 집중도 비교<sup>76</sup>

지표		개념	특징
중심성	연결 정도	의사소통 활동	- 정보의 주요채널 - 정보의 주 흐름
	매개	의사소통 통제	- 전송정보의 보류, 왜곡 - 의사소통의 유지 - 그룹프로세스의 코디네이터
	근접	의사소통 효과성	- 메시지의 최소한 전달 시간 - 의사소통의 비용과 시간의 최소화
집중도	연결 정도	의사소통 활동	- 문제해결에서의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속도
	매개	의사소통 통제	- 참여자의 만족
	근접	의사소통 효과성	- 리더십의 구조

프리먼(Freeman)<sup>77</sup>은 중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결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을 제시하였고,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연결정도 집중도, 근접 집중도(Closeness Centralization), 매개 집중도(Betweenness 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사회네트워크 내에서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수이고,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인지를 나타내며,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에 어느 정도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지를 최단 연결거리로 설명한다. 중심성이 중심위치를 설명하는 지표라면, 집중도는 중심위치의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설명하는 지표

76. 김병석, “온라인 댓글 토론 구조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 42.

77. Linton Freeman,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Vol. 1 (1979), pp. 215~239.

이다. 중심성과 집중도의 특성을 <표 부록-6>에 간략히 설명하였다.

(1) 연결정도 중심성과 연결정도 집중도

(가) 연결정도 중심성

연결정도 중심성이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노드와 직접 연결된 다른 점들과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여,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노드들이 어느 정도 중심을 점하는지를 알아보는 수단이다. 다른 노드와의 연결된 정도를 중시하며, 네트워크 내에서 하나의 노드에 인접하게 연결된 노드들의 합을 의미한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노드 사이의 연결 방향에 따라 내향 중심성(In-degree Centrality)과, 외향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이 있다. 중심성이 높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는 활동성이 높은 사람이며, 네트워크 구축의 범위가 넓은 사람을 의미한다. 연결정도 중심성( $C_D(p_k)$ )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C_D(p_k) = \sum_{i=1}^n a(p_i, p_k)$$

여기서  $a(p_i, p_k) = \begin{cases} 1 & (p_i, p_k) \text{ 사이에 연결이 있는 경우} \\ 0 & \text{그밖에 (otherwise)} \end{cases}$

$C_D(p_k)$ 의 값이 크면, 포인트(노드)  $p_k$ 에 많은 포인트가 인접하거나, 연결되어 있다.  $C_D(p_k)$ 이 낮으면  $p_k$ 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치가 작은 경우이고,  $C_D(p_k)$ 이 '0'이면 다른 모든 포인트로부터 대체적으로 고립된 것이다.

$C_D(p_k)$ 는 네트워크의 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각각의 다른 네트워크 간에 중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크기가 주는 효과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_D(p_k)$ 의 크기와 최대 크기 간 비율로 알아볼 수 있다. 네트워크의 크기가  $n$ 인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노드  $p_k$ 의 최대 연결의 수는  $n-1$ 이다. 그러므로  $C_D(p_k)$ 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n-1$ 이다. 따라서  $C_D(p_k)$ 을 최대값인  $n-1$ 의 비율로 표현하는 것을 상대적인 (혹은 평균) 연결정도 중심성 ( $C'_D(p_k)$ )이라고 한다. 따라서,

$$C'_D(p_k) = \frac{\sum_{i=1}^n a(p_i, p_k)}{n-1}$$

$C_D(p_k)$ 나  $C'_D(p_k)$ 는 포인트  $p_k$ 에서의 연결정도의 포인트 중심성의 구조적인 측정 지표이다.

#### (나) 연결정도 집중도

연결정도 중심성이 네트워크 내의 중심 위치라면, 연결정도 집중도는 중심 위치가 네트워크 내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연결정도 중심성의 수학적모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C_D = \frac{\sum_{i=1}^g [C_D(n^*) - C_D(n_i)]}{\text{Max} \sum_{i=1}^g [C_D(n^*) - C_D(n_i)]} = \frac{\sum_{i=1}^g [C_D(n^*) - C_D(n_i)]}{[(n-1)(n-2)]}$$

$C_D(n^*)$ 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연결정도 중심성이며,  $C_D(n_i)$ 는 노드  $i$ 의 연결정도 중심성이다. 즉, 분자인  $\sum_{i=1}^g [C_D(n^*) - C_D(n_i)]$ 의 값은 가장 높은 중심성 지수에서 각각의 노드들의 중심성을 뺀 값의 합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연결정도 중심성은 스타구조에서 나타나는 중심 위치로서 크기가  $n$ 인 네트워크에서  $(n-1)(n-2)$ 의 값을 가진다. 연결정도 집중도는 최대 1에서 최소 0인 값으로 나타난다.

## (2) 매개 중심성과 매개 집중도

### (가) 매개 중심성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짝(Pairs)이나 그룹과 연결을 맺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독립된 개체(Entity)가 가지는 위치를 파악한다. 네트워크에서 다른 두 행위자가 한 행위자를 거쳐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연결을 해주는 행위자의 매개 중심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높은 매개 중심성을 가진 하나의 개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행위자들이 이 행위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의사소통에 통제력을 갖게 됨). 매개 중심성 값이 가장 높은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보나 대화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프리먼<sup>78</sup>은 의사소통의 경로에서 중심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보류하는 행위로 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경로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사람은 의사소통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개의 포인트  $p_i$ 와  $p_j$  사이에 의사소통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여러 경로에 대한 확률은  $\frac{1}{g_{ij}}$  이다.

여기서  $g_{ij}$ 는 포인트  $p_i$ 와  $p_j$  사이의 경로의 수이다.  $p_i$ 와  $p_j$  사이에  $p_k$ 가 있을 경우  $g_{ij}(p_k)$ 는  $p_i$ 와  $p_j$  사이를 포함하는 경로의 수이다.  $p_i$ 와  $p_j$  사이에  $p_k$ 를 경유하여 연결될 확률은 아래와 같다.

$$b_{ij}(p_k) = \frac{1}{g_{ij}} \times g_{ij}(p_k) = \frac{g_{ij}(p_k)}{g_{ij}}$$

두 포인트 사이의  $p_k$ 를 경유하여 연결될 확률

$$\propto \frac{p_k \text{를 포함하여 연결될 경로의 수}}{\text{두 포인트를 연결하는 모든 경로의 수}} \text{ 이다.}$$

따라서 모든 포인트  $p_i$ 와  $p_j$  사이에서  $p_k$ 를 경유하는 확률 값은

$$C_B(p_k) = \sum_{i < j}^n \sum_j^n b_{ij}(p_k) \text{ 이다. } n \text{은 그래프 상의 모드 포인트의 수이}$$

---

<sup>78</sup> Linton Freeman,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pp. 215~239.

며,  $i \neq j \neq k$  이다.

$C_D(p_k)$ 나  $C_B(p_k)$ 도 네트워크 크기와 연관되어 있는 지표이다. 크기가 다른 네트워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크기에서 발생하는 영향 요인을 제거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두 노드 사이에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연결의 수는  $(n-1)(n-2)/2$ 이다. 이를 풀면  $(n^2 - 3n + 2)/2$ 이다. 이 이상적인 연결의 수를 위의  $C_B(p_k)$ 에 적용하여, 상대적인  $C'_B(p_k)$ 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C'_B(p_k) = \frac{2C_B(p_k)}{n^2 - 3n + 2} = \frac{2 \sum_{i=1}^n \sum_{j=1}^n b_{ij}(p_k)}{n^2 - 3n + 2}$$

#### (나) 매개 집중도

매개 집중도는 각 점들의 매개 혹은 중개 특성을 나타낸다. 매개 중심성을 확장하여 적용한다.

$$C_B = \frac{\sum_{i=1}^g [C_B(n^*) - C_B(n_i)]}{[(n-1)^2(n-2)]}$$

위의 식에서  $C_B(n^*)$ 는 네트워크에서 매개 중심성의 최대값이고,  $C_B(n_i)$ 는 각 노드의 매개 중심성 값이다. 분자 값은 매개 중심성의 최대값에서 각 노드의 매개 중심성을 빼준 값을 모두 합한 값이다. 분모인  $[(g-1)^2(g-2)]$ 는 네트워크 내의 모든 값들의 합한 값이다. 매개집중도 값의 범위는 최대 1에서 최소 0의 값을 가진다.

### (3) 근접 중심성과 근접 집중도

#### (가) 근접 중심성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빨리 하나의 개체가 더 많은 개체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즉, 한 노드와 다른 노드의 근접정도를 일컫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와 노드의 경로거리(Geodesic Distance, Path Distance)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높은 근접 중심성을 가진 하나의 개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근접 중심성이 높은 사람은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까닭에 정보의 권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중심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의 거리의 합으로 측정하는데, 포인트 디센트럴리티(Point Decentrality)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포인트  $p_k$ 와 포인트  $p_i$ 사이의 거리로서 나타내는 데 다음과 같다.

$$d(p_i, p_k) = \text{포인트 } p_k \text{와 포인트 } p_i \text{사이의 거리의 수}$$

포인트  $p_k$ 에 대한 디센트럴리티는 아래와 같다.

$$C_c(p_k)^{-1} = \sum_{i=1}^n d(p_i, p_k)$$

위의 값에서 네트워크 크기의 효과를 제거하면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_c(p_k) = \left[ \frac{\sum_{i=1}^n d(p_i, p_k)}{n-1} \right]^{-1}$$

$$= \frac{n-1}{\sum_{i=1}^n d(p_i, p_k)}$$

여기서,  $n-1$ 은 포인트  $p_k$ 와 다른 포인트들 사이의 최소의 거리를 나타낸다.

#### (나) 근접 집중도

근접 집중도는 각 노드 사이의 거리 개념이다.

$$C_c = \frac{\sum_{i=1}^g [C_c(n^*) - C_c(n_i)]}{[(n-2)(n-1)/(2n-3)]}$$

$C_c(n^*)$ 는 네트워크 내 노드들의 근접 중심성에서 가장 큰 값이다. 그리고  $C_c(n_i)$ 는 어떤 한 노드의 근접 중심성 값이다. 분자의 값은 근접 중심성의 최대값에서 각 노드의 근접 중심성의 값을 빼 다음에 이를 다시 합한 값이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값의 수치는  $(g-2)(g-1)/(2g-3)$ 이다. 근접 중심성 값의 범위도 최대 1에서 최소 0이다.

#### (4) 응집성

응집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관계가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정도이다. 밀도와 포괄성 지표로 나눌 수 있다.

(가) 밀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의 수를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연결 가능한 관계의 모든 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방향성이 없고 대칭적인 경우의 밀도는 네트워크 안의 연결 수/이상적인 전체 네트워크 내의 연결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text{밀도}(Density) = \frac{2L}{n(n-1)}$$

L: 네트워크 내의 연결의 수

n: 네트워크 내의 노드 혹은 포인트의 수

$n(n-1)/2$  는 네트워크 안의 전체 연결의 수

만일 방향성을 지녔으나 비대칭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text{밀도}(Density) = \frac{L}{n(n-1)}$$

L: 네트워크 내의 연결의 수

n: 네트워크 내의 노드 혹은 포인트의 수

$n(n-1)$ 는 네트워크 안의 전체 연결의 수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함에 있어 네트워크 내에서 사람들 사이의 연결수가 많고 적음은 밀도가 높고 낮음으로 표현된다. 밀도는 네트워크 내에서 전체 구성원들의 관계 정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에서는 점, 즉 노드들 사이 연결수로 파악하게 된다.

#### (나) 포괄성

포괄성은 전체 네트워크안의 행위자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로 표시한다. 포괄성이 높으면 관계를 맺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반대는 관계를 맺은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포괄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text{포괄성의 비율} = \frac{N_c}{N}$$

$N_c$ : 연결된 점의 수

$N$ : 네트워크 내 전체 점들의 수

#### (5) 네트워크 크기

행위자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 또는 관계의 수를 의미한다. 즉,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숫자로 측정하게 되는 지표이다.

#### (6) 구조적 등위성

구조적 등위성이 가진 유사한 특성에 의해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록모형이 사용된다. 블록모형은 사회네트워크 내에 있는 노드를 특정한 방법으로 군집화하고, 이 군집을 불력이라고 부르는 모형이다.<sup>79</sup> 군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네트워크 내에서 유사한

---

<sup>79</sup>. Juan Casse, *et al.* (eds.), "A New Criterion Function for Exploratory Blockmodeling for Structural and Regular Equivalence," *Social Networks*, Vol. 35 (January 2013), pp. 31~50.

위치를 가지는 노드를 그룹으로 블록을 만들고, 이 블록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구조적 등위성 분석이다.<sup>80</sup> 구조적 등위성 분석은 사회네트워크 내에서 유사한 위치를 가진 집단을 찾아내고, 집단 내와 그들 사이에 관계를 분석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위치와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구조적 등위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조적 등위성 측정을 위한 군집화 방법 결정
- 등위집단, 즉 블록을 파악
- 블록 사이의 관계분석을 위해 블록을 특정의 조건을 기준으로 인접행렬 작성
- 블록의 인접행렬을 분석하여 관계 파악

구조적 등위성을 분석하기 위해 블록으로 군집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상관관계를 사용하는 방법, 유클리디안의 거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고, 두 노드 사이의 관계 패턴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여부에는 상관계수, 유클리디안의 거리는 두 노드 사이의 관계의 동일성에 초점을 맞춘다.<sup>81</sup> 본 연구에서는 노드 상의 관계 패턴의 동일성보다는 유사성을 설명하므로 상관관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상관계수는  $\rho_{ij}$ 이다. 상관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ho_{ij} = \frac{\Sigma(x_{ki} - \bar{x}_i)^2 + \Sigma(x_{kj} - \bar{x}_j)^2 + \Sigma(x_{ik} - \bar{x}_i)^2 + \Sigma(x_{jk} - \bar{x}_j)^2}{\sqrt{\Sigma(x_{ki} - \bar{x}_i)^2 + \Sigma(x_{kj} - \bar{x}_j)^2} \sqrt{\Sigma(x_{ik} - \bar{x}_i)^2 + \Sigma(x_{jk} - \bar{x}_j)^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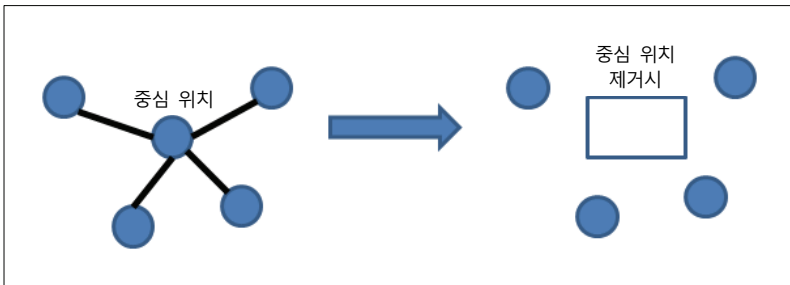
<sup>80</sup> 손동원, 『사회네트워크 분석』, p. 134.

<sup>81</sup> 위의 책, p. 138.

### (7) 중심위치의 리무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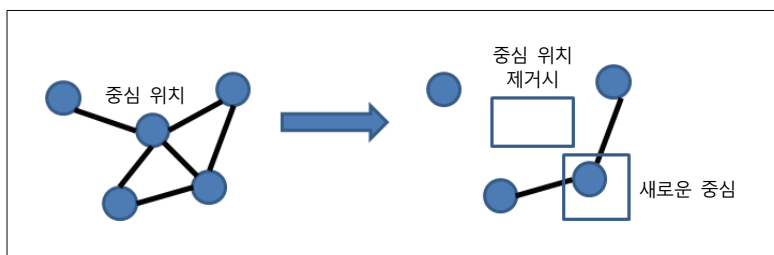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중심 위치이다. 이런 중심 위치에 있는 노드를 제거하거나 이동하였을 경우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의 위치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무브 효과(Remove Effect)이다. 이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네트워크가 여러 네트워크로 나누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중심 위치에 있는 노드가 다른 노드와 스타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전체적인 연결이 없어지면서 개별적인 노드로 변한다.

●그림 부록-4 리무브 효과



<그림 부록-4>처럼 스타구조에서는 중심위치에 있는 노드가 제거될 시 네트워크 전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보인다. 중심 위치 주변에 노드가 <그림 부록-5>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새로운 중심으로 이동이 일어난다.

● 그림 부록-5 중심의 이동



조직 혹은 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중심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중심의 형성과 이동이 발생한다.

## [부록 2] 중국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주요 인물의 대 한국 교류 현황

표 부록-7 연결정도 중심성 상위 20인·네트워크 역할 지수 상위 10인의 대 한국 교류 현황

이름	교류 당시 직위	연도	이름	직위	내용
리첸 (李群)	청도시 당서기	2013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한중 녹색경제협력포럼
			김상열	OCI 부회장	
			황승현	주청도영사관 총영사	
			염홍철	대전시 시장	대전-청도 우호협력도시협정 논의
바터얼 (巴特爾)	내몽고 자치구 주석	2013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전남-내몽고 교류협력 논의
		2012	하영봉	LG상사 사장	내몽고 석탄산업 논의
왕루린 (王儒林)	길림성 성장	2013	김광수	충청북도의회 의장	충북도의회-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우회교류의향서 교환
			2011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훈춘 경제발전지구 논의
		2010	정준양	포스코 회장	포스코-길림성 투자합작 체결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강원 G밸리 방문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 회의
	이인화		충청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왕루린 충청남도 방문	
	장춘시 당서기	2006	박찬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금호타이어 장춘 공장 착공식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	
			이원태	금호고속 사장	
진전지 (金振吉)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장	2007	이완구	충청남도 도지사	충남-연변 교류협력 논의

예샤오윈 (葉小文)	국가종교 사무국 국장	2007	임채정	국회의장	김교각 지장왕보살 봉안법회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					
자오정웅 (趙正永)	섬서성 당서기	2014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서안 반도체공장 준공식				
			권영세	주중대사					
			전재원	주서안총영사관 총영사					
			박상진	삼성 SDI 사장	서안 반도체공장 관련 논의				
	섬서성 성장	2013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섬서성 방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서안 반도체공장 관련 논의				
		2012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섬서성 교류협력 논의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서안 반도체공장 관련 논의				
			이규형	주중대사	한국-섬서성 우호협력주간				
			김종중	삼성전자 사장	서안 반도체공장 관련 논의				
세푸잔 (謝伏瞻)	하남성 성장	2014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중일 30인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국무원 연구실 주임	2010	유명환	외교부 장관	한중 정상회담 확대회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우익	주중대사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최중경	경제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황리신 (黃莉新)	무석시 당서기		2013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	인천-무석 항공노선 개설 논의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무석 공장 투자협약 논의
권오철	SK하이닉스 사장	권오철 사장 무석시 명예시민 위촉							
2012	최태원	SK그룹 회장		무석 공장 방문					



	강소성 부성장	2007	이연창	농협중앙회 경제대표이사	한중 농업교류 논의
리윈펑 (李雲峰)	(現)강소성 상무부성장 (前)강소성 판공청 주임	한국과의 교류 경험 없음			
레이춘메이 (雷春美)	(現)북건성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前)북건성 남평시 당서기				
양위에 (楊嶽)	(現)북주시 당서기 (前)공청단 중앙서기처 상무서기				
뤄상장춘 (洛桑江村)	(現)서장자치구 당부서기 (前)서장자치구 부주석				
류후이 (劉慧)	(現)영하회족자치구 당부서기 (前)영하회족자치구 부주석				

注 1: 제Ⅱ장(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분석 결과, 연결정도 중심성 상위 20인 및 네트워크 역할 지수 상위 10인의 한국과의 교류 현황이다.

注 2: 중복 인원 4명(리첸, 바터얼, 뤼상장춘, 레이춘메이)을 제외한 26명 중에서, 제Ⅲ장의 분석 대상인 중앙정부 부처 및 군부 권력엘리트를 제외한 13명을 분석한 결과, 8명은 한국과 교류 경험이 있었고, 5명은 교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부록-8 차세대 주요 권력엘리트의 대 한국 교류 현황

이름	당시 직위	연도	이름	직위	내용
루하오 (陸昊) 1967년생	흑룡강성 성장	2013	이병석	국회 부의장	한중 의회 정기교류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우근민	제주도 지사	제주도-흑룡강성 우호교류협약
	공청단 제1서기	2012	남경필	IEF 조직위원장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IEF) 기자간담회
			홍상표	콘텐츠진흥원 원장	
			최신규	콘텐츠진흥원 이사장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한중 청소년 교류 대표단 파견
			설영홍	현대차그룹 부회장	중국 내 사회공헌활동 체결식

		2010	이광재	강원도 지사	이광재 지사 방중
		2009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IEF 국가대항전
			남경필	IEF 조직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한중 차세대 지도자 포럼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우제창	민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	
			박영선	민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2008	이광재	IEF 조직위 공동위원장	IEF 국가대항전	
		남경필	IEF 조직위 공동위원장		
	북경시 부시장	2008	하영제	산림청 청장	탄소배출권 연계방안 협의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북경 장애인올림픽 격려 방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북경 현대자동차 제2공장 준공식
		2007	전기호	싸이더스 대표이사	한국기업 북경 발전 포럼
			민경선	KOTRA 글로벌 코리아 본부장	
		2006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북경 현대자동차 제2공장 기공식
		2004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북경 현대자동차 육성계획 설명회
설영홍			현대자동차 부회장	북경 현대자동차 신차 도입의향서 조인식	
2003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북경 현대자동차 신차 발표회	
		김하중	주중 대사		
친이즈 (秦宜智) 1965년생	공청단 제1서기	2014	장원기	중국삼성 사장	중국삼성 희망공정 MOU
			이정렬	중국삼성 전무	

		2013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공청단 초청 방중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민주당 의원	
			정호준	민주당 의원	
			이언주	민주당 의원	
			송호창	국회의원(무소속)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동아시아 양성평등 장관 회의
			런쉐핑 (任學鋒) 1965년생	천진시 부시장	2011
이철우	롯데백화점 사장	한국-천진 우호교류주간 개막			
이규형	주중 대사				
201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천진시 사업진출 논의
	이철우	롯데백화점 사장			롯데백화점 천진 2호점 계약
2009	박근희	중국삼성 사장			삼성생명 중국합작사(중항삼성) 천진분공사 개업식
	심재호	중항삼성 대표			
쑤정차이 (孫政才) 1963년생	중경시 당서기	2014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방중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 제4공장 설립 논의
		2013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 접견
			이세기	한중 친선협회 회장	
	길림성 당서기	2012	정준양	포스코 회장	훈춘 포스코 현대 국제물류단지 착공식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황식	국무총리	쑤정차이 방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용덕	한중교류협회 회장	
		이수성	한중교류협회 명예이사장	
		설영홍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신박제	NXP 반도체 회장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규택	원아시아그룹 회장	
	2011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제7차 한중 재계회의
		박진	한나라당 의원	한중관계 논의
		장용성	매일경제신문 주필	한중일 기지원탁포럼
		최태원	SK그룹 회장	훈춘 경제발전지구 논의
2010	류우익	주중대사	한중 우호주간 행사	
	정준양	포스코 회장		
천강 (陳剛) 1966년생	(現)귀양시 당서기 (前)북경시 부시장	한국과의 교류 경험 없음		
우만칭 (吳曼靑) 1965년생	(現)중국 공정원 원사			
탕타오 (湯濤) 1962년생	(現)인사부 부부장 (前)호북성 부성장			

注 1: 제Ⅱ장(중국 당·정·군 권력엘리트의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분석 결과, 40대 권력 엘리트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인물(루하오, 친이즈, 런쉐핑)과, 가장 많은 권력엘리트를 배출한 산둥성 출신 중 대표적인 인물(쑤정차이)들의 한국과의 교류 현황이다. 천강, 우만칭, 탕타오 등은 한국과의 교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록 3] 중앙정부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권력엘리트 명단

(2014년 8월 기준)

### 1. 중앙정부(국무원 산하 25개 부·위원회)

#### (1) 외교부

- 부장: 王毅
- 부부장: 張業遂, 程國平, 謝杭生, 劉振民, 李保東, 王超, 張明, 宋濤, 翟雋

#### (2) 국방부

- 부장: 常萬全

####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주임: 徐紹史
- 부주임: 解振華, 朱之鑫, 劉鶴, 吳新雄, 徐憲平, 穆虹, 連維良, 胡祖才, 林念修, 張曉強, 杜鷹

#### (4) 교육부

- 부장: 袁貴仁
- 부부장: 杜玉波, 魯昕, 李衛紅, 杜占元, 郝平, 劉利民

#### (5) 과학기술부

- 부장: 萬鋼
- 부부장: 王志剛, 張來武, 曹健林, 李萌, 王偉中, 陳小嫻

(6) 공업정보화부

○ 부장: 苗圩

○ 부부장: 楊學山, 蘇波, 劉利華, 尙冰, 許達哲, 馬偉明, 馬興瑞

(7) 민족사무위원회

○ 주임: 王正偉

○ 부주임: 丹珠昂奔, 羅黎明, 陳改戶, 李昭

(8) 공안부

○ 부장: 郭聲琨

○ 부부장: 楊煥寧, 傅政華, 劉金國, 孟宏偉, 陳智敏, 黃明, 李偉,  
劉彥平

(9) 국가안전부

○ 부장: 耿惠昌

(10) 감찰부

○ 부장: 黃樹賢

○ 부부장: 姚增科, 郝明金, 於春生, 黃曉薇

(11) 민정부

○ 부장: 李立國

○ 부부장: 薑力, 竇玉沛, 顧朝曦, 宮蒲光

(12) 사법부

○ 부장: 吳愛英

○ 부부장: 張蘇軍, 郝赤勇, 趙大程, 張產珍

(13) 재정부

○ 부장: 樓繼偉

○ 부부장: 張少春, 朱光耀, 王保安, 劉昆, 史耀彬

(14)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부장: 尹蔚民

○ 부부장: 楊志明, 何憲, 胡曉義, 信長星, 張建國, 潘立剛, 邱小平,  
楊士秋, 王曉初

(15) 국토자원부

○ 부장: 薑大明

○ 부부장: 庫熱西買合蘇提, 汪民, 張少農, 王世元, 胡存智

(16) 환경보호부

○ 부장: 周生賢

○ 부부장: 潘嶽, 吳曉青, 周英, 李幹傑, 翟青, 周建

(17) 주택도시건설부

○ 부장: 姜偉新

○ 부부장: 陳大衛, 齊驥, 仇保興, 郭允冲

(18) 교통운수부

○ 부장: 楊傳堂

○ 부부장: 李家祥, 翁孟勇, 王昌順, 馮正霖, 陸東福, 何建中, 高  
宏峰

(19) 수리부

- 부장: 陳雷
- 부부장: 鄂竟平, 矯勇, 胡四一, 劉寧, 李國英, 蔡其華

(20) 농업부

- 부장: 韓長賦
- 부부장: 餘欣榮, 張桃林, 李家洋, 牛盾, 於康震, 陳曉華

(21) 상무부

- 부장: 高虎城
- 부부장: 李金早, 鍾山, 高燕, 房愛卿, 俞建華, 姜增偉

(22) 문화부

- 부장: 蔡武
- 부부장: 丁偉, 項兆倫, 勵小捷, 楊志今, 董偉, 趙少華

(23)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 주임: 李斌
- 부주임: 孫志剛, 王國強, 馬曉偉, 陳嘯雄, 劉謙, 尹力, 王培安, 崔麗, 徐科

(24) 중국인민은행

- 행장: 周小川
- 부행장: 胡曉煉, 易綱, 潘功勝, 李東榮, 劉士余



(25) 국가회계감사서

○ 심계서장: 劉家義

○ 부심계서장: 石愛中, 余效明, 董大勝, 侯凱, 李勇庫

2. 중앙군사위원회(주석 시진핑 제외)

○ 부주석: 範長龍, 許其亮

○ 위원: 常萬全, 房峰輝, 張陽, 趙克石, 張又俠, 吳勝利, 馬曉天,  
魏鳳和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서울: 전영사, 2003.

\_\_\_\_\_.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전영사, 2007.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서울: 한울, 1997.

손동원.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2008.

송호근 외.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결망』.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6.

전병곤 외.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Bo, Zhiyue. *China's Elite Politics: Political Transition and Power Balancing*. Singapore: World Scientific Press, 2007.

Chase, Michael and Mulvenon, James. *You've Got Dissent! Chinese Dissident Use of the Internet and Beijing's Counter-Strategies*. Santa Monica, CA: RAND, 2003.

Huang, Ji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Lee, Hongyung.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Technocracy in Social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Li, Cheng. *China's Leaders: The New Generation*.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1.

Lieberthal, Kenneth and Oksenberg, Michel. *Policy Making in China: Leaders, Structures, and Processe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Mosca, Gaetano. *The Ruling Class*. New York: McGraw Hill, 1939.
- Pareto, Vilfredo. *The Mind and Society: A Treatise on General Sociology*. New York: Dower, 1935.
- Pye, Lucian. *The Dynamic of Chinese Politics*. Cambridge, Massachusetts: Oelgeschlager, Gun & Hain, 1981.
- Redondo, Fernando. *Complex Social Networ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Roy, Macridis. *Modern Political Regimes: Patterns and Institutions*. Boston: Little, Brown, 1986.
- Scott, John.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London: SAGE Publications, 2000.
- Shirk, Susan.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Teiwes, Fredrick. *Politics at Mao' Court: Gao Gang and Party Factionalism in the Early 1950s*. Armonk, New York: M. E. Sharpe, 1990.
- Tom, Bottomore. *Elites and Society*. London: C.A. Watt and Co. Ltd, 1964.
- Wasserman, Stanley and Faust, Katherine.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 New York and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Wong, John, et al. (eds.), *China's Post-Jiang Leadership Succession: Problems and Perspectives*. Singapore: World Scientific Press, 2001.
- Zheng, Shiping. *Crossing the Political Minefield of Succession:*

*From Jiang Zemin to Hu Jintao.*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2002.

寇健文. 『中共菁英政治的演變: 制度化與權力轉移, 1978-2004』. 台北: 五南, 2005.

## 2. 논문

김도희. “중국의 사회적 자본: 사회네트워크를 통한 고찰.” 『중국학연구』. 제48집, 2009.

김병석. “온라인 댓글 토론 구조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병석 외.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 공유 관계와 사회네트워크 영향력 위치 탐색연구: 투모드 데이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0권 제2호 (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14.

김병석 외. “한·미간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구성하는 정보기술 선호도 비교 연구: IT 인공물과 내용 분석.” 『유라시아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20호), 2011.

김홍유 외. “취업률과 취업인프라 사이의 사회네트워크 구조변화에 따른 예산효과에 관한 연구: K대학을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제27권 제4호, 2013.

류재현. “한중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유형론적 비교연구-부산, 상하이,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2호, 2012.

박해욱 외. “지방자치단체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 서상민. “상하이지역 경제엘리트의 사회연결망분석.” 『한국동북아논총』. Vol. 71, No. 1, 2014.
- 이제호. “중국에서 관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집, 2006.
- 이창준 외. “e커머스기업의고객서비스쿨트랜드발견사회네트워크분석 NodeXL 활용.” 『Information System Review』. Vol. 13 No. 1, 2010.
- 임병혁 외.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6시그마 경영활동요인 관계성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11권 제4호, 2010.
- 한승완. “연줄망에서 연결망으로.” 『사회와 철학』. 제8호, 2004.
- Andrew, Nathan. “A Factionalism Model for CCP Politics.” *China Quarterly*. Vol. 53, January 1973.
- \_\_\_\_\_. “China’s Changing of the Guard: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Vol. 14, January 2003.
- Bachman, David. “The Paradox of Analysing Elite Politics under Jiang.” *The China Journal*. No. 45, January 2001.
- Bo, Zhiyue. “Political Succession and Elite Politics in Twenty-First Century China: Towards a Perspective of Power Balancing.” *Issues and Studies*. Vol. 41, No. 1, March 2005.
- Casse, Juan, *et al.* (eds.) “New Criterion function for Exploratory Blockmodeling for Structural and Regular Equivalence.” *Social Networks*. Vol. 35, 2013.
- Dittmer, Lowell. “Chinese Informal Politics.” *China Journal*. No. 34, July 1995.
- Dittmer, Lowell and Wu, Yu-Shan. “The Modernization of

- Factionalism in Chines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47, No. 4, July 1995.
- Domes, Jurgen. “Intra-Party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st Rule in China.” *presented for the 4th Sino-American Conference on Mainland China. (Taipei: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cember 12-15, 1974.
- Fewsmith, Joseph. “The Sixteenth National Party Congress: the Succession that Didn’t Happen.” *The China Quarterly*. Vol. 173, 2011.
- Hamrin, Carol. “Competing ‘Policy Packages’ in Post-Mao China.” *Asian Survey*. Vol. 24, No. 5, May 1984.
- Li, Cheng.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Educated Returnees in the Chinese Leadership.” *China Leadership Monitor*. No. 16, Fall 2005.
- \_\_\_\_\_. “Xi Jinping’s Inner Circl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3, November 2012.
- \_\_\_\_\_. “University Networks and the Rise of Qinghua Graduates in China’s Leadership.”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32, July 1994.
- Li, Cheng and White, Lynn. “The Fif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ull-Fledged Technocratic Leadership with Partial Control by Jiang Zemin.” *Asian Survey*. Vol. 38, No. 3, March 1998.
- Linton, Freeman.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Vol. 1, 1979.

- Shambaugh, David. "The Dynamics of Elite Politics During the Jiang Era." *The China Journal*. No. 45, January 2001.
- Tanner, Murray. "Family Politics, Elite Recruitment, and Succession in Post-Mao China."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o. 30, July 1993.
- Teiwes, Frederick. "The Paradoxical Post-Mao Transition: From Obeying the Leader to 'Normal' Politics." *The China Journal*. No. 34, July 1995.
- Tsou, Tang. "Prolegomenon to the Study of Informal Groups in CCP Politics." *China Quarterly*. Vol. 65, March 1976.
- \_\_\_\_\_. "Chinese Politics at the Top: Factionalism or Informal Politics? Balance-of-Power or a Game of Win All?" *China Journal*. No. 34, July 1995.
- Whiteson, William. "The Concept of Millitary Generation: The Chinese Communist Case." *Asian Survey*. Vol. 8, No. 1, 1 November 1968.
- 寇健文. "中共菁英政治的研究途徑與發展." 『中國大陸研究』. Vol. 47, No. 3, 2004.



연구총서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 학술회의총서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 협동연구총서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중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근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 기타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근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회 편	16,5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전병곤 외	9,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비매출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 Study Series

비매품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 기타

---

-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 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http://www.kinu.or.kr)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네트워크 영향력과 한중 네트워크  
형성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정책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전병곤(田炳坤)**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실장, 선임연구위원  
한국외대 정치학 박사

**홍우택(洪宇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미국 클레어몬트대 정치학 및 경제학 박사

**신종호(申鍾浩)**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중국 북경대 국제정치학 박사

**김병석(金秉錫)**

한국과학기술대 강사  
한양대 경영학 박사

**서상민(徐尙珉)**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고려대 정치학 박사

**양갑용(楊甲鏞)**

성균중국어연구소 연구교수  
중국 복단대 정치학 박사

**윤경우(尹炅雨)**

국민대 국제학부 중국학전공 부교수  
미국 템플대 정치학 박사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통일연구원



ISBN 978-89-8479-773-4